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동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8. 13(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목 차

## 【심의사항】 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봉수당진찬도	공개
2	회경루방회도	공개
3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	공개
4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 변경>	공개
5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현상변경	공개

## 【검토사항】 6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공개
1	강화 관청리 출토 금동여래삼존상	공개
2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	공개
3	단산오옥명 떡	공개
4	추사 김정희 서신	공개
5	해동제국기	공개
6	조선왕조의궤(분상용/비유일본/완질본/분상처유/필사본)	공개

## 【보고사항】 3건

1	경북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탄소연대 측정 결과 보고	공개
2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수량 변경 검토 보고	공개
3	경주 왕룡사원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 지정 추진 계획 보고	공개





# 심 의 사 항



## 【심의사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5-04-001

#### 1.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 가. 심의사항

‘봉수당진찬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환수문화재 소장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신청을 받음
- 이와 관련, 동국대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7.11)이 있었고, 이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10.22.)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2차 회의(4.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동국대학교의 기록유산포털 공개 동의라는 사유로 ‘조건부가결’로 의결되었음
  - ※ 동국대학교는 그동안 기록유산포털에 탑재되어 있는 기 지정된 동국대 소장의 국가지정문화재 16건에 대하여 공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음
- 동국대학교로부터 공개동의서가 접수('15.5.15, '15.6.8)된 후, 30일간 지정예고('15.6.22~'15.7.2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6호(2008.07.10.지정)
- 명 칭: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 소유자(관리자):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156.2×65.0cm
- 재 질: 비단바탕에 채색
- 형 식: 화축
- 제작연대: 1795년경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봉수당진찬도>는 여러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봉수당진찬도>의 제작배경이 되는 1795년의 화성능행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사건이다. 그림의 내용은 관련 문헌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자세하게 뒷받침한다. 특히 내입용 병풍을 그린 화가 7명(최득현, 김득신, 이명규, 장한중, 윤석근, 허식, 이인문 등)의 이름을 알 수 있다.
- 원래 <봉수당진찬도>는 8첩 병풍으로 그려졌다고 보지만 현재는 병풍에서 분리되어 단폭으로 전한다. 온전한 8폭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그림이 조선시대 궁중기록화를 대표할만한 최고의 완성도와 회화적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궁중회화가 절정을 이루는 18세기 말~19세기 초 내입용 궁중기록화는 이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그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궁중기록화는 내입용과 분상용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회화적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진정한 내입용이라고 할만한 것은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봉수당진찬도>는 18세기 말~19세기 초 궁중 내입용 기록화의 기준을 제시해 줄만하다고 판단된다.
- 이 <봉수당진찬도>가 온전한 병풍에서 흩어진 것일 가능성은 삼성미술관 Leeum의 <환어행렬도>(세로 156.5cm, 가로 65.3cm)가 증명한다. <환어행렬도> 역시 <봉수당진찬도>와 같은 치밀한 세부 묘사와 필치의 능란함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수작이다. 두 작품은 채색의 색감이나 필치, 양식적 특징이 상통할 뿐만 아니라 화면 사이즈가 거의 일치하고, 이전 병풍의 가장자리 비단을 현재의 단폭 상황에서 둘다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화적 특징이나 이전 상황의 흔적을 공유한 두 작품은 원래 한 병풍에서 흩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

원래는 8폭이었을 것이며, 이 작품 이외에 같은 병풍에서 분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폭이 전하고 있다. 그림의 내용, 상태, 화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후기 <화성능행도>에 속했던 작품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극도로 정교하고 화려한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재 화성능행도병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고궁박물관에 1건씩 보관되어 있으며, 낱폭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소장의 <환어행렬도>,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의 <봉수당진찬도>, 일본 교토대학소장의 <낙남헌방방도>, <봉수당진찬도>, <득중어사도>,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 일본 도쿄예술대학소장의 <득중어사도>가 있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 한 재일교포가 동국대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비록 단폭이지만, 작품성 만을 두고 판단할 때에는 어떤 8폭병풍이나 다른 낱폭 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또한 장황은 일본식 표구인데, 위의 동그라미가 현재 리움소장 환어행렬도와 비단의 문양이나 표구방식이 동일하며, 크기도 대동소이한데 이 점 역시 주목된다. 필법에서는 이 두 점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록화 한 점을 그리는데, 대체로 3-4명의 화원이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 두 점은 같은 8폭 병풍에서 갈라져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작품의 상태도 양호하고 질적 수준이 뛰어나다. 화면구성이나 설채와 원근법 사용방식 등에 있어 18세기말-19세기 초의 궁중기록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동국대학교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원래 8폭 병풍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 단폭(單幅)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소장처에 있는 <봉수당진찬도>와 비교할 때, 세부 묘사와 색감의 표현에 있어 화격이 월등히 뛰어나다.

장황은 일본식 표구로 되어 있으나 이와 비교해야할 작품이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환어행렬도 還御行列圖>이다. 이 그림에도 아래·위에 녹색비단이 있고, 그 위에 원형의 문양이 들어가 있어 원래 같은 병풍에 장황되어 있다가 분리된 작품이 아닐까 추측된다. 화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화원들이 협동 제작을 한 경우 같은 그림 내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작품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묘사의 완성도도 매우 높아 19세기 궁중기록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조사된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는 1795년 윤2월부터 7박8일 여정으로 거행된 정조의 현릉원(顯隆園) 행차를 기념한 <<화성능행도(華城陵幸圖)>> 8폭 병풍의 첫 번째 폭에 해당되는 그림이다. 현재 소장처에는 나머지 7폭을 제외한 이 한 폭만이 독립된 화축으로 장황되어 전하고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경 재일 교포의 기증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것으로 현재는 입수 당시의 장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채색의 색감이 살아있고 바탕의 탈락이나 변색된 곳이가의 없어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봉수당진찬은 정조 일행이 화성에 도착한지 3일째 되는 윤 2월 13일에 화성행궁의 내당인 봉수당에서 거행된 혜경궁(惠慶宮, 1735-1815)의 환갑 기념 진찬이다. 봉수당 뜰 위에는 덧마루가 깔려 있고 백목 휘장이 3면에 둘러져 있다. 이 덧마루 위에 정조의 시연위(侍宴位)와 배위(拜位), 의빈·척신의 시연위, 그리고 악공들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봉수당 앞기둥에는 주렴이 내려져 있어 실내에 설치된 혜경궁, 내외명부(內外命婦), 여관(女官)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중앙문(中陽門)과 좌익문(左翊門) 사이에는 배종백관들이 각기 독상을 앞에 두고 좌우로 열좌(列坐)하였다. 덧마루 위에는 향발(響鉢), 아박(牙拍), 쌍무고(雙舞鼓), 선유락(船遊樂) 등의 정재 공연이 그려져 있다. 정조의 자리 앞에는 선도(仙桃)를 올리는 모습이 묘사되었고 덧마루 남쪽 가까이에 포구문(拋毬門) 2개가 준비되어 있어 헌선도(獻仙桃)와 쌍포구락(雙拋毬樂)도 공연된 정재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봉수당진찬도>는 작은 부분까지도 윤곽선이 애매하거나 흐트러진 부분 없이 한결같이 또렷한 것이 특징이다. 찬안(饌案) 및 음식상, 참석자들 머리의 삽화(插花), 배종백관·여령(女嬪)·악공의 복식, 각종 무구(舞具)와 의장기 등의 세부 묘사는 일관되게 치밀하고 꼼꼼하다. 19세기 궁중기록화에 비하면 명암은 매우 약한 편이다. 봉수당의 기둥, 덧마루의 계단, 정재 의장을 세워놓은 기(機), 가교(駕轎)가 놓인 단(壇), 선우락의 채선 등 윤곽선 주위에 명암을 살짝 가해 입체감을 살렸다.

<<화성능행도병>>은 행사를 주관했던 정리소(整理所)에서 이를 기념하여 만든 병풍이다. 원행의 전모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당시 궁중에 대병(大屏) 3좌를 내입하고, 총리대신 체재공에게 대병 1좌, 당상 7명과 낭청 5명에게 각각 대병 1좌씩을 분상하였다고 한다. 대병이 총 16좌나 만들어진 것이다.

행사 당시 이와 같이 여러 건의 병풍이 제작된 만큼 현재 《화성능행도병》은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Leeum, 국립고궁박물관, 우학문화재단에 온전한 8첩 병풍이 소장되어 있다. 이 동국대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 외에 삼성미술관 리움에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와 도쿄예술대학교 박물관에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가 소장되어 있으며, 교토대학교박물관에 <봉수당진찬도>·<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득중정어사도>·<환어행렬도>·<한강주교도(漢江舟橋圖)>의 5폭이 날폭으로 전한다.

이 여러 소장본 중에서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없으며 세부의 밑그림, 필치, 채색에서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회화적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사된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남아있는 여러 소장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 □

### ○ 현 상

현재 한 폭의 족자로 되어 있는데 장황의 형식으로 미루어 볼 때 20세기 후반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고 채색이 선명하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별도의 보관 상자는 없다.

### ○ 내용 및 특징

정조(正祖)는 1795년 수원 화성에 행차한 후, 이때 거행한 일련의 행사를 8폭의 <화성능행도>로 그렸다. 그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 헌경왕후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화성 봉수당에서 베푼 잔치 장면을 그린 것이다. 아주 가는 필선을 사용하여 건물, 인물, 기물을 극도로 정교하게 묘사했으며,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 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금물감 역시 많이 사용했다.

### ○ 문헌자료

장계수,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 봉수당진찬도>, 『불교미술』 18집, (2006), 75-101.

### ○ 기 타

동국대학교박물관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에는 “在日 교포 寄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장번호는 769이다.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은 1982년부터 이 유물의 소재지를 명기하였다. 박물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 황수영 교수가 1960년대 초 한

일회담 문화재반환 건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인연으로 후일 기증받은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유물대장에는 유물번호 762부터 772까지 11건이 “재일 교포 기증”로 되어 있어 일괄 유물로 여겨지며, 이중에는 보물569 <안중근의사유묵>(1972년 지정), 보물743 <정조필 파초도 (正祖筆 芭蕉圖)>(1982년 지정)와 보물744 <정조필 국화도 (正祖筆 菊花圖)>(1982년 지정)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화성능행도는 전체 또는 부분으로 이 작품을 포함하여 7건 정도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삼성미술관리움의 <화성행행도병풍(華城行幸圖屏風)>은 보물 1430호(2005년 지정)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표장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삼성미술관리움의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족자 1점이 있다. 따라서 극도로 정교한 화풍을 보여주는 두 작품은 일본의 같은 공방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수리된 후, 각기 분산되었을 것이며, 원래는 같은 병풍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원래 8폭이었던 만큼 나머지 작품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 □

### ○ 조사내용

봉수당진찬도란 《華城陵幸圖屏》중 한 폭이다. 《화성능행도병》은 정조가 1795년(정조19) 윤2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華城에 있는 부친 思悼世子(1735-1762)의 묘소인 顯隆園에 行幸했을 때의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이다. 이 도병은 <華城聖廟展拜圖>, <落南軒放榜圖> <奉壽堂進饌圖> <落南軒養老宴圖><西將臺夜操圖><得中亭御射圖><還御行列圖><漢江舟橋還御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이 현릉원원행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어머니 惠慶宮 洪氏(1735-1805)를 위해 베풀었던 진찬례를 그린 것이다. 을묘년 현릉원 원행에 대해서는 『園幸乙卯整理儀軌』라는 상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능행도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서, 양식적 특징은 물론 제도적 부면에서 볼 때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현재 동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봉수당진찬도>는 8폭으로 된 화성능행도병중 한 폭으로 생각된다. ‘봉수당진찬’이란 1795년의 현릉원행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혜경궁 홍씨의 탄신 일주갑을 기념하여 베풀어진 진찬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경궁이 이 진찬에 참여했던 것은 실로 뜻 깊은 의미가 있었다. 진찬례는 화성행궁에 도착한지 사흘째인 윤2월 13일에 봉수당에서 거행되었으며, 이 연회에는 친인척 82명이 초대되었다한다.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현존하는 작품들 중에서도 화면 내용이나 보존 상태가 뛰어난 작품이다. 화면 구성은 다른 봉수당진찬도와 마찬가지로 상, 하단으로 구획되어 있다. 화면 상단에는 봉수당을 포치하고, 중량문을 지나 하단의 좌익문을 연결하는 행각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 안쪽으로는 진



찬광경이 그려져 있다. 봉수당 앞 계단에서 뜰에 이르기 까지 임시로 덧마루를 설치하고, 대형 차일이 쳐진 白木帳을 둘러 공간을 구분하였다. 봉수당 온돌방에 마련되어 있는 혜경궁과 내외명부의 자리는 주렴으로 가려져 있고, 보계의 왼편 앞쪽에는 병풍이 둘러져있으며, 그 안쪽에는 호피보료방석이 보이는데, 이는 정조의 자리임을 지시한다. 물론 위대한 인물을 그려 넣지 않는 조선시대 기록화방식을 따라 정조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호피방석이 2007년 보물 제 1498호로 지정된 <조선후기 문인초상>의 방석과 유사하다는 점으로서, 이런 형태의 방석이 정조년간 상층계층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덧마루 위에는 戎服차림의 儀賓과 戚臣들이 좌우로 나누어 죽 앉아 있으며, 그 중앙에는 女始들이 음악에 맞추어 일종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중앙문 밖에는 어가를 호위해 온 百官들이 戎服차림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饌卓위에는 술잔과 함께 하사받은 꽃(종이꽃)이 꽂혀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동국대학교소장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고궁박물관, 일본 교토대학문학부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형식은 같지만 세부묘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동국대학교본에는 청화백자 화준이 있지만, 리움 본에는 백자화준이 그려져 있으며, 동국대학교본은 다른 진찬도에 비해 채색의 농도가 짙고 묘사가 대체로 정밀하며, 기와나 함 등의 묘사에 있어 명암도 절묘하게 구사되어 있다. 또한 마치 위에서 본 듯 축약된 병풍 화면 형태나 병풍이 꺾이는 부분의 묘사, 인물들의 실감나는 동작표현 등은 여타 본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 ○ 문헌자료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2000

장계수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奉壽堂進饌圖>」 『불교미술』 제18집 pp.75-101, 2007.01



## ○ 현 상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일본식 족자로 꾸며져 있다. 정확한 개장(改粧) 시기는 미상이다. 그림의 상하단에 원형(圓形)의 문양이 들어간 암록색 비단을 대었다. 행사 장면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俯瞰)의 시점을 적용하여 인물을 배치하였으며, 중심 건물은 정면관으로 투시하여 화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였다. 건물의 기둥과 지붕의 표현에는 명암법을 적극 구사하여 입체감을 표현했다. 인물 묘사는 선묘가 치밀하고, 색감 묘사 또한 매우 정밀하다. 인물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린 부분도 있으나 무용수들의 장면은 변화가 많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출하였다. 특히 진채(眞彩)와 금채(金彩)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채색은 농담을 조절하여 변화를 주었고, 색감이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어 화

려한 궁중기록화의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면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동국대학교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에 익명의 재일교포가 기증한 작품으로 전한다. 아마도 19세기 이후 언젠가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동국대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단독 그림이 아니라 《화성능행도병 華城陵幸圖屏》 8폭 가운데 한 폭이다. 이 병풍은 정조가 1795년(정조 19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화성(華城)을 방문하면서 치른 주요 행사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때 정조의 화성 행행(行幸)은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묘소인 현릉원(顯隆園)을 둘러보고, 어머니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회갑을 기념한 진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진찬은 화성 행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 화성에 도착한지 사흘째인 윤2월 13일에 봉수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행사를 마치고 간행한 종합기록물이 『園幸乙卯整理儀軌』이다.

봉수당에서의 진찬 장면을 그린 그림이 <봉수당진찬도>이다. 화면은 궁중기록화에 적용된 정면부감투시법(正面俯瞰透視法)과 원근법이 적용되었다. 그림의 구성을 보면, 화면 상단에 봉수당 건물을 그렸고, 아래에 중앙문(中陽門)이, 맨 아래에 좌익문(左翊門)이 있다. 진찬이 열리는 공간은 중앙문 안쪽이다. 그런데 이 안쪽 공간에는 한 번 더 구분이 있다. 진찬의 주인공인 혜경궁이 여성이므로 봉수당은 남성이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의 전용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조의 자리도 건물 밖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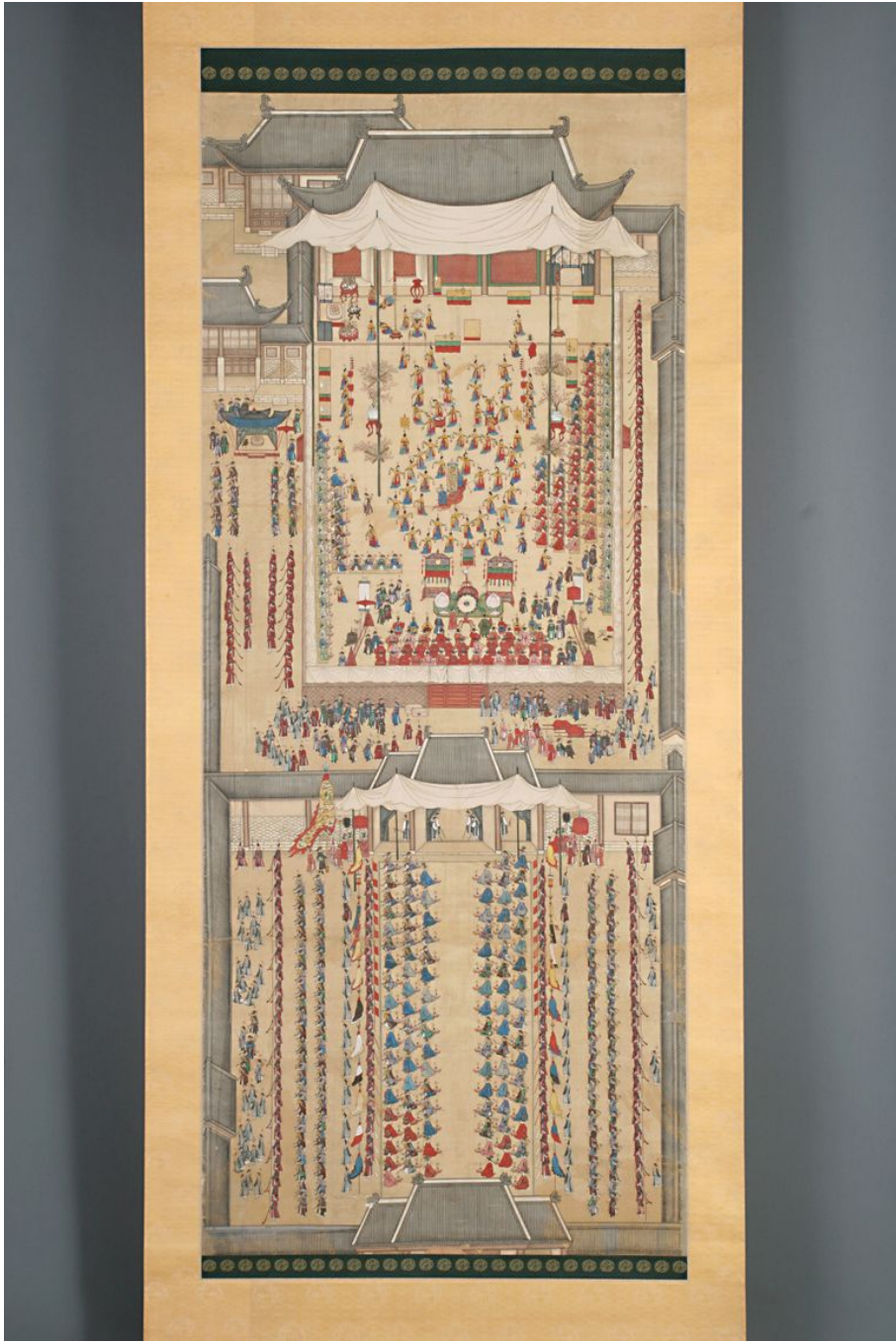
봉수당에 마련된 혜경궁과 내외명부(內外命婦)의 자리는 늘어뜨린 주렴(珠簾)으로 가려져 있다. 가설한 덧마루의 왼편 앞쪽에는 병풍을 둘러쳐져 있고, 그 안쪽에 호피(虎皮)로 만든 방석이 놓여 있다. 이곳이 정조가 앉은 자리다. 조선시대의 기록화에는 임금이나 왕후의 모습은 그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봉수당 앞 계단 높이만큼 임시로 덧마루를 설치하였고, 봉수당 앞에는 대형 차일이 쳐서 공간을 구분하였다.

덧마루 위에는 용복(戎服)차림의 의빈(儀賓)과 척신(戚臣)들이 좌우로 나누어 앉았으며, 그 중앙에는 궁중의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추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진찬에서는 술잔을 일곱 번 올렸는데, 한번 술잔을 올린 뒤에는 정재가 이어졌다. 그림 상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어질 정재의 무용수들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다. 중앙문 밖에는 어가(御駕)를 호위해 온 백관(百官)들이 용복차림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았으며, 찬탁(饌卓)위에는 술잔과 함께 하사받은 꽃이 꽃혀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동국대학교 소장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미술관 Leeum, 국립고궁박물관, 일본 교토대학 문학부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전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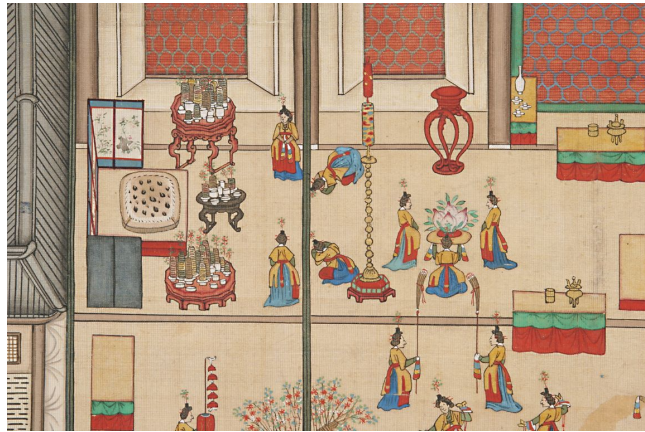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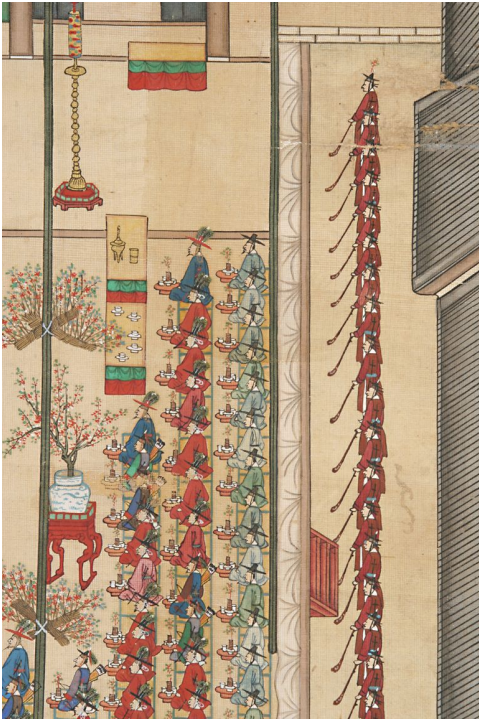
인 화면 구성과 표현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묘사에 차이가 있으며, 이점에서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이 월등히 뛰어나다.

동국대학교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다른 진찬도에 비해 채색이 선명하며, 묘사가 자세하고 치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인물표현은 대체로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묘사하였고, 움직이는 자세 또한 획일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동감(動感)이 강조된 무용수들의 동작을 그릴 때에는 자세나 움직임에 매우 다양하게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동국대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비록 단폭(單幅)으로만 전해오지만,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가필(加筆)의 흔적이 없는 19세기 기록화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봉수당진찬도





봉수당진찬도 세부사진

## 2.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 가. 심의사항

‘희경루방회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환수문화재 소장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신청을 받음
- 이와 관련, 동국대박물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7.11)이 있었고, 이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10.22.)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2차 회의(4.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동국대학교의 기록유산포털 공개 동의라는 사유로 ‘조건부가결’로 의결되었음
  - ※ 동국대학교는 그동안 기록유산포털에 탑재되어 있는 기 지정된 동국대 소장의 국가지정문화재 16건에 대하여 공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음
- 동국대학교로부터 공개동의서가 접수('15.5.15, '15.6.8)된 후, 30일간 지정예고('15.6.22~'15.7.2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7호(2008.07.10.지정)
- 명 칭: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 소유자(관리자):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98.5×76.8
- 재 질: 비단에 채색
- 제작연대: 1567년
- 제작자: 미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회경루방회도>는 신묘생진시(辛卯生進試, 1531년)의 동방들이 1542년에 만나 제작한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와 함께 현전하는 16세기의 방회도 2건 중 하나이다. 방회도는 16,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회경루방회도>는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례이다.

대부분의 16세기 계회도는 수묵화로 그려진 데에 반해 채색화로 그려진 경우는 드문 편이다. 1550년의 <호조낭관계회도>, <연정계회도(蓮亭契會圖)>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 <회경루방회도>는 전라도 광주 지역의 화사(畫師)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아 지방화단에서 그려진 채색계회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목, 그림, 좌목, 최응룡으로 추정되는 ‘완산후인(完山後人)’이 쓴 발문까지 계회도의 형식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는 매우 생기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또한 비슷한 자세의 인물을 같은 모양으로 판에 박은 듯 반복해서 그리는 투박적인 면이 적다. 회경루 건물 묘사에서도 보이는 대로 그린 듯한 꾸밈없는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회경루방회도>는 제작시기, 양식적인 특징, 회화적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그림의 내용, 상태, 화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해지는 회화 작품이 적은 임란 이전의 작품으로 중요한 사례이다.

계회도 중에서도 지방 관청에서 행해진 행사 장면을 기록한 희소한 사례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계회도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일부 불규칙한 석축표현, 소략한 주변 인물 묘사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수, 가옥, 인물의 묘사에서 정교함이 두드러지고 있어 솜씨가 좋은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근거로 미루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회경루방회도>는 조선시대 중기 계회도 가운데 크기도 크고 보존도 대체로 양호한 작품이다. 계회도그리기가 성행했던 16세기 계회도의 圖像이나 화풍과 아울러 문무과 합격동기생들 간에 행해졌던 조선시대 계회문화의 한 예를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회경루방회도>는 1546년(명종 1)의 증광시 문·무과 합격 동기생 5명이 1567년(선조 즉위) 전라도 광주의 회경루에서 만나 방회를 갖고 제작한 기년작 계회도이다. 특히 기록화의 주요 조건인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다. 즉 “1567년(언제) 전라도 광주의 회경루에서(어디에서) 과시합격 동기생 5명이(누가) 방회를(무엇을)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어떻게) 가졌는데, 그 사연은 발문에 밝혔다(왜?)”는 내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방회에서 장원 급제한 동기생이 있으면, 가장 상석에 앉도록 우대한다는 관행이 있는데, <회경루방회도>에는 장원 급제한 광주목사 최응룡이 전라도 관찰사 강섬 보다 상석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과거합격 동기생들이 주도한 계회문화의 관행과 일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면 속의 인물 묘사가 치밀한 편은 아니지만, 전·현직 관원의 모자와 옷차림에 사실 관계를 충실히 고려했음을 확인하였다.

<회경루방회도>는 방회 현장의 연회장면과 주변 경관의 묘사에 중점을 두었다. 누정 주변의 표현을 보면, 회경루의 동쪽 공간에 있는 민가와 그 앞에 넓게 트인 활터가 시야에 들어온다. 즉, 연회의 장면을 강조하면서도 그 장소를 암시해 주는 주변 공간을 함께 부각시킴으로써 ‘장면’과 ‘경관’의 두 요건을 한 그림 안에 갖추 고자 한 것이다.

<회경루방회도>는 전라도 광주지역에서 그린 지방양식이다. 특징적인 것은 기녀들의 머리모양이다. 가체를 만들어 올렸으나 크기가 거대하고 두식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색은 임란 이전인 16세기 중엽 호남지역 기녀들의 미용술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어서 대단히 흥미롭다.

<회경루방회도>에는 정면부감투시와 평행사선투시가 적용되었다. 우선 그리고자하는 대상을 45도 각도의 상단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투시법을 기본으로 한다. 정면부감투시는 대상 경물의 중심에 시점을 두어 좌우대칭과 균형을 고려한 것이며, 평행사선투시는 경물을 사선각도로 비스듬히 배열하여 정면과 동시에 측면의 구조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투시법이다. <회경루방회도>에는 이 두 시점이 한 화면에 함께 들어가 있다. 이는 투시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16세기 계회도의 표현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를 더욱 신빙하게 한다.

<회경루방회도>에는 16세기에 새롭게 수용된 절파화풍(浙派畫風)의 영향이 감지된다. 이러한 절파화풍의 특징은 원산의 묘사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산의 양감과 질감묘사에 선적(線的)인 표현 보다 먹으로 우려낸 묵면적(墨面的)인 요소가 두드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분적인 절파화풍의 반영은 <회경루방회도>가 16세기 중후반기 화풍의 변화를 반영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회경루방회도>가 지닌 특징과 가치를 잘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회경루방회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 조사보고서

## □

### ○ 현 상

조사된 <회경루방회도>는 ‘喜慶樓榜會圖’라 쓴 전서체 제목, 계획 장면 그림(42.0×76.7cm), 좌목, 그리고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16-17세기에 유행한 계축(契軸) 형식을 보여준다. 제목, 그림, 좌목, 발문 부분은 각각 붉은 선을 그어 구획하였다. 비단 바탕은 우측에서 17.6cm되는 지점에서 세로로 결봉된 흔적이 보인다. 이 작품은 1970년경 제일교포의 기증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것으로 현재는 입수 당시의 일본식 장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바탕이 탈락되거나 채색이 떨어져나간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그림에 쓰인 제목은 계획이 열린 장소가 전라도 광산현(현재 광주)의 객관에 있는 누정인 회경루임을 말해준다. 참석자의 관계, 관직, 성명, 자, 본관 등이 쓰인 좌목에는 계획의 참석자가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1516-?), 전 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전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 5명으로 나타난다. 최응룡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발문은 이들이 1546년(명종 1)의 과거에 합격한 동방(同榜)으로서 20여 년만인 1567년(명종 22) 6월 16일에 만났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문과방목』을 통해 최응룡, 임복, 강섬은 1546년 증광시 문과에 합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유극공과 남효용은 같은 해 증광시 무과 합격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546년 증광시에 함께 합격했던 동방(同榜) 중에서 전라도 지역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자들이 1567년에 회경루에서 동방계회를 열고 이를 기념하여 계획도를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방계회도인 만큼 좌목은 문과 갑과에서 장원을 차지했던 최응룡을 필두로 하여 현직의 품계순이 아닌 과거의 성적순으로 기재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에 나타난 좌차(座次)도 과거의 성적순으로 배치되었음이 확인된다.

방회가 열리고 있는 회경루는 화면의 좌반부에 치우쳐 배치되고, 회경루 우측에는 관덕정(觀德亭)과 고루(鼓樓)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으며 넓게 확보된 공간에는 활터도 마련되어 있다. 나무 사이로 초가와 기와집 등 민가가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단순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회경루 주변의 실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인상을 준다.

회경루 안에는 북쪽 우측으로부터 강섬, 최응룡, 임복이 앉아있고 유극공과 남효온은 서쪽에 동쪽을 향해 앉았음을 발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를 쓰고, 전직 관원은 평량자(平涼子) 형의 갓을 쓰고 있어 구별이 된다. 참석자의 시중을 듣거나 음식을 나르고, 춤을 추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등 비교적 많은 수의 기녀들이 동원되어 전라도 지역의 최고 수령인 관찰사가 주재한 계회의 면모를 짐작케 한다. <회경루방회도>에 나타난 기녀의 복식과 위로 부풀려 묶은 머리꾸밈은 1585년의 <선묘조기영회도(宣廟朝耆英會圖)>에 그려진 기녀들과 매우 흡사하여 16세기 관기들에게 공통적으로 유행하였던 양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지붕의 윤곽선 부분을 짙고 굵게 그리는 방식도 1550년의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에서처럼 16-17세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정면관으로 그려진 회경루의 기둥은 뒤로 갈수록 짧게 그려져 회경루의 대청은 마름모 모양을 이루며 깊이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회경루를 감싼 담장은 우측에서 부감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그려졌으며 근경의 집들도 여러 시점에서 표현되었다. 즉, 편의에 따라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을 혼용한 양상을 보인다. 채색은 건물과 복식에 적색과 백색 위주로 사용되었고 그외에는 녹색, 녹갈색, 청색 등이 부분적으로 약간 사용된 정도이다.

수묵으로 묘사된 산과 수목은 16세기 중반의 산수화풍과 상통한다. 인물의 묘사에는 비수가 있으며 자신감 있는 필치가 구사되었다. 얼굴에는 모두 이목구비가 그려졌는데 참석자와 기녀들 얼굴의 윤곽선과 코, 입은 붉은 색으로 처리되었다. 인물의 자세와 움직임은 일률적이고 도식화된 느낌이 적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있다.

## □

### ○ 현 상

현재 족자로 되어 있는데 장황의 형식은 풍대가 달린 일본식이며,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20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위, 아래에는 이전 장황의 비단이 일부 남아 있다. 화면의 오른쪽 4분의 1정도를 경계로 두 쪽의 비단을 잇댄 결

봉선(結縫線)이 세로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약간 어둡게 변색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고 안정적이다. 별도의 보존 상자는 없다.

### ○ 내용 및 특징

1546년에 증광시(增廣試)의 문과, 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20년이 지난 후, 1567년 전라도 광주(光州)의 회경루(喜慶樓)에서 다시 만나 방회(榜會)를 갖은 일을 기념하여 그린 계회도(契會圖)이다. 참석자는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1516~?), 전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 5인으로 모두 전라도 광주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이 지역에 연고가 있던 인물들이다. 화면의 맨 위에는 전서체로 표제를 쓰고, 계회 장면을 그린 후, 좌목을 쓰고, 맨 아래에는 초서로 발문(跋文)을 적었다.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다섯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누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성대한 계회에는 30여명의 기녀가 등장하는데 함께 앉아 시중을 듣거나 춤을 추는 기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기녀 등이 보인다. 건물 안쪽의 연회장면과 대비되어 바깥에는 민가와 활터가 보인다.

### ○ 문헌자료

윤진영,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회경루방회도고찰>, 『동악미술사학』 3호, (2002) 145-162.

### ○ 기 타

동국대학교박물관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에는 “在日 교보 寄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장번호는 770이다.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은 1982년부터 이 유물의 소재지를 명기하였다. 박물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 황수영 교수가 1960년대초 한 일회담 문화재반환 건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인연으로 후일 기증받은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유물대장에는 유물번호 762부터 772까지 11건이 “재일 교보 기증”로 되어 있어 일괄 유물로 여겨지며, 이 중에는 보물569 <안중근의사유묵>(1972년 지정), 보물743 <정조필 파초도 (正祖筆 芭蕉圖)>(1982년 지정)와 보물744 <정조필 국화도 (正祖筆 菊花圖)>(1982년 지정)가 포함되어 있다.

### □

### ○ 조사내용

<회경루방회도>는 1567년(명종22)에 있었던 회경루에서의 방회장면을 그린 契會圖이다. 이 방회는 1546년(명종1) 증광시의 동기생들이 광주 인근의 樓亭인 회경루에서 만난 것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을 기념하여, 그 감회를 간직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은 위로부터 표제, 계획장면, 좌목, 그리고 발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 부분은 붉은 색 선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다. 표제는 전서체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적었고, 좌목에는 품계와 관직, 이름, 자, 본관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 있다.

참석자는 1)通政大夫 行光州牧使 崔應龍 見叔 本全州, 2)資憲大夫兼全羅道觀察使 姜暹 明仲 本晉州, 3)前承文院副正字 林復 希仁 本羅州, 4)禦侮將軍全羅道兵馬虞侯 劉克恭 敬叔 本忠州, 5)通訓大夫 前行樂安郡守 南效容 恭叔 本宜寧 등 5인이다.

발문은 말미에 ‘完山後人題’ 라는 글귀에 근거할 때 전주최씨인 최응룡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 동방은 병오년(1546, 명종1) 봄의 경사스러움을 함께 한 후, 내직에서 혹은 외직에서 혹은 세상을 떠나거나, 사정으로 인하여 헤어져 만나지 못하였다. 어느 한 곳에서도 동료로서의 관계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왔다. 우연히 백척(百尺)의 높은 누각에서 고회(高會)를 가지게 되니, 북쪽에 위치하여 좌우에 가아(佳兒)를 둔 자가 광목(光牧) 최응룡(崔應龍)이고, 동쪽에 앉아 있으며 이 모임을 주관한 자가 관찰사 강섬(姜暹)이다. 그 오른 쪽에 열을 지어 각기 기녀들을 앉혀 놓은 자들은 임복(林復)과 유극공(柳克恭), 남효용(南效容) 등이다. 오호라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과거에 등재하여 형제관계를 맺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인생의 영고성쇠를 겪으며, 별처럼 흩어진 지가 20여년이 되었는데, 먼 남쪽의 거친 땅에 모여서 다시 지난 일을 흥하게 하니 다행한 일이다. 잔치가 무르익어 관직을 따지지 않아서 구경하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또한 다행 중의 다행이다. 윤영광(尹靈光) 홍중(弘中)과 육광양(陸光陽) 대춘(大春)이 또한 가까운 읍의 수령으로 있는데, 병이 들어 함께 하지 못하니 이 어찌 다행 가운데 하나의 흠이 아니겠는가.”

융경 원년 정묘(1567, 명종 22) 6월 16일 완산후인에 제하다.

(吾同年 自丙午春同慶之後 或內或外或散或化 參商一隅 徒結夢想去久矣 偶作高會 相百尺危樓 位北而左右佳兒者 光牧也 在東而綱紀一會者 方伯也 列於右而各擇珪雲者 林希仁, 劉敬叔, 南恭叔也 呼以東西南北之仁 偶同科第作爲兄弟幸也 昇沈星散 {二十}載之餘 聚於炎荒 復舉往事幸也 爛熳忘形 不揚爵秩 聳時人觀聽 又幸之幸也 尹靈光弘中, 陸光陽大春 亦守近邑 而病不與焉 茲豈非幸中之一欠乎 隆慶元年 丁卯六月 既望 完山後人題)

발문에서는 1546년(명종1)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이 각자의 근무지를 따라 흩어진 후 만나지 못한지 20여년이 되었음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의 그리움과

만남에 대한 감회를 적고 관계에 함께 첫 발을 들여놓은 동료들 간의 친밀한 공감대가 엿보인다. 나아가 최응룡을 비롯한 다섯 사람의 앉은 위치마저도 서술하여 이 발문이 방회가 행해졌던 현장의 모습에 근거하여 서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회경루방회도>는 장방형의 화면에 왼쪽에는 회경루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회경루의 담장을 비롯한 주위경관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층으로 축조된 회경루 안에는 이 모임의 주인공들과 여러 명의 기녀들이 자리한 가운데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다. 서열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신분에 따라 冠帽를 달리하고 있으며, 기녀들은 당시의 유행대로 高髻를 하고 있다. 인물묘사는 남녀간에 안색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목구비의 형용역시 간단하지만 과감하게 선으로 윤곽짓고 설채를 제법 짙게 처리하였다. 이 점은 당시의 계획도가 일반적으로 수묵위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지방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회경루는 축대를 쌓은 대위에 1층은 기둥을 세우고, 2층에 누를 올렸다. 그림 속 누정의 아래층에는 하인들이 쉬고 있으며, 누정의 왼 쪽에는 피리를 부는 악공들이 무리지어 있다. 축대 아래쪽에는 나장과 같은 군졸들이 도열해 있다. 회경루의 동쪽 공간에는 민가가 인접해 있으며, 그 앞의 넓은 터에 활터가 있는데, 주변의 경관 역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연회장면은 정면부감투시와 원근법으로 부각시켰으며, 담장을 비롯한 다른 주변 경물은 사선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열하는 등 이중투시법이 적용되어 있다. 특히 아래 쪽 기둥들은 서툰기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작아져 있는데, 이런 기법은 이후의 계획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는 특색이다.

화풍은 배경을 이루는 산의 양감과 질감묘사, 누정 왼 쪽에 그려진 나무의 표현 등에서 먹의 흑백대비 등이 강조되어 16세기 중, 후반기에 유행했던 浙派畫風이 나타나 있다.

## ○ 문헌자료

윤진영 「조선시대 계획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 현 상

<회경루방회도>는 족자로 장황되어 있고, 위쪽으로부터 표제·그림·좌목·발문의 4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전서체로 ‘喜慶樓榜會圖’라고 썼다. 그림은 회경루에서의 연회 장면과 그 주변의 공간을 그렸다. 인물과 건물 묘사에는 채색을 사용했고, 나머지 배경은 수묵담채로 표현하였다. 좌목은 다섯 사람의 인적사항을 품계·관직·이름·자·본관 등으로 기록하였다. 좌목의 아래쪽에는 초서체로 발문을

남겼다. 표제·그림·좌목·발문 사이에는 붉은 선을 그어 경계를 구분하였다.

족자는 상단에 두 줄의 풍대(風帶)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구로 꾸며져 있다. 계획도의 그림 위쪽과 발문 아래에는 검은 바탕에 금박문양이 있는 비단을 대었고, 상하좌우의 변(邊)에는 나비 문양이 있는 금색 비단을 붙였다.

## ○ 내용 및 특징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회경루방회도>는 1546년(명종 1)의 증광시(增廣試) 문·무과(文·武科)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1567년(명종 22) 전라도 광주의 회경루(喜慶樓)에서 만나 방회(榜會)를 갖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계획도이다.

<회경루방회도> 속의 공간은 전라도 광산현(光山縣, 지금의 光州)의 객관(客館)에 속한 회경루이다. 참석자들은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1516~?), 전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 5인이다. 이들의 관직을 보면, 모두 전라도 광주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이 지역에 연고가 있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최응룡·임복·강섬은 1546년(명종1) 증광시의 문과에 합격한 자들이 분명하고, 유극공과 남효용은 무과에 합격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모임은 문과에만 한정된 동방(同榜)이 아니라 무과 합격자들까지 포함한 문·무과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었다.

화면 아래에는 발문을 기록하였는데, 그 마지막에는 “隆慶元年 丁卯(1567, 선조 즉위) 6월 16일, 完山後人이 제하다.”라고 썼다. 위의 발문은 ‘완산후인제(完山後人題)’라는 부분에 근거할 때, 전주최씨(全州崔氏)인 최응룡(崔應龍)이 쓴 것으로 짐작된다. 완산(完山)은 전주(全州)의 고명(古名)으로서 최응룡의 본관이기에 이 모임의 좌장(座長)인 그가 썼다. 최응룡의 발문에는 1546년의 과거시험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이 각자의 근무지에 따라 흩어진 후, 만나지 못한지가 20여 년이 되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이들에게 방회는 관직에 함께 첫발을 들인 동료들과 20년 만에 갖는 만남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 (<회경루방회도>의 내용)

<회경루방회도>의 발문 내용을 통해, 동방 다섯 사람이 앉은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좌목에는 “북쪽에 앉아 좌우에 가아(佳兒)를 둔 자가 광목(光牧 [崔應龍])이고, 동쪽에 앉아 있으며 이 자리를 주관한 자가 방백(方伯 [姜暹])이다. 그 우측 편에 위치하여 기녀를 앉혀놓은 자들은 임복(林復)·유극공(劉克恭)·남효용(南效容) 등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그림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즉 회경루의 가운데에 앉은 이가 최응룡으로 양옆에 기녀를 앉혔다. 두 번째로 동쪽에 앉은 인물은 이 모임을 주선한 전라도관찰사인 강섬을 가리킨다. 누정의 모서리에 기녀와 함께 앉아 있다. 나머지 임복을 비롯한 세 사람은 좌측에 일렬로 앉았다.

### (좌차(座次)의 기준)

계회도 속의 자리 서열은 일반적으로 관직의 고하와 나이순으로 앉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경루방회도>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우선 이들은 문무과 순으로 자리를 구분하였다. 문과합격자인 최응룡과 강섬, 임복이 상석으로 가고, 무과합격자인 유극공과 남효용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앉았다. 그리고 문과합격자 세 사람의 관직 순을 보면 ①전라도관찰사 강섬, ②광주목사 최응룡, ③전승문원 부정자 임복 순이 된다. 그런데 그림 속의 순서는 광주목사 최응룡이 가장 상석(上席)에 앉았고, 전라도관찰사 강섬은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다. 관직 서열을 무시하고 광주목사 최응룡이 상석에 앉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과거 합격자 명단인 1546년(명종 1)의 『문과방목 文科榜目』에서 합격 당시의 성적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광주목사 최응룡이 장원(壯元)을 했고, 전라도관찰사 강섬은 12등을 했다. 이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꾼 이유는 장원으로 급제한 최응룡을 상석에 앉혀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에서 장원 급제자는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 (개별 인물의 묘사)

<회경루방회도>는 개별 인물의 특징까지 충실히 묘사하였다. 한 예로써 참석자들의 관모(官帽)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좌측에 일렬로 앉아 있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외출모인 평량자(平涼子)를 썼다. 평량자를 쓴 인물은 좌목에 세 번째로 기재된 전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과 다섯 번째인 전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직관원(前職官員)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3인은 현직관료로서 관모를 쓴 점으로 미루어 보면, 평량자는 현직관료가 아님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 된다.

연회장면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기녀들이 동원된 점이다. 이 기녀들은 모두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로 추정된다. <회경루방회도>에 등장한 기녀의 수는 모두 35명으로서 동방 다섯 사람과 함께 앉은 기녀, 시중을 들거나 춤사위를 펼치는 기녀, 그리고 가야금과 장구 연주 및 창(唱)을 부르는 기녀 등이 다채롭게 그려져 있다.

### (누정 주변의 묘사)

연회장면 이외에 누정의 외관이나 주변 경물들을 살펴보면, 회경루 아래의 서늘한 그늘에는 하인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고, 누정의 왼편에는 피리 연주에 한창인 한 무리의 악공들이 등장하며, 축대 아래에는 군졸(軍卒)들이 도열해 있다. 회경루 아래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광주 관아의 부속 건물로 추정된다.

회경루 오른쪽의 활터는 누정이 지어진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데, 회경루가 사장(射場)으로서의 공간도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활 쏘는 위치와 과녁 간의 거리가 상당히 좁아 보인다. 실제로는 과녁이 더 먼 거리에 있지만, 활터의 공간을 단축시켜 그린 것으로 짐작된다.

### (<회경루방회도>의 시점)

<회경루방회도>에는 이중투시(二重透視)가 적용되어 있다. 이는 정면부감투시(正面俯瞰透視)와 평행사선투시(平行斜線透視)로 구분된다. 연회 공간인 회경루에는 정면투시가 적용되었으며, 원근법이 함께 들어간 점도 주목된다. 누정의 전면에서 후면으로 연결된 난간의 묘사에는 투시선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좁아져 가는 마름모꼴 원근감이 나타나 있다. 이런 점은 비교적 합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누정을 둘러싼 담장과 비교해 보면, 화면 전체에 상이한 시점이 교차하는 불합리한 투시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바깥담은 우측에서 바라본 사선투시가 적용되었고, 누정에는 정면관이 적용된 것이다. 이외에도 부분적이지만 누정의 기와골과 화면 우측 외문(外門)의 표현에도 사선투시가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하나의 화면에 투시법과 원근관계가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한 16세기 계획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상의 한계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구도와 화풍)

구도와 관련된 특징으로 <회경루방회도>에서 연회 장면 자체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함께 그린 점이 눈에 띈다. 즉, 연회 장면을 제외한 화면 전체의 2/3정도를 주변 경관의 묘사에 할애하였다. 이러한 구도의 설정은 계획도의 도상이 연회 장면만을 부각시켜 그리기보다 주변의 경관을 화면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감상의 여지를 폭넓게 수렴하려는 결과로 추측된다.

화풍의 특징으로는 우선 구체적인 화법이 잘 드러난 경물로 누정 좌측에 그린 나무의 표현을 들 수 있다. 먹의 흑백대비와 묵면(墨面)이 강조된 표현이 특징인데, 이렇게 그려진 나무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그려진 김시(金禔, 1524~1593)의 <동자견려도 童子牽驢圖>의 나무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의 가장자리를 검고 강하게 처리한 특징은 절파화풍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서이며, <회경루방회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문헌자료

윤진영, 「조선시대 계획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 기 타

#### (<회경루방회도>의 좌목)

- (1) 通政大夫行 光州牧使 崔應龍 (見叔) 本全州  
父奉訓郎行定州教授 以漢
- (2) 資憲大夫 兼全羅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 姜暹 明仲 本晉州  
父贈資憲大夫刑 曹判書兼知義禁府事行從仕郎 公望
- (3) 前承文院副正字 林復 希仁 本羅州  
父通政大夫戶曹參議 鵬



(4) 禦侮將軍全羅道兵馬虞侯 劉克恭 敬叔 本忠州

父忠順衛 碩文

(5) 通訓大夫前行樂安郡守 南效容 恭叔 本宜寧

父忠順衛禦侮將軍 世光

### (〈희경루방회도〉의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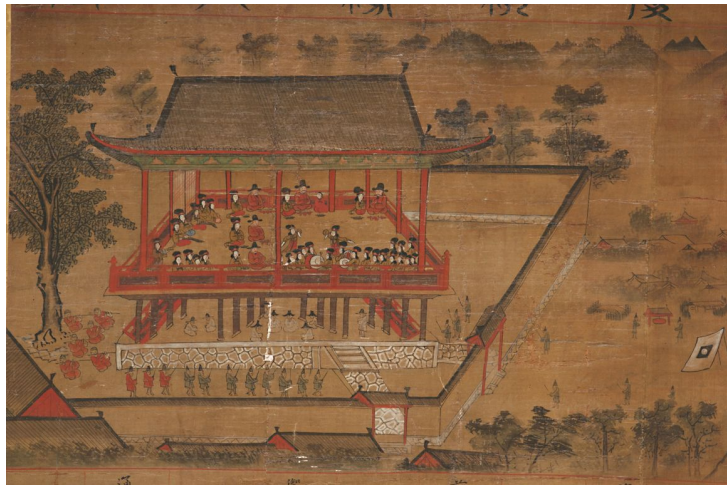
“우리들 동방(同榜)은 병오년(丙午年, 1546, 명종1) 봄의 경사스러움을 함께 한 후, 내직(內職)에서, 혹은 외직(外職)에서, 혹은 세상을 떠나거나, 사정으로 인하여 헤어져 만나지 못하였다. 어느 한 곳에서도 동료로서의 관계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 왔다. 우연히 백척(百尺)의 높은 누각(樓閣)에서 고회(高會)를 가지게 되니 북쪽에 위치하여 좌우에 가아(佳兒)를 둔 자가 광목(光牧) 최응룡(崔應龍)이고, 동쪽에 앉아 있으며 이 모임을 주관한 자가 관찰사 강섬(姜暹)이다. 그 오른쪽에 열을 지어 각기 기녀들을 앉혀놓은 자들은 임복(林復)과 유극공(劉克恭), 남효용(南效容) 등이다. 오호라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과거(科擧)에 등재하여 형제관계를 맺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인생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겪으며, 별처럼 흩어진 지가 20여년이 되었는데, 먼 남쪽의 거친 땅에 모여서 다시 지난 일을 흥하게 하니 다행한 일이다. 잔치가 무르익어 관직을 따지지 않아서 구경하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또한 다행 중의 다행이다. 윤영광(尹靈光) 홍중(弘中)과 육광양(陸光陽) 대춘(大春)이 또한 가까운 읍(邑)의 수령으로 있는데, 병이 들어 함께 하지 못하니 이 어찌 다행 가운데 하나의 흠이 아니겠는가.”

용경원년 정묘(1567, 명종 22) 6월 16일, 완산후인이 제하다.

吾同年 自丙午春同慶之後 或內或外或散或化 參商一隅 徒結夢想去久矣 偶作高會相百尺危樓 位北而左右佳兒者 光牧也 在東而綱紀一會者 方伯也 列於右而各挂雲者 林希仁·劉敬叔·南恭叔也 呼以東西南北之人 偶同科第作爲兄弟幸也 昇沈星散[二十]載之餘 聚於炎荒 復學往事幸也 爛熳忘形 不揚爵秩 聳時人觀聽 又幸之幸也 尹靈光弘中·陸光陽大春 亦守近邑 而病不與焉 茲豈非幸中之一欠乎

隆慶元年 丁卯六月 旣望 完山後人題”





任應龍 見叙  
 本全州  
 以漢  
 吾同年自  
 生名同公  
 後或何或  
 或或或化  
 第一阿法  
 無字知古  
 保作書念  
 不若機位

父忠順衛 顧文  
 通訓大夫前行樂安郡守南效容 奉叔 本  
 父忠順衛樂侮將軍 世光

희경루방회도 세부사진



### 3.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 (慶州 壺杆塚 出土 靑銅 ‘廣開土大王’銘 壺杆)

#### 가. 심의사항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10.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3차 회의(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6.22~’15.7.2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  
(慶州 壺杆塚 出土 靑銅 ‘廣開土大王’銘 壺杆)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 규격(cm): 높이 19.4, 복경 24
- 재 질: 청동
- 제작연대: 415년(고구려 장수왕3)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청동호우는 희소한 고구려 금속공예품이라는 점과 함께 명문을 지닌 삼국시대 고분의 편년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다. 신라에서는 왕경을 중심으로 금·은으로 제작된 찬란한 부장품이 발견되고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은 비록 화려한 고분 금속이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

광개토대왕명 청동호우는 해방 후 우리 손으로 첫 발굴한 호우총에서 출토된 기년명 유물로서 신라지역에서 출토한 가장 오래된 금속기명이다.

乙卯年(415년)이라는 명확한 제작년대가 있는 청동호우는 고구려 廣開土大王 사후 그를 추모하는 禮器로서 卜好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해 신라에 전해져 전세되다가 6세기 1사분기의 적석목곽분의 내관 피장자 머리 부근에서 출토된 점, 중국 남조계 기형을 고구려화한 후 신라에 전한 대표적인 예로서 이후 5~6세기에 신라에서 유행하게 된 점, 명문에는 고구려식 이체자도 있는 점 등에서 공예사적, 정치사적, 대중교섭사 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물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

고구려에서 415년에 제작된 광개토왕의 호우 10개 중 현존하는 유일한 청동유개함으로, 고구려가 아닌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어서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명 문 ;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

### ○출토 경위 및 현상 특징

1946년에 국립박물관이 경주에서 실시한 발굴 조사 과정에서 경주 금관총(金冠塚) 남쪽에 위치한 폐고분을 발굴하였다. 무덤 위의 돌무지를 다 걷어내고 무덤의

바닥이 드러나자 금동관과 귀걸이가 가지런히 주인공의 머리 쪽에 놓여 있었고, 뚜껑 덮인 청동그릇(靑銅壺杆) 1점이 바로 머리맡에서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보통 그릇이라고 생각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조사가 끝나갈 무렵 그릇을 들어내다가 그릇 바닥에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호우의 외형은 위 아래의 높이가 거의 유사한 몸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졌는데, 뚜껑의 중앙부로 가면서 반구형으로 솟아오르다 정상부에 연봉형의 꼭지가 달려있는 모습이다. 꼭지 주변에는 두터운 10엽의 화문을 둘렀고 그 주위를 돌아가며 1줄의 용기동심원과 다시 간격을 두고 3줄의 용기동심원을, 외연부 조금 못미친 곳에도 3줄의 용기동심원을 시문하였다. 직립된 뚜껑의 구연 아래로 동체가 놓여있는데 아래로 가면서 둥글게 좁아지다가 하저부를 평편하 바닥으로 처리하였다. 명문은 이 하저부에 새겨져 있다. 측면에도 구연에 한줄, 몸체 중앙에 세줄, 아래쪽에 세줄, 바닥에 연결되는 부분에 한줄의 용기동심원을 둘렀다. 동체의 구연 한쪽면이 발굴당시부터 손상되어 현재는 새롭게 복원하여 붙인 상태이며 바닥면도 갈라진 부분을 보수하였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바닥에 새겨진 명문은 주조 당시부터 외형틀에 음각으로 새겨 넣음으로써 두터운 양각명으로 돌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광개토태왕비의 명문과 거의 똑같은 서체로 쓰여진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의 16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을묘년인 415년, 3년 전 돌아가신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을 기념하여 만든 열 번째 그릇’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명문 상단에 보이는 #의 표시는 다른 고구려 유물에서 간혹 등장하는 기호로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 명문을 통해 고구려의 그릇이 교류를 통해 신라의 왕릉에까지 묻힌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대외 교류나 정치적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아 왔다.

### ○중요성과 지정가치

고구려 유물은 박장의 풍습으로 그 발견 예가 극히 적은 편이고 있다 해도 거의 도굴되어 남아있지 못하다. 출토지역도 중국 통구나 북한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일제 강점기 당시 조사된 일부의 유물만이 확인될 뿐이다. 오히려 고구려 변방에 위치한 고분이나 고구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신라의 고분에서 고구려 물품이 종종 출토되고 있어 고구려 문화를 밝히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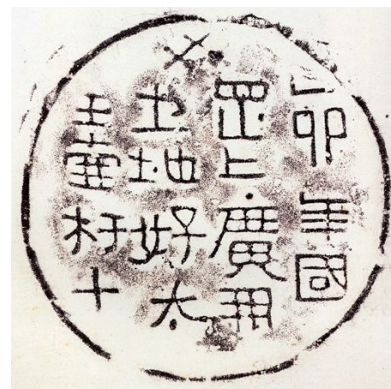
이 그릇은 주조 상태도 당시에 있어서 매우 잘 만들어져 있어 금속공예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희소한 고구려 유물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치가 자못 크다. 더욱이 명문에 보이듯이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이란 바로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이름이라는 점과 글자체 역시 만주에 남아있어 삼국시

대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王陵碑)와 똑 같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어느 유물보다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광개토왕은 약관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등 고구려의 국력을 떨쳤으나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한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릇이 1500여년이 지난 후 신라고분 속의 작은 그릇을 통하여 다시 발견된 점은 삼국시대의 교류를 연구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단은 이를 기념하여 무덤의 이름을 ‘호우총’이라고 정하였다.

어째서 광개토대왕을 위해 만든 제기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멀리 경주로 옮겨왔고 호우총이라는 작은 무덤에 묻혔을까하는 의문은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지만 신라와 고구려의 친밀한 관계는 신라의 내물왕(奈勿王)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진흥왕(眞興王)이 한강유역을 공격하기까지 양국은 형제국으로 지냈으며 이 기간동안 고구려의 문물이 경주로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던 중 서기 400년, 가야와 왜의 군사가 신라의 수도를 에워싸고 공격을 감행하는 바람에 신라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 때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5만의 대군을 급파하여 신라를 구하는 한편, 가야와 왜의 군사를 멀리 김해와 함안까지 추격하여 섬멸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신라는 새로운 국력의 신장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광개토왕은 국난을 이겨내는데 은인의 역할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광개토왕 재임 시에 제작된 그릇을 하사받아 왕의 능묘에까지 넣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고분에서 발굴된 나머지 유물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약 1세기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은 이 그릇이 만들어진 지 백년이 넘어선 어느 시점이 되어서야 무덤 속으로 비로소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릇은 신성시되어 이 무덤의 수호자 역할까지 한 것이라 추측된다.



호우총 출토 호우. 고구려. 415년 제작. 높이 19.4cm



호우 밀바닥 명문

□

○ 현 황

청동호우는 해방 후인 1946년에 우리에게 의해 처음으로 은령총과 함께 발굴한 호우총(140호 고분, 노서동 213번지)에서 출토된 유물로 높이 19.4cm, 腹經 24cm 크기이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1, 2) 전형적인 적석목곽분인 호우총은 은령총과 함께 경주 월성의 북편에 위치한 대고분군의 서북단 가까이에 있는데, 대고분군은 신라 마립간기의 왕 및 왕족들의 무덤들로 알려져 있다. 호우총과 은령총에서는 모두 남성을 상징하는 環頭大刀와 細環耳飾이 출토되었으며, 부장된 토기로 볼 때 호우총의 축조연대가 은령총에 비해 늦은 6세기 1사분기로 비정되고 있다.<sup>1)</sup> 또한 청동호우와 共伴 출토한 靑銅虎子の 뚜껍에 시문된 연화문은 각 화판 중앙에 음각 횡선을 넣은 특이한 모양인데,(도3) 이런 모양의 연화문은 북위 宣武帝 시기(500-515) 묘인 낙양 맹진현 趙怡墓의 墓志蓋에 시문된 연화문과 같아서 이 고분은 6세기 1사분기 고분임을 알 수 있다.<sup>2)</sup>(도4)

호우총의 목관 내부에서는 금동관, 금제세환이식, 금제팔찌 같은 장신구류와 청동호우, 단룡환두대도, 은장소도 등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금속용기가 부장칸에서 발견되는데 비해 청동호우는 피장자의 머리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부분적인 파손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수가 된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청동호우는 주조된 것으로 구연부가 안으로 약간 오므라든 형태의 器身에 구형뉴가 달린 낮은 곡선형 뚜껍이 덮힌 모양인데, 시각적으로 옆으로 벌어진 扁球形을 보이고 있다. 기신의 표면에는 3줄씩의 돌출선대가 2군데에 있고, 밑바닥에는 4행 4자씩 총 16자의 「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고 이체자가 사용된 양각명문이 있다.(도5) 명문 위쪽 공간에는 고구려의 표식인 [#]이 배치되었다. 뚜껍은 정가운데에 10花形座를 갖춘 球形鈕를 중심으로 1줄의 양각선이 둘러졌고 중앙과 외연에 3줄씩의 양각선이 둘러져 있다.(도7) [삽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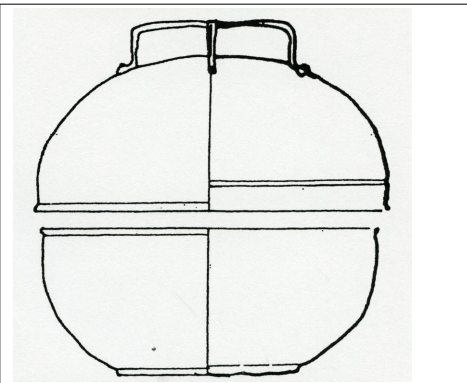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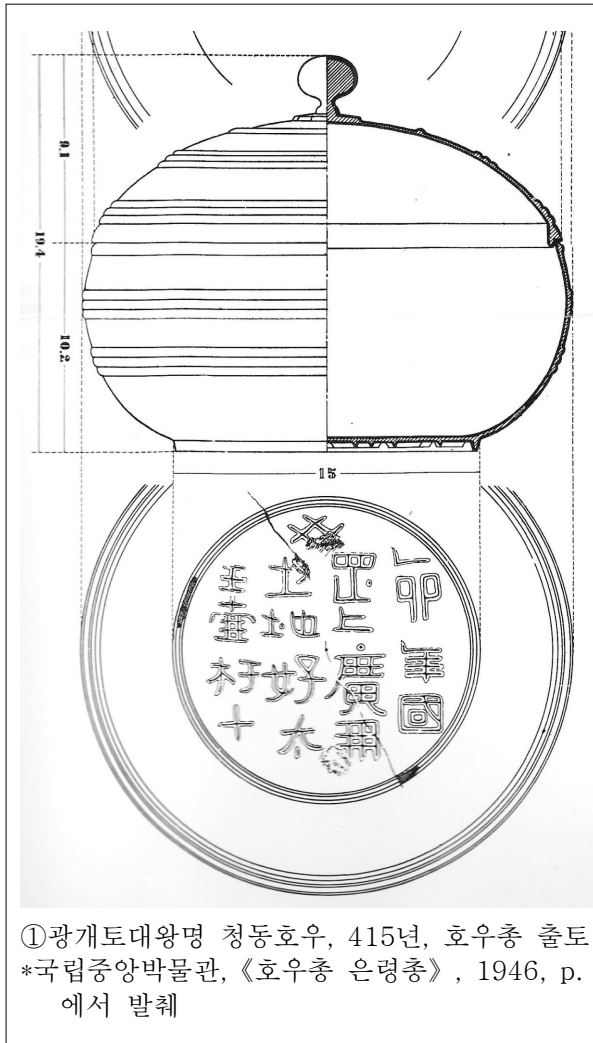
### [삽도 1] 청동호우의 도해 및 고구려계 十字鈕盒

명문 중 “國置上廣開土地(境)好太王”은 광개토대왕(재위 391년~412년)의 사후 호칭이므로 결국 장수왕 3년에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을 추모하는 禮器로 제작된 것”이며, ‘置’, ‘開’ 같은 이체자를 비롯한 서체는 광개토대왕비의 서체와 일치한다.(도6) 이 명문은 명확한 제작년대는 물론 고구려 광개토왕과 관련된 유물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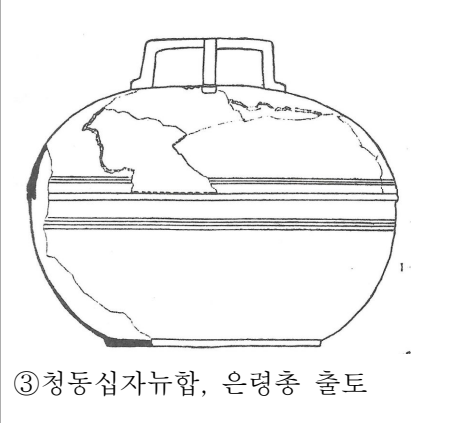
1) 1946년 발굴 시에는 호우총과 은령총이 봉분 기저가 겹쳐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瓢形墳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호우총은 은령총의 남분으로 인식되어 올 정도로 서로 붙어 있었으나 두 고분은 기저부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좁고, 당시의 적석봉토분 봉분이 正圓形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단일원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축조연대에 대한 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호우총은 5세기 후반기에 속하는 황남대총, 금관총, 5세기말~6세기 초의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보다 늦게 보고 있다. 김용성, <호우총의 구조복원과 피장자 검토>, 《先史와 古代》 24, 2006, p.450 및 p.461의 표1 참조.

2)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 <洛陽孟津朱倉北魏墓>, 《文物》 2012-12, p.49의 도26 참조.





② 은합, 서봉총 출토, 451년, 단조  
 <명문>  
 뚜껑안쪽: 「延壽元年太歲在辛三  
 月中 太王教造合杆用三斤六兩」  
 器底部: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  
 太王教造合杆用 三斤」



③ 청동십자뉴합, 은령총 출토

이런 배가 볼록한 盒形 器種을 杆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청동호우의 제작년대인 415년과 고분의 축조년대인 6세기 1사분기와는 100년간의 간격이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고구려에 볼모로 가있던 눌지마립간(재위 417-458)의 동생인 卜好(내물마립간의 次子)가 418년에 신라로 돌아올 때 가져온 것으로 전제되었다가 후손인 호우총 묘주와 함께 부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이보다 먼저 발굴된 서봉총 출토 은합도 뚜껑안쪽과 기저부에 「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中 太王教造合杆用三斤六兩」, 「延壽元年太歲在卯 三月 太王教造合杆用 三斤」라고 명문이 있어 청동호우처럼 451년에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신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삽도 1]

청동호우의 재료별 成分比는 대략 동(Cu) 80~84%, 주석(Sn) 10~13%, 납(Pb) 5~7% 위주이며, 미량인 아연(Zn) 0.13%, 철(Fe) 0.06%을 보인다고 한다.<sup>4)</sup>

제작방법은 뚜껑 꼭지는 안쪽에 작은 리베팅 흔적이 남아있는데,(도8) 구형뉴와

3) 국립박물관, 《壺杆塚과 銀鈴塚》, 1946, p.35.

4) 이주헌·이용현·유혜선, 〈壺杆塚·銀鈴塚 출토유물-토기와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호우총 은령총-발굴 60주년기념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6, p.65 참조.

화판은 경계선이 분명해서 각각 따로 제작해 한번에 연결한 것이다. 특히 화판과 뚜껑의 접합상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도10) 기신의 제작방법은 조사 시 육안으로 주물 분리선을 찾아낼 수 없었으나, 명문의 중간인 卍자와 卍자 사이에 횡으로 작은 [○ ○ ○] 모양 돌기가 있고 글자 간격이 약간 벌어져서 이 부분을 X-線 촬영한 결과 흰줄이 횡으로 나있어 2개의 주형틀을 사용했음을 규명한 바 있다.<sup>5)</sup>

바닥 명문의 상하에는 2곳에 주입구 흔적이 남아있다.(도11)

이러한 기형은 중국 商代 청동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西周 때는 “盂”라 불리웠고 형태는 기복이 깊고 다리와 兩耳가 달려있다. 秦代는 청동 禮器로 제작되었으며, 한대에는 漆器나 銅器로 제작되었는데 크기가 작아졌으며 대표적인 예로 양이가 달린 은합이 알려져 있다.(도12) 위진 이후에는 주로 청자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양이가 소멸된 듯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진 초기 묘인 남경 象山 7호묘 출토 청자철반개완이나,<sup>6)</sup> 남창현 동진묘 출토 청갈유개완, 광주 사하진 서진 建興4년묘(317) 출토 靑瓷鐵斑蓋盂 등이며(도13, 14) 절강성 월요, 덕청요와 甌窯, 婺州窯에서 생산해서 널리 유행한 것이다.<sup>7)</sup> 즉 고구려는 이러한 남조계 청자개합을 수용하여 금속제나 토제로 제작하였는데, 청동호우와 같은 유형으로 집안현 일중원 내에서 발견된 청동합(도15)이나 마선구 M940호분 출토 토제개완,(도16) 칠성산 96호분 출토 청동십자뉴합(도17) 등이 알려져 있다.<sup>8)</sup> 청동호우와 같은 유형은 신라 5~6세기의 주요 고분에서 금동제, 은제로 여러 점씩 출토되었고, 토제도 생산되었으므로 신라에서 성행, 가야까지 확산되어 창녕 11호분에서도 청동합이 출토된 것이다.(도18, 19) 꼭지도 구형, 보주형, 십자뉴형, 조형 등 다양한데, 특히 십자뉴는 고구려 창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천마총이나 서봉총, 은령총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sup>9)</sup> 미추왕릉지구에서 출토한 “吊(弔의 속자)”명 청동합이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大富”명 청동완은 이 기형이 특수용기였음을 전해주고 있다.(도20) 제작방법도 구조뿐 아니라 은제는 鍛造기법으로 제작했다.

조사한 바와 같이 고구려 청동호우는 중국 상대부터 출현하여 다리와 兩耳가 소멸되어 盒形인 남조 청자 기형을 수용해 광개토태왕을 기리는 예기로 제작되었으며, 신라에 전해져 새로운 유형으로 정착, 확산된 것으로서 고신라의 공예교섭 경로를 알려주는 중요한 예이다. 이런 유형은 불교에도 수용, 법륜사 옥충주자의 정면 하단 사리공양도에도 묘사되어 있다.<sup>10)</sup>

5) 이주헌·이용현·유혜선, 앞 글, pp.65-67.

6) 南京市博物館, 〈南京象山5號, 6號, 7號墓清理簡報〉, 《文物》1972-11, pp.23~41; 이 유물을 다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胡小軍, 《茶具》, 浙江大學出版社, 2002, p.28.

7) 謝明良, 《六朝陶瓷論集》,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 pp.282~286.

8) 吉林省考古研究室 集安縣博物館, 「集安高句麗考古的收穫」, 《文物》1984-1 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穫〉, 《文物》1984-1, pp.38~46; 耿鐵華·林至德, 〈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1984-1, pp.55~63.

9) 이난영,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pp.79-81, pp.186~193.

## ○ 문헌자료

- 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穫〉, 《文物》1984-1, pp.38-46
- 耿鐵華·林至德, 〈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1984-1, pp.55-63
-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 〈洛陽孟津朱倉北魏墓〉, 《文物》2012-12, pp.38-51
- 南京市博物館, 〈南京象山5號, 6號, 7號墓清理簡報〉, 《文物》1972-11, pp.23-41
- 胡小軍, 《茶具》, 浙江大學出版社, 2002, p.28
- 謝明良, 《六朝陶瓷論集》, 臺灣大學出版中心, 2006, pp.282~286, p.95
- 秋山光和·辻本米三郎, 《玉虫厨子と橘夫人厨子》, 岩波書店, 1975
- 上原 和, 《玉虫厨子》, 吉川弘文館, 1991, pp.103-104
- 국립박물관, 《壺杆塚과 銀鈴塚》, 1946
- 국립중앙박물관, 《호우총 은령총-발굴60주년기념심포지엄》, 2006
- 국립경주박물관, 《天馬, 다시 날다》, 2014, p.105, p.100
- 김용성, 〈호우총의 구조복원과 피장자 검토〉, 《先史와 古代》24, 2006, pp.445-469
- 이난영,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pp.79-81, pp.186-193

---

10) 기존에는 사리기로 알려졌었으나, 최근 공양기로 재해석 되었다. 上原 和, 《玉虫厨子》, 吉川弘文館, 1991, pp.103-104.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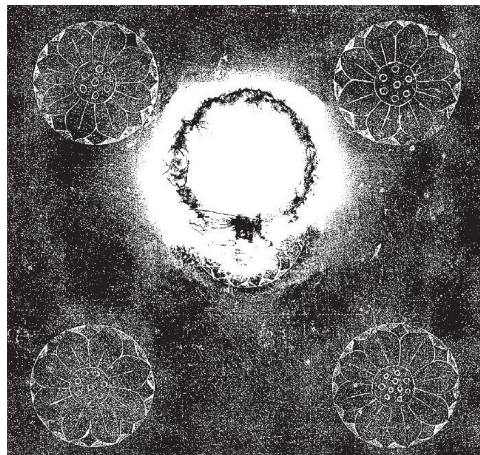
도1. 廣開土大王銘 靑銅壺杆, 원래 상태



도2. 청동호우, 현재 상태(복원 후)



도3. 청동호자의 구연 뚜껑의 연화문, 호우충 출토



도4. 趙怡墓 墓志蓋의 연화문, 복위



도5. 바닥명문(乙卯年國「罌上廣開」# 土地好太」王壺杆十」)



도6. 광개토왕비의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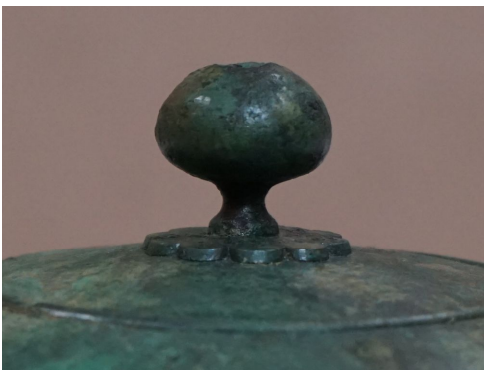




도7. 뚜껑 Top View



도8. 球形鈕와 뚜껑의 접합용 리베팅 흔적



도9. 구형鈕(구형+ 10화형 화판)



도10. 화판 접합 상태



도11. 제작기법(흰색: 주입구와 공기배출구, 적색: 「○○○」형 鑄型선 흔적)



【중국】



도12. 「長生大壽」銘 銀盒, 後漢, 江蘇省 徐州市 土山 漢墓 출토, 高 5.7cm, 직경 9.8cm, 南京博物院



도13. 青磁鐵斑蓋碗, 越窯産, 東晋초기, 南京 象山7호 묘 출토, 남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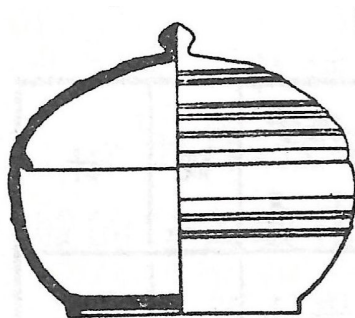


도14. 青褐釉蓋碗, 東晋 347年, 江西省 南昌縣 小蘭鄉 출토, 高 8.2cm, 남창현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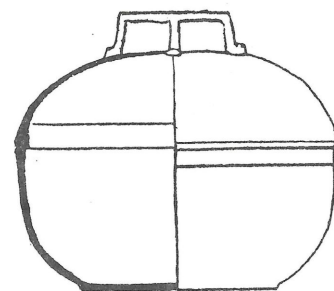
【고구려】



도15. 銅蓋碗(화관:11화형), 집안현 一中院 내 출토, 高 13.7cm, 집안현박물관



도16. 蓋碗 집안현 麻線墓區 M940호 출토, 고구려



도17. 청동합, 칠성산 96호묘 출토, 고구려

【신라】



도18. 금동합, 천마총 출토, 高 10.2cm



도19. 은합, 천마총 출토, 鍛造, 高 16cm



도20. 청동합(吊), 미추왕릉 지구 계림로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고15.5cm,  
직경18cm, 저경 12.1cm



도21. 供養器, 법륜사 옥충주자의 정면 하단  
사리공양도 부분

## □

### ○ 현 상

- 뚜껑과 호가 한 조를 이루며,
- 여러 편으로 깨진 것을 보존처리하였음.
- 합외면 저부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壺杆十' 명문이 부조되어 있음.

### ○ 내용 및 특징

- 청동제로 주조하여 제작함.
- 제작연대 : 명문의 을묘년은 광개토왕 사후3년이 되는 415년
- 제작지 : 고구려
- 명 문 : 합 저부의 외연을 돌아가며 한 줄의 용기된 원권을 만들고,  
그 아래에 명문이 부조됨.
- 합 : 평저이고, 동체 중간이 최대경이 되며 구연으로 가면서 조금 내경함.  
동체 중간과 중상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3줄의 용기선문이 돌아가며,  
구연부도 밖으로 둥글게 돌출시켰음.
- 뚜껑 : 상면이 둥근 형태로 내물림할 수 있도록 뚜껑 안쪽으로 턱이 있음.  
3줄의 용기선문이 뚜껑 중간과 하단부에 각각 돌아감(합과 같은 방식)  
꼭지는 둥글게 돌출된 원권 내에 위치  
꼭지 받침은 10판의 화판형이며,  
꼭지는 보주형일 것이나 상면이 훼손되어 확실하지 않음.
- 제작지와 제작연대, 호우라는 기명의 명칭 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으

로,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이 신라의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

- 광개토왕의 호우 10개 중 현존하는 유일한 예

○ 문헌자료

김재원, 1948, 국립중앙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1책, 1946년도발굴보고 호우총과 은령총



#### 4.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彌勒如來三尊像)

##### 가. 심의사항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를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12.22.)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3차 회의(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6.22~'15.7.21)하였나, 예고기간 중 지정명칭 변경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붙임1>로 첨부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彌勒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경북 경주시 일정로 186
- 수 량: 3구
- 규격(cm):본존 전체높이 163, 상높이 154, 어깨 폭 61.5, 광배폭 64×63  
우협시 상높이 105, 어깨폭 32, 광배폭 36.5  
좌협시 상높이 98.0, 어깨폭 31, 광배폭 37
- 재 질: 화강석
- 제작연대: 644년경(선덕여왕 13)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7세기 전반 신라의 사회종교적 상황이 불상을 통하여 잘 드러나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이 삼존상은 선덕여왕 13년(644년)에 도중사의 생의스님이 경주 남산 북봉에서 발굴하여 삼화령 상에 봉안한 미륵상이자 경덕왕때 충담사가 重三重九節에 차를 공양했던 저명한 삼화령 미륵세존으로 비정(比定)됨에 따라, 정확한 하한연대를 알 수 있는 고신라 불교조각의 기준자료이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왕실과 귀족의 뛰어난 자제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 미륵상을 많이 조성하였는데, 이 불상은 역사적인 기록과 실물자료가 꼭 일치하는 사례로 그 가치를 높여준다. 물론 미륵여래삼존을 통해 新羅화된 미륵신앙의 핵심적 단면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거니와 고신라 불상으로는 유일하게 644년 무렵에 도중사의 生義스님의 현몽에 의해 조성하였다는 조성연기와 조성시기, 조성 이후 충담사에 의해 헌다공양 등 이 불상에 담겨 있는 일련의 신앙행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이 갖는 한국 불교조각사상에서의 비중과 위치는 막중 막대하고 할 수 있다.

이 삼존상은 불의와 천의, 그리고 치마 등에 시문된 유상의문과 협시보살상에서 三屈의 자세 등에서 새로운 조각양식이 반영되고 있고, 북위 이래 미륵불의 도상으로 확립된 의좌상의 이른 시기의 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좌상은 포항 고석사 마애불, 보은 법주사 마애불, 그리고 소형의 금동불상 등 통일신라 이후의 불상에서 몇 점 확인되지만, 이 상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원적 양식이고, 규모면에서도 큰 국내 유일의 圓刻 彌勒倚坐像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이 삼존상은 흔히 신라인의 불교 세계관을 풀어놓은 경주 남산의 造像活動史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주 남산의 조상활동은 王都에서 가장 근접한 북쪽에서부터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어 나가 그야말로 웅장한 불국토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삼존상은 경주남산의 불상 중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불곡 감실 불상” 등과 더불어 신라 불국토 개막의 첫머리에 놓이는 귀중한 불상이다.

이 미륵여래삼존상은 신라조각사나 신라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조각사적·불교사적 위치와 비중은 대단히 높고 무거운 불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삼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

경주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은 신라 7세기 전반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뛰어난 불상으로 한국조각사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보류 : 지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재심의

### 조사보고서

#### □

##### ○ 내용 및 특징

- 신라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불이다.
- 주존불의 출토지는 남산 장창곡이며, 두 협시보살은 내남면의 민가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져 삼존불로 재설정되었다.
- 삼국유사의 '생의사석미륵', '충담사'조에 근거하여 삼화령미륵불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 6세기 말 7세기 초인 北周와 隋 시대에 중국 서북부 장안 지역에서 성행한 조각양식과 관련이 있다.
- 의좌식의 미륵불과 입상의 양 협시보살로 이루어진 삼국시대의 유일한 삼존불상으로, 삼국시대 성행한 미륵(하생)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문화재 명칭에 삼화령과 장창곡 가운데 무엇을 넣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 □

##### ○ 조사내용

이 삼존상은 1925년 4월에 원위치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북봉의 石室에서 본존불을 먼저 경주박물관으로 이안하고,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인근 탑동의 민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협시보살상 2구를 압수하여 박물관으로 이안하였고 한다. 원래 이 삼존상은 남산의 북봉(北峯)부근 삼국시대말로 추정되는 고분들과 나란히 남북으로 자리 잡은 석실 안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 석실

을 두고 부채등(佛背)이라 불려왔다. 일찍이 일본 학자들은 이 삼존상이 놓인 石室이 고분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원래부터 고분에 매납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도굴되어 노출된 고분 안에 인근 폐사지에 있던 석불을 이안하여 신앙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고분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의 불상을 고분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는 법식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림 1 삼화령 석조 미륵여래의 발견당시 모습(『황수영 전집』 1 한국의 불상에서 전제)



그림 2 1930년대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이안 후 모습(『다시 보는 경주와 박물관』 (1993)에서 전제)

비록 본존불과 협시상이 따로 수습되었지만, 원래 이 삼존상은 석실의 奧壁에 근접하여 중앙에 본존불을 두고 그 좌우에 상대하여 보살상이 직립한 삼존형식으로 조성된 것이다. 석실의 내부 천장은 장대석으로 짜고, 정면에 해당하는 남쪽에는 문을 두었으며, 석실 내외부에 와편이 잔존해 있었으므로, 애당초 충주 미륵대원 석굴과 같이 삼존불을 봉안하기 위해 구축한 석굴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존상은 일찍이 故황수영 박사님에 의해 『三國遺事』 “생의사석미륵”와 “경덕왕 충담사 표현대덕” 조에 등장하는 삼화령 미륵세존이라는 탁견이 발표된 바 있고, 이후 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이 불상의 조성 근거가 되는 『삼국유사』 권제3 탑상 제4 “生義寺石彌勒”條와 같은 책 권제2 紀異 제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朝 의하면,

선덕왕 때에 중(僧) 생의는 항상 도중사(道中寺)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한 중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매어 표를 해놓게 하고는 산 남쪽 골짜기에 와서 말한다.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이것을 파내다가 고개 위에 편하게 묻어주시오.” 꿈에서 깨자 그는 친구와 함께 표를 놓은 곳을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니 거기에서 석미륵이 나왔으므로 삼화령(三花嶺)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왕 13년 갑진(甲辰)에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뒤에 절 이름을 생의라고 했다. 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성의사(性義寺)라고 한다. 충담사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공양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다.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生義寺石彌勒

당나라에서 德經 등을 보내니 대왕이 예를 갖추어 이것을 받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에 五嶽과 三山神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대궐 뜰에서 왕을 모셨다. 3월3일 왕이 歸正門 樓 위에 나가서 좌우 신하들에게 일렀다. “누가 길거리에서 威儀 있는 중을 한 사람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때 마침 威儀 있고 깨끗한 高僧 하나가 길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다. 좌우 신하들이 이 중을 왕에게로 데리고 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威儀있는 중이 아니다”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다시 중 한사람 있는데 衲衣를 입고 櫻筒(혹은 삼태기를 등에 졌다고 했다)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왕이 보고 기뻐하여 樓 위로 영접했다. 통 속을 보니 茶具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小僧은 忠談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는 길어요?” “소승은 3월3일과 9월9일에는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의 彌勒世尊께 드리는데, 지금도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그 차를 한 잔 나누어 주겠는가” 중이 이내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였으며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였으며,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긴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스님이 耆婆郎을 찬미한 사녀가가 그 뜻이 무척 고상하다고 하니 그말이 과연 옳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安民歌를 지어 주시오.” 忠談은 이내 왕의 명을 받아들여 노래를 지어 바치니 王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王師로 봉하매 忠談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安民歌는 이러하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위의 기록에 의하면, 도중사 중 생의가 꿈을 꾸 내용을 바탕으로 석미륵상을 발굴하여 삼화령 위에 봉안하고, 선덕여왕 13년 갑진(644년)에 미륵불을 안치한 곳에 생의사를 세웠다고 하며, 충담사가 重三重九節에 차를 달여서 공양했던 불상이라고 附記하고 있다. 부기한 내용은 같은 책 기이편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서 다시 확인되는데, 忠談이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하고 오는 길에 景德王을 安民歌를 지어 올리는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生義가 남산 북봉에서 발굴하여 안치한 삼화령 석미륵과 충담이 차를 다려 공양을 올린 석미륵이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기록을 통해, 삼화령 미륵불상은 북봉에서 발굴하여 삼화령 상에 안치한 불상이므로, 고정불변의 마애불상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圓刻像이 분명하며, 석미륵과 미륵세존이라는 존명에서 돌로만든 여래형 미륵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발견된 불상 중 嶺上에 안치한 고신라 시대의 돌로 만든 원각상은 이 像밖에 없고, 본존상이 중국 북위부터 비롯되어 6세기 후반의 북제·주를 거쳐 미륵도상으로 정착되었던 倚坐勢를 취하고 있어 기록상 등장하는 彌勒의 尊名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석불을 봉안한 삼화령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三花”는

『三國遺事』卷5 感通 7 融天師 慧星歌條에서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 등을 “三花之徒”라 일컫고 있는데서 三花嶺의 “三花”도 花郎의 무리와 관련있는 명칭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故 황수영박사는 미륵삼존 앞에 형성되어 있는 고분이 삼국 말에 조성된 화랑의 묘로 추정하고, 나아가 이 미륵삼존상은 이들을 추모하고, 죽지랑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다시 화랑으로 化生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성된 석굴로 보았다.

신라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화랑으로 화생하기를 염원하면서 미륵상을 망자의 무덤 앞에 조성한 사례를 죽지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생각하여 우대하였다. 이 시기 제작된 미륵상들이 대체로 아직 성장기에 있는 미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이러한 미학적 상징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런즉, 이 삼화령 미륵삼존상은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천진하게 표현되었고, 오래전부터 이 삼존상을 “애기부처”라고 사랑스럽게 불러온 까닭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이 삼존상이 남산의 북봉의 고분과 더불어 남북으로 나란히 조성된 석실에서 발견된 점, 본존상이 취한 자세가 미륵의 도상적 특징인 의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 어린 화랑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칭하여 미륵상을 마치 어린아이 같이 표현한 점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三花嶺 彌勒世尊”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본존불상은 타원형의 연화대좌 두 다리를 딛고, 덩치 큰 사람이 웅색한 의좌에 엉거주춤 앉은 모습이다. 전면에서 보면 의자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나, 뒷면에는 의자의 앉는 자리와 다리가 ㄲ형으로 투박하게 조각되어 있다. 머리와 한 돌로 제작된 둥근 광배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여 무늬가 없는 협시보살상과 차이를 두었다. 머리는 소발로 처리하였고, 정수리에는 낮고 작은 원반모양의 육계를 표현하였다. 귀불은 길게 어깨까지 늘어졌으며 열쇠구멍 형태의 耳孔을 뚫었으며, 귓볼에도 타원형의 구멍을 조각하였다. 耳孔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두덩 사이로 반가한 눈매를 그윽하게 표현하였고, 동그란 얼굴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귀여운 인상을 준다. 불의는 양어깨를 덮은 통견식이며, 신체의 윤곽을 따라 두텁지 않게 걸쳐 입었으며, 주름은 도드라진 가는 융기선 주름으로 처리된, 이른바 紐狀衣紋이다. 이러한 주름은 경주 배리 석조여래삼존입상이나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군위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7세기 전·후반기로 추정되는 고식의 石佛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불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슴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지게 내의를 입었으며, 군의를 묶은 띠 매듭은 벗단처럼 마름모꼴 형태이다.



그림 3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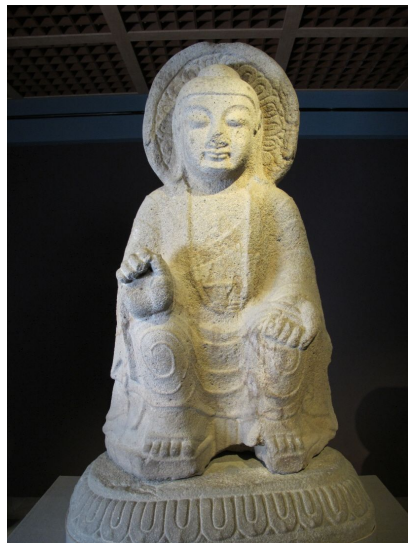


그림 4 본존불 정면



그림 5 본존불 배면

이외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倚坐한 오른쪽 무릎의 소용돌이 주름(渦券紋)과 가슴의 “卍”字를 양각한 것이다. 소용돌이 주름은 북위 말의 불상에서 시원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북주·수대이며, 이곳의 주름도 북주나 수대 불상의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슴의 “卍”字는 중국 동·서위 시대에 번역된 『無量義經』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경전에서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가슴의 卍字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손은 크고 듬직한데,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고 반주먹을 쥐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별도의 지물을 꽂았을 것으로 보인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팔뚝으로 넘겨진 옷깃을 잡고 있다.





그림 6 우협시 보살상



그림 7 좌협시 보살상

좌우 협시보살상은 頭光을 佛身을 한 돌로 만들었고 대좌는 본존불 대좌를 토대로 새로 조성한 것이다. 보름달 같은 둥근 광배는 머리에 보다 약간 크며, 본존불과 달리 문양을 새겨 넣지 않았다. 두 보살상은 3면에 둥근 꽃 장식을 세우고, 이를 굽은 띠로 연결한 보관을 썼다. 머리의 윗부분은 신라식 관모를 쓴 듯 산 모양으로 봉긋하게 솟아 있어 특징이 있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 사이에는 반개한 눈을 길게 새겨 넣었고, 삼각형의 오뚝한 콧날은 파손되었다. 작고 도톰한 입가에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한가득 머금었고, 목에는 둥근 메달이 부착된 두터운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손목에도 굽은 링 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불신에는 양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자락은 2단으로 걸쳤는데, 한 자락은 복부를 가로질러 팔뚝으로 넘겼고, 다른 한 자락은 무릎을 가로 질러 팔뚝으로 넘겼다. 작은 체구에 2단으로 걸쳐 무겁게 보이기도 하지만, 신체와 잘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허리춤에는 치마의 단을 요형으로 주름 잡아 멋을 내었다.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천의와 치마 등에 가는 용기선 주름을 사용하였다.

좌협시 보살상은 통통하고 양증맞은 오른손으로 짧은 줄기의 연꽃을 잡았고 왼손으로는 송편모양의 荷葉을 받쳐 들었다. 우협시 보살상은 왼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리듬을 타듯 맞대었으며 오른손으로 반으로 접은 荷葉을 들고 있다. 자세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강조한 三屈姿勢를 보이는데, 아직 엉덩이와 무릎 등 삼굴 자세의 박자가 미미한 초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협시 보살상은 본존불상의 엄숙함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큰 머리, 좁은 어깨, 짧고 통통한 팔다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로 인하여 귀엽고 사



랑스러운 모습이다. 삼국시대 미륵여래의 협시 보살상의 도상이나 존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이후 대표상보살과 법화림 보살로 정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삼존상의 본존은 의자에 앉은 의좌상이다. 의좌상은 인도에서 기원하여 초기에는 王 내지 神像으로 조성되다가 미륵과 결합하여 교각미륵보살상에서 의좌미륵보살상, 다시 의좌미륵불로 발전 정착했으며, 중국에서는 北魏대부터 비롯되어 6세기 후반의 北齊·周기를 거쳐 수·당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화령 미륵불상을 비롯하여 포항 고석사 마애불, 보은 법주사 마애불, 그리고 소형의 금동불상 몇 점이 전할 뿐 매우 드문 도상이다. 특히 양식적으로 아기같이 큰 상체에 짧은 하체와 통통한 양감을 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북주에서 수대에 걸쳐 유행한 양식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 ○ 참고자료

- 一然,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西文化社, 1990  
黃壽永, 「慶州 南山 長倉谷에서 옮겨진 三尊石像」, 『史學會誌』 7, 연세대학교, 1964(동지, 『黃壽永全集』 1 한국의 불상 상, 해안, 1998)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西文化社, 1969(동지, 『韓國의 佛像』, 문예출판사, 1989)  
黃富慶,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三尊佛像의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문명대, 「돈황 410굴 수대 미륵삼존불의상(倚像)과 삼화령미륵삼존불의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4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 ○ 관련문헌

#####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生義寺石彌勒

善德王時, 釋生義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一作荷簍).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忠

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 尸知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朕生以支所音物生 此盼噲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三國遺事』卷第二 紀異 第二 孝昭王代 竹旨郎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里. 隔一朔. 夢見居士入于房中. 室家同夢. 警怪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 其死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修葬於嶺上北峯. 造石彌勒一軀,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壯而出仕. 與庾信公爲副帥. 統三韓. 眞德, 太宗, 文武, 神文, 四代爲冢宰. 安定厥邦.

□

○ 현 상



도 1. 삼화령미륵여래삼존상의 본존불의상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남산 장창곡(長倉谷)의 한 석실(石室)에서 옮겨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석조삼존불상이다. 본존상의 얼굴(도 1)은 원만하고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이는데 눈부분이 앞으로 돌출된 형태이며 코끝이 훼손되었고 귀가 매우 길어서 어깨까지 닿을 듯하다. 소발(素髮) 머리위에는 육계(肉髻)가 낮게 새겨져 있으며 둥근 원형의 광배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몸에는 가사(袈裟)를 걸쳤는데, 그 주름이 양어깨 위에 양각되었다. 넓게 U자형으로 열린 가슴에는 내의가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며 내의를 묶은 2줄의 띠에서 올라오는 매듭이 허리 근처에 새겨졌다. 수인을 보면,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시무외인을 결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부분이 훼손되었고 왼손으로는 가사 자락을 쥐고 있다. 다리를 덮은 가사의 옷주름은 층단의 주름을 이루며 무릎부분에는 나선형을 이루고, 두 발을 디딘 바닥의 일부가 훼손되어 왼쪽 엄지 발가락이 결실된 상태이다. 정면에 비해 뒷면은 조각이 없이 편평하게 치석이 되었으며 방형의 의자가 표현되어 있다.

향좌측의 협시보살입상(도 2)은 본존상과 마찬가지로 광배와 불신(佛身)이 하



도 2. 좌협시보살입상의 상체 부분



도 3. 우협시보살입상의 상체 부분

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의 두광에는 아무런 조각(彫飾) 없는데, 테두리 군데군데에 훼손된 곳이 있다. 머리에는 중앙과 좌, 우에 꽃이 달린 삼화보관(三花寶冠)을 쓰고 코와 입술의 일부분이 훼손되었으나 얼굴표정은 온화하고 자비롭다. 귀는 길어서 어깨 위까지 늘어지고 목부분이 절단되어 이어붙인 흔적이 보인다. 목에는 넓은 띠모양의 목걸이를 걸었는데, 중앙에 둥근 구슬로 장식되었다. 왼손은 어깨 높이로 올려 지물(持物)을 들고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둥글게 말린 경권(經卷)처럼 보인다. 오른손은 배 위에 대어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고 있는데 손가락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어깨에 쇼올처럼 걸친 천의(天衣)는 바닥까지 닿는데 배와 다리위로 2단을 이루며 늘어졌고 뒷면은 밋밋하다. 윗단을 밖으로 접어 입은 치마(裙) 자락이 오메가(Ω) 형태의 옷주름을 이루고 있다.

향좌측의 협시보살입상(도 3)은 반대편 보살상과 여러 점에서 유사한데 크기가 약간 작다. 불신과 광배가 일석(一石)인데, 원형의 광배의 상단이 훼손되었고, 머리에는 삼화보관을 썼으며, 귀가 길어 어깨위로 늘어졌다. 얼굴은 뺨이 통통한 아기와 같은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코끝부분이 깨진 상태이다. 목에 걸고 있는 메달이 달린 띠 모양의 목걸이는 향좌측 보살상의 목걸이에 비해 짧으며, 어깨에 걸친 천의는 배와 다리위에 두 개의 단을 이루며 늘어졌고, 치마는

윗단을 밖으로 접어 입었다. 오른손으로는 짧은 줄기가 달린 연꽃봉오리를 들고 왼손으로는 대합조개처럼 생긴 둥근 지물(持物)을 받쳐 들었다. 자세는 왼쪽다리를 앞으로 하고 왼발을 아래로 딛었으며 오른발을 살짝 들어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내민 향좌측 보살상과 반대의 자세이고, 배는 볼록나와 신체의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은 아래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사를 기초로 선덕여왕 13년(644)에 창건된 생의사(生義寺)의 석조미륵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의 승려 생의(生義)는 도중사(道中寺)에 머물렀는데, 어느날 꿈

에 한 승려가 그를 데리고 남산(南山)으로 올라가 풀을 묶어 표시하게 하고 산의 남쪽 골짜기로 와서 말하길,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나를 파내어 고개 위에 안치하기를 바랍니다.”하므로 그곳에 이르러 땅을 파보니 석미륵(石彌勒)이 있었다고 한다. 생의는 이 상을 삼화령(三花嶺) 위에 모셨다가 선덕왕 13년 갑진(644년)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후에 생의사(生義寺)라고 하였다.[지금은 잘못 전해져 성의사(性義寺)라 한다. 충담사(忠談師)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서 바치는 부처님이 바로 이 부처님이다](「善德王時 釋生義 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본존상은 의자에 앉은 의좌상(倚坐像)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의좌상이다. 이와 같은 의좌상은 중국에서 남북조시대 이래 크게 유행하였는데, 대부분은 ‘미륵불’인 경우가 많다. 또한 삼화령 미륵삼존상의 어린아이의 몸 같은 4등신 정도의 단구형(短軀形) 신체비례를 보이는 불·보살상은 중국에서 제·주(齊周)시대부터 수대(隋代)에 걸쳐 유행하였다(도 4, 5). 이와 같은 단구형의 불상들은 7세기초에 신라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주 배동(拜洞) 석조삼존불입상이나 경주 인왕동 석불좌상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좌우 협시보살상에서 보이는 이른바 ‘2단 천의형식’과 삼화보관의 형태이다. 2단 천의형식과 삼화보관이 결합된 양식은 경주 선도산 석조삼존불상의 우협시보살입상과 영월출토 금동보살입상 등에서 나타나며, 중국에서는 수대에서 초당(初唐) 조각에서 유행하였으므로 그 영향이 신라조각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좌우협시보살상에서 조심스럽게 보이는 신체 움직임의 표현 역시 초당(初唐) 양식의 전래를 암시한다. 이와 같은 양식적 특징에서 판단해 볼 때,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제작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 4. 석조보살입상, 北周 566년, 東京 書道博物館



도 5. 석조미륵보살삼존의상, 북주 573년, 감숙성박물관

### ○ 참고논저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生義寺石彌勒」條; 同書 卷 1 奇異 第2 「忠談師」條.  
 黃壽永, 「慶州 三花嶺 彌勒世尊」,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乙西文化社, 1969);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1973 및 『황수영전집』 1권, 혜안, 1998, 에 재수록)

金理那, 「三國時代의 佛像」,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2.

黃富敬,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三尊佛像 研究」,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최성은, 「신라 불교조각의 대중관계」, 『新羅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0.

朱秀浣, 「新羅에 있어서 北齊·周 彫刻樣式의 展開에 관한 一考察」, 『강좌미술사』, 2002.



<붙임 1>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 국립경주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지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3715호(2015.6.17.) 관련입니다.
2. 우리 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요청서를 송부하오니 문화재 지정에 앞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적합한 문화재이름 부여

나. 대 상 품: 우리 관 전시품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삼존상(慶州 南山 三花嶺 石迦彌伽[來三尊像]>

다. 요청내용: 붙임 참조

붙임: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서 1부. 끝.

국립경주박물관장



학예연구사 **임재완**      학예연구관 **대인, 2016. 8. 11.**      학예연구실장 **정연 이재연**  
 협조자  
 시험 학예연구실-1307      (2016. 8. 11.)      접수 유형문화재과-6087      (2016. 8. 11.)  
 우 38171      경북 경주시 일점동 188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gyeongju.museum.go.kr  
 전화번호 064-740-7688      팩스번호 064-740-7686      / tiger1219@museum.go.kr      /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서 >

내 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정예고품(보물)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

목 적: 적합한 문화재명칭 부여

요 청 품:

-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三花領 石造彌勒如來三尊像)

요청부분: 한글 명칭 및 한자 명칭

요청내용

부분	변경 검토 요청 내용	내 용
명칭	<p>(원 안)</p> <p>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p> <p style="text-align: center;">↓</p> <p>(수정 요청 안)</p> <p>1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좌상</p> <p>2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 석조삼존불상</p>	<p>1. "삼화령"이라는 지명은 장창골을 삼화령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2차적 해석이 되는 명칭임. 따라서 출토지인 장창골(곡)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p> <p>2. "미륵"이라는 존명은 해당 불상의 도상적 특징(자세)에 기초하여 사용되어 온 것이나, 현재 존명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고려 필요</p> <p>3. '제작자: 生義'는 사실과 다르므로 삭제 또는 '발견자: 生義'로 수정 필요</p>

##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5-04-005

### 1.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武寧王妃 金製冠飾)’현상변경

#### 가. 심의사항

국보 제155호 ‘무령왕비 금제관식(武寧王妃 金製冠飾)’의 국외반출 심의 조건(3차 회의)에 따른 보존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심의사항 부의 건입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문화재로 국외반출심의(동산분과 3차 회의, '15.6.11.) 조건에 따라 열화 부분의 보강을 위한 보존처리 실시하기 위하여 부의하는 것임

####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공주박물관)
- 수 량 : 1점(지정 1쌍)
- 규 격 : 높이 22.6cm, 너비 13.4cm
- 재 질 : 금제
- 제작연대 : 삼국시대(백제)
- 지 정 일 : 1974. 07. 09.
- 문화재내용 :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 때 금으로 만든 관(冠) 장식으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으로 되어 있다. 금판에 무늬를 뚫어서 장식하고 밑에 줄기를 달았다. 예리한 도구로 도려내어 무늬를 만들었는데 좌우대칭으로 정돈되어 매우 정연한 느낌을 준다. 중심부의 연꽃받침 위에 놓인 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덩굴무늬가 있고 병 위에는 활짝 핀 꽃 한송이가 있다. 중간부터 위쪽의 가장자리에는 불꽃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무령왕릉 안에서 같이 발견된 왕의 관(冠) 장식보다 규모가 조금 작고 구슬 등의 장식이 달려있지 않아 간결한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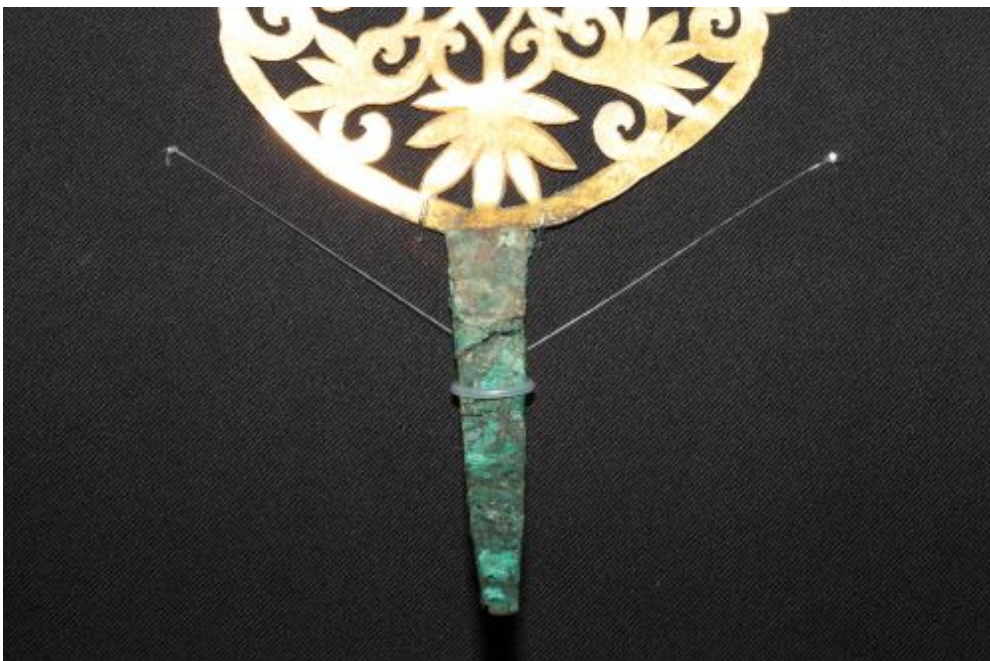


## 라. 현 상태

- 관식은 투조기법으로 각종 문양을 표현한 금판에 가삽부(加插部)를 리벳팅하여 결구한 형태임
- 금판은 상태가 양호하지만, 가삽부는 접합 부분의 열화 현상으로 균열이 일부 발생되어, 손상 부분에 대한 접합·강화처리가 필요한 상태임



무령왕비 금제관식 현황



무령왕비 금제관식 세부(가삽부 균열)

## 마. 현상변경 내용

- 가습부 균열 부위에 대한 접합·강화처리

## 바. 보존처리 계획

- 상태 조사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조사(육안·실체현미경, X-선 조사 등)를 통해 유물의 부식 상태 확인 등을 실시하고 보존처리 방법을 설정함
- 이물질제거 : 물리적 방법(실체 현미경 및 각종 소도구)을 위주로 실시하되, 부분적으로 에틸알콜, 면봉 등을 이용한 세척을 실시함
- 접합·복원, 강화처리 및 색맞춤
  - 유물의 缺損 부분에 대한 접합·복원은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原狀을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행함.
  - 복원된 부분은 원래 부분과 구별되게 처리함. 다만 전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일정한 거리(대략 2m) 이상에서는 판별이 어렵도록 함.
    - 강화처리 : Paraloid B72 15%(in xylene) 용액을 사용하여 함침함.
    - 접합,복원 및 색맞춤 ; 접합·복원제의 재료로는 에폭시 수지, Microballoon, 안료 등을 사용하고, 색맞춤은 아크릴물감 등을 이용하여 복원된 부분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착색함.
- 보존처리카드의 작성 : 추후 재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 전 상태, 처리 과정, 처리 후 상태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을 남김.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리
- 보존처리 기간 : 현상변경 허가 이후 1개월 이내

## 사. 향후 계획

- 현상변경 완료신고 접수 후 국외반출 허가 승인

##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 토 사 항



## 【검토사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5-04-006

#### 1. 강화 관청리 출토 금동여래삼존상 (江華 官廳里 出土 金銅如來三尊像)

##### 가. 검토사항

‘강화 관청리 출토 금동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이와 관련, 강화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여래삼존상’에 대한 지정조사(3.1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강화 관청리 출토 금동여래삼존상(江華 官廳里 出土 金銅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강화역사박물관)
- 소재지: 인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 수 량: 1구
- 규격(cm): 전체 높이 7.06cm, 최대폭 6.38×3.67cm  
본존 전체높이 7.06cm, 상높이 5.3cm, 무릎폭 3.33cm  
우협시 전체높이 6.13cm, 좌협시 전체높이 6.11cm

- 재 질 : 금동
- 제작연대 : 고려 후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강화 관청리 향교골 금동불삼존상은 불상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이나 명문도 남아 있지 않으나 양식적인 면에서 고려의 강화도 천도 시기인 고려시대 13세기 전반에 조성된 강화도 출토 불상으로서, 강도 시기 불교 신앙의 단면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화 관청리 향교골 금동불삼존상은 비록 7센티미터 크기의 불상이지만, 각 존상들은 역사성과 종교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화 관청리 향교골 금동불삼존상은 강도 시기의 불교 신앙 양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예술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강화 관청리 향교골 금동불삼존상은 비록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으나 강도 시기에 제작된 불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니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유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보존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불상이 발견된 발굴조사지역은 江都時期(1232~1270)에 군사목적의 시설로 조성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용되다가 개경환도로 그 필요성이 떨어짐으로써 자연적인 훼손 후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상 역시 양식적 특징상 고려 13세기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강도시기에有力者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불상의 규격이 7.06×6.38×3.67cm 정도의 소형 불상으로, 법당의 주존불로 봉안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이 쉽게 휴대하여 다닐 수 있는 원불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삼존상은 출토지가 분명하며, 발굴층위, 공반 유물, 건물의 성격, 그리고 불상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 등으로 보아 강도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강도시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 될 뿐만 아니라 삼존 도상으로는 드물게 여래와 僧像으로 구성된 독특한 삼존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로운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불상의 규모가 소형이고, 조각적·조형적 완성도도 부족하며, 광배, 수인 등이 결손 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은 江都時期(1232-1270)의 불상 연구, 나아가 13

세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유형문화재로 권고하여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

강화 관청리 금동여래삼존상은 고려가 몽고의 침입을 받아 강도에 도읍하였던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불상으로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주조기법이나 조형적인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로 권고함.

### 조사보고서

□

#### ○ 현황

2010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여고 기숙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강화 관청리 향교골 유적이 드러났다. 전체 3개의 건물지 중에서 2호 건물지에서 금동불삼존상[금동삼존불상]이 발견되었는데, 건물지 동쪽의 약간 내려간 바닥면에서 소형 벼루 2점과 함께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몽고가 침입하자 고종은 재위 19년(1232)에 강화로 천도하였다. 1232년 6월, 강화에 궁궐 공사를 시작으로 1233년과 1237년엔 강화 외성(外城)을, 1235년엔 강화도 연안의 제방을 축조하였다. 1259년, 몽고와의 화의가 이루어지자 그 조건으로 강화 내성과 외성을 파괴하였으며, 개경으로의 환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종 11년(1270)에서야 이루어졌다. 즉 강화도는 13세기 전반에 37년 동안 고려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이 시기의 강화를 강도(江都)라고 불렀다.

2012년의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호 건물지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앞쪽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다고 한다. 건물이 강도 시기에 조성된 후, 개축된 흔적이 없고 고려시대 청자와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경 환도 이후에 폐기되어 자연적으로 매몰되었다고 한다. 특히 2호 건물지는 구들이나 아궁이 등 난방 시설이 없고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어 생활 주거를 위한 용도보다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호 건물지가 위치한



곳은 강화 산성의 내성(內城)과 인접하여, 강도 시기엔 건물이 성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도 시기의 고려 궁지는 지금의 강화읍 관청리의 사적 133호로 지정된 곳으로, 금동불삼존상이 발견된 2호 건물지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직선 거리 약 200미터)이다.

금동불삼존상은 불좌상을 중심으로 제자상이 협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흠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산화된 상태이다. 불상의 광배는 부서져 일부만 남아 있으며, 협시상의 두광도 많이 마모된 상태이다. 또한 불상의 가장자리와 아랫 부분도 마모되어 있으며, 손가락도 일부 부러져 없어진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청동불상인 것 같으나, 제자상 뒷면 등 부분적으로 도금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원래는 금동불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내용 및 특징

강화 관청리 향교골 금동불삼존상은 각각 양련대와 위에 봉안된 모습이다. 불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가부좌를 틀고 있다. 높지 않은 육계(肉髻)와 격자 형태로 선을 그어 표현한 나발(螺髮), 중앙 계주(髻珠)를 갖추고 있다. 이마는 넓고 턱이 좁아 다소 날카로운 모습이긴 하지만 후리부리한 눈과 부드러운 입술에서 전체적으로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불상은 오른손은 들어 올려 손바닥을 앞으로 내보이고 있으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았다.

불상은 둥근 형태의 두광만 갖추고 있는 제자상과 달리, 원래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추고 있는 거신광(擧身光)을 하고 있었으며, 그 가장 자리에는 화염문이 표현되어 있다. 비록 광배에 가려질 것을 생각한 듯 불두(佛頭) 뒷면의 나발의 표현은 그다지 정교하지 않으나 왼쪽 어깨 뒤로 넘어온 대의 자락이나 목 뒷부분을 감싸고 있는 둥근 선의 대의 것은 뒷면까지 정성을 기우려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상 뒷면의 옷자락이 표현된 것을 보면, 불상과 광배를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협시상들은 불상과 달리 연화좌 위에 서 있으며, 역시 통견식으로 법의를 걸치고 있다. 좌우 협시의 손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 같은 형식의 손 자세를 하고 있는데, 좌협시상은 오른손을 가슴 옆까지 들어 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뜨린 반면, 우협시상은 왼손을 가슴 앞에까지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내려뜨리고 있다. 협시상들도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얼굴과 후리부리한 눈 등 불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금동불삼존상은 매우 작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절에 봉안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은 아닌 듯하다. 고려시대 기록에 보이는 귀족들의 집에 따로 마련해 뒀던 정실(淨室) 등에 봉안하여 예불했던 개인적인 불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연봉형 못 가리개는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격을 갖춘 건물이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며, 이 건물 어느 공간에 봉안되었던 불상일 가능성도 높여

준다.

금동불삼존상의 조성 시기는 강도 시기인 고려시대 13세기 전반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상의 정확한 도상이나 강화도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줄 어떠한 단서도 없으나 불상과 제자상의 구성 방식과 비례, 각 존상이 가진 양식적인 특징을 통하여 볼 때 고려시대 13세기 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판]



도1. 금동삼존상 정면



도2. 금동삼존상 뒷면



도3. 금동삼존상 밑면

도4. 금동삼존상 부분(불상 다리)

□

○ 조사내용

이 삼존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44-2번지 일원인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 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발굴조사에서는 3개의 건물지를 확인하였는데, 이 삼존상은 2호 건물지에서 발견되었다. 3기의 건물지는 발견된 유물과 형태와 입지 등으로 볼 때 江都時期 군사적인 목적과 관련된 관청이나 창고, 병영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도 1 강화 관청리 금동여래삼존상 전면

도 2 강화 관청리 금동여래삼존상 후면

이 금동여래삼존상은 2호 건물지 동쪽편 단을 낮추어 형성된 바닥면에서 발견되었다. 삼존상(도1, 2)은 좌상의 여래상을 본존으로, 좌우에 민머리의 僧像이 협시한 독특한 삼존형식을 구성하고 있다. 본존불은 한걸음 앞쪽에 크게 보이도록 조성하고, 협시상은 본존상의 측면에서 한걸음 뒤쪽으로 물러 배치하여 존상의 위



계적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이 상에서 보이는 독특한 삼존형식은 삼국시대 조성으로 추정되는 전 춘천출토 금동보살삼존상 1점 정도가 알려져 있을 정도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도상이다. 삼존상의 표면은 전반적으로 무거운 검회색을 띠며, 좌협시상의 뒷면에 도금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어 원래는 금동불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존상의 광배와 본존불의 오른쪽 손가락이 파손되었지만, 출토 후 보존처리를 거친 상태여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존 불상은 둥근 연화좌 위에 길상좌로 앉았고, 오른손은 어깨 위로 들어 설법인을, 왼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내렸다. 양련대좌는 정면에만 3葉의 연판을 표현하였고, 뒷면은 연잎을 조각하지 않았다. 연판 사이에는 작은 덧니처럼 間葉이 표현되었다. 이는 협시상에서도 마찬가지로지만, 본존불상의 그것에 비해 보다 단순하면서도 성의 없이 조각하였다.

머리의 형태는 사선으로 빗금 친 나발로 인하여 밤톨모양처럼 보이며, 육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슬그머니 선의 변화를 주어 어렴풋이 드러내었다. 머리의 정면 중앙에는 작고 동그란 중앙계주를 나타내었고, 정상계주는 표현하지 않았다. 발제선의 중앙은 아치모양으로 처리하여 헤어라인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고려불화나 사경에서 볼 수 있는 회화적 표현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머리모양의 특징은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74년 중수),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상 등 13세기에 제작된 불상들과 비교할 수 있어 이 불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3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362년 중수(13세기)



도 4 금동탄생불입상, 강회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 5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3세기 중엽

나발은 빗금을 굵듯 격자문으로 처리하여 특색이 있다. 얼굴은 턱선이 가름한 타원형이며 볼에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다. 이목구비는 얼굴 중앙으로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고, 행인형으로 부푼 눈두덩 사이에는 치켜뜬 눈매를 표현하였다. 콧

날은 오뚝하며 코끝은 매부리 형태로 휘어져 이국적인 면모를 풍긴다. 귀는 이륜과 귓볼 사이에 굴곡을 주어 3자 모양을 띠며, 어깨까지 길게 늘어진 귓볼에는 타원형의 구멍을 모각하였다. 가름한 얼굴형에 통통하고 이국적인 이목구비는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중수)이나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62년 중수) 등 13세기나 14세기 초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이목구비의 표현방식이며, 이는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금동탄생불입상(도 3)이나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4)과도 비교할 수 있다.

좌의는 오른쪽 어깨에 반달모양으로 걸친 대의자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二重으로 걸쳐 입은 이중좌의로 생각되며, 시원하게 드러낸 가슴에는 근육의 여운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주름은 깊고 예리한 편이며, 특히 왼쪽 어깨로 형성된 긴 삼각띠 모양의 주름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주름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13세기에 조성된 불상들의 단조롭게 정형화된 모습들과 께를 같이하며,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이나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등 14세기 불상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움과 구별된다.

불상의 무릎은 다소 좁게 설계되었는데, 이는 느슨하지 않고 짜임새 있는 삼존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선택적 결정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길상좌로 앉은 무릎 주름은 오른쪽 발목을 덮고 내린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짧고 깊은 사선주름을 사용하였으며, 무릎 앞으로 주름이 부채살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다.

오른손은 어깨 위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나타낸 듯하며, 손마디의 끝이 대부분 결손되었다. 왼손은 무릎 위에서 축지인처럼 편안히 내려놓았다. 이와 같은 수인은 중국의 당과 통일신라시기에 유행했던 형식으로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 출토의 금제여래좌상(706년, 국보 제79호)이 대표적이며, 아미타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 작품으로는 간송미술관 금동삼존불감(도 6, 국보 제73호)과 대마도 대흥사의 동조여래좌상이 있다. 또한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도 7)이나 유점사 53불 중 금동여래입상(도 8), 고려시대 법화경 사경변상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인을 찾을 수 있다.

연화대좌는 단순한 단판의 올림연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판 내에는 3가닥의 연맥을 상징기호처럼 표현하였다. 대좌의 밑면에는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어디엔가 연결하기 위해 뚫은 구멍인지 복장을 납입하기 위한 시설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좌우에 서있는 협시상은 민머리의 僧像으로, 둥근 두광을 부착하고 본존불의 측면에서 한걸음 물러 서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며, 머리의 발제선을 이마보다 한 단계 높게 표현하여 분명하게 구분지었다. 얼굴은 둥글고 이목구비는 본존상과 유사하나 보다 투박하게 표현하였다. 허리와 배를 내밀어 S자형의 신체 굴곡을 만들어 내었고, 법의는 통견으로 입었다. 복부에는 U자형으로 오목하게 처

리한 균의자락이 드러나 있고, 대의자락은 나뭇잎 모양으로 정강이까지 날렵하게



도 6 금동삼존불감의 본존,  
고려전기, 간송미술관



도 7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고려전기



도 8 유점사 53불 중  
금동여래입상, 고려후기

드리워져 있고, 주름은 깊고 예리한 V자형 주름을 사용하였다. 균의 주름은 손톱으로 쿡쿡 눌러 찍듯 짧고 간결한 U자형을 2-3번 반복해서 새겼다. 수인은 상호 대칭을 이루도록 하여 施無畏與願印으로 표현하였다. 이 협시상은 전반적으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어깨는 좁고 가슴은 긴 편인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강화 출토 금동탄생불입상이나 유점사 53불 중 금동여래입상 등 13세기로 편년할 수 있는 불상들과 양식적·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14세기 불상과는 차별되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 □

### ○ 현 상

2010년 실시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44-2번지 일대(5,495㎡)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부지의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삼존상이다. 이 삼존불상은 전체크기 7.06cm의 소형상으로 당시 발굴된 3기의 건물 가운데 제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삼존여래상의 제작기법은 하나의 틀로 주조한 일주식(一鑄式)이며 여기에 광배(光背)를 별주(別鑄)하여 붙였다. 본존불상의 등 뒤에는 상부와 좌측 부분이 깨진 투각된 신광(身光)이 붙어 있고, 좌우 협시상의 머리 뒤에는 원형의 두광(頭光)이 있다.

본존불좌상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였고 등을 구부려 몸을 앞으로

숙인 자세이다. 육계(肉髻)는 낮은 편이고 나발(螺髮)이 격자모양의 사선(斜線)으로 음각되어있으며 머리 중앙에는 중간계주[中髻珠]가 새겨져 있다. 얼굴의 표현을 보면, 눈은 반개(半開)하였고, 콧날이 우뚝한 이국적인 상호(相好)이며 양 뺨은 통통하고 턱 부분은 가름하다.

착의형식은 가사 위에 편삼(偏衫) 혹은 또 한 벌의 가사를 덧입은 이른바 ‘이중착의’ 형식으로, 가사 자락이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고 가슴은 넓게 U자형으로 파였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위로 올려 설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결(結)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무릎위에 올려놓았다.

좌우 협시상의 얼굴은 본존불상에 비해서 이목구비의 세부표현이 거칠다. 머리에는 보살의 상투(寶髻)가 표현되지 않았고 승려의 삭발형 두발과 유사하지만 착의 형태를 보면 소매가 넓은 보살옷을 입고 있고 V자형태의 요포(腰布)가 허리 아래로 늘어지고 그 밑으로 신대(紳帶)가 중앙에 내려오고 있어 승려상의 단순한 착의 형식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수인은 좌우 협시상이 모두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통인을 결(結)하고 서로 반대쪽의 손을 들어 올려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협시상의 발밑에는 낮으막한 연화대좌가 받쳐져 있다. 뒷면에 도금 흔적이 남아있다.

## ○ 내용 및 특징

전체적으로 금동여래삼존상은 주조기법이 거칠고 세부표현에 있어서도 정교함이 떨어진다. 본존불좌상(도 1)은 콧날이 우뚝한 이국적인 상호와 앞으로 숙인 자세, 착의형식 등, 조형적인 면에서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중수),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2),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74년 중수)과 같은 12세기말~13세기의 불상들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 목조불좌상들과 재료는 다르지만 고려 후기 13세기 불상양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강도(江都) 시기(1232~1270년)에 제작된 고려 후기 불교조각으로 생각된다.

좌우의 협시상은 머리위에 보계와 같은 표현은 없으나 보살상의 착의형식을 보이고 있어 주조할 때는 보살상의 머리표현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도금과 마무리 단계에서 보관과 같은 장식을 추가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삼존상과 비교될 수 있는 예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삼존불상이 전하고 있는데(본존상 두부 缺失, 도 3), 본존상의 수인이나 협시보살상의 착의형식에서 유사한 점이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개인의 예불용으로 이와 같은 소형의 삼존불상이 유행하였던 듯하며 작은 불감(佛龕) 안에 봉안되어 예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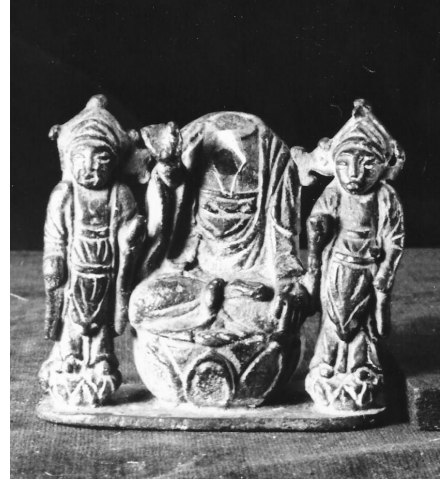




도 1. 본존불상 세부



도2.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고려후기 13세기



도3. 국립중앙박물관 삼존불상 (덕 818)

### ○ 문헌자료

- 『강화 관청리 향교골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서경문화재연구원, 2012
- 문명대, 「고려 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開運寺) 소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상」, 『講座美術史』 8, 한국미술사연구소, 1996.
- 문명대, 『삼매와 평담미 - 고려·조선 불교조각사 연구 -』, 예경, 2003.
- 최성은, 「13세기 고려 목조아미타불상과 복장묵서명」, 『韓國史學報』 30, 고려사학회, 2008.
-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一潮閣, 2013.



## 2.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淸州 雲泉洞 新羅寺蹟碑)

### 가. 검토사항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11.24)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4호(1983.11.30.)
- 명 칭 :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淸州 雲泉洞 新羅寺蹟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수 량 : 1기(殘片)
- 규격(cm) : 세로 92.0 × 가로 91.0 × 두께 15.0~20.0
- 재 질 : 石(花崗巖)
- 제작연대 : 686년(신라 신문왕6)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조사문화재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淸州雲泉洞新羅寺蹟碑)」는 비문에 “수공 2년 세차 병술(垂拱二年歲次丙戌)”이라는 연호와 간지가 기록되어 있어 통일신라기인 신문왕(神文王) 6년(686)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는 비석이다.

비문은 사찰(寺刹)의 창건과 관련된 사적기(寺蹟碑)로 이해되고 있다. 비문이 많이 마멸되어 전체 판독이 어려우나 불법(佛法)을 찬양하고 국왕의 덕과 전쟁의 참화가 끝난 뒤의 삼국통일(三國統一)의 위업을 칭송하고 기리며, 영토의 확장과 국

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는 비석의 조성 연대가 확인되는 신라 고비(古碑)로서 신문왕(神文王) 6년(686)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 당시 청주지역(淸州地域)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 1基는 1982년에 忠淸北道 淸州市 雲泉洞 속칭 산직마을에서 발견된 新羅 中代의 碑로 淸州地方에 있던 어느 寺刹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殘片의 규모는 세로 92.0cm 가로 91.0cm 두께 15.0~20.0cm의 네모난 형태의 花崗巖碑로 밑부분만 남아 있다. 碑文은 北朝風의 楷書體 正字로 陰刻되어 있으며 마멸된 곳이 많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합 160자 정도가 判讀되고 있다. 本碑는 1982년에 발견되어 1983년 11월 30일에 忠淸北道 有形文化財 제134호로 지정된 이래 國立淸州博物館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碑文에 “垂拱二年歲次丙戌”이라는 年號와 干支가 기록되어 있어 統一新羅時代 神文王 6(686)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碑文의 內容은 佛法을 讚揚하고 國王의 德과 戰爭의 慘禍가 끝난 뒤의 三國統一의 偉業을 稱頌하고 기리며, 영토의 확장과 國泰民安을 기원하는 護國佛敎의 內容을 담으면서 동시에 寺刹의 創建에 관련된 內容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內容 가운데 儒·佛에 관한 요소가 다 들어 있어 新羅 中代 王室의 思想政策은 佛敎로 하여금 儒學을 포용하는 政策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統一新羅時代 당시 忠淸道 淸州地域이 行政·軍事·文化的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重要한 資料일 뿐 아니라 統一新羅의 政治的·經濟·文化的 內容을 研究하고 確定할 수 있는 重要한 資料가 될 수 있어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운천동에서 발견된 이 신라사적비는 비록 절단되어졌고 마모도 심하여 그 면모가 완정하지는 못하지만 비의 양식사적인 면이나 통일신라 서예가 변모해 가는 과도기적인 일면이 잘 드러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적비이다.

문화재 지정에 충족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보 류 : 동시대 비지정 금석문에 대한 조사 후 검토

### 조사보고서

## □

清州雲泉洞 新羅寺蹟碑 / [製述者不明] ; [書寫者不明] ; [刻者不明]. -- 石. -- [製作地不明] : [製作處不明], [新羅 神文王 6(686) 推定].

1基(殘片) ; 세로 92.0 × 가로 91.0 × 두께 15.0~20.0 cm.

### ○ 現 狀

조사문화재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清州雲泉洞新羅寺蹟碑)」는 1982년 충북 청주시 운천동(雲泉洞) 속칭 산직마을의 공동우물터에서 빨랫돌로 사용되던 것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한 것이다.

1983년 11월 30일에 충북 유형문화재 제134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 관리되고 있다.

현재 네모난 형태의 화강암석 세 면에 15행 17자~19자의 북조풍(北朝風) 해서체(楷書體)가 새겨져 있으나, 비문은 마멸된 곳이 많아 대략 160여 자만 판독이 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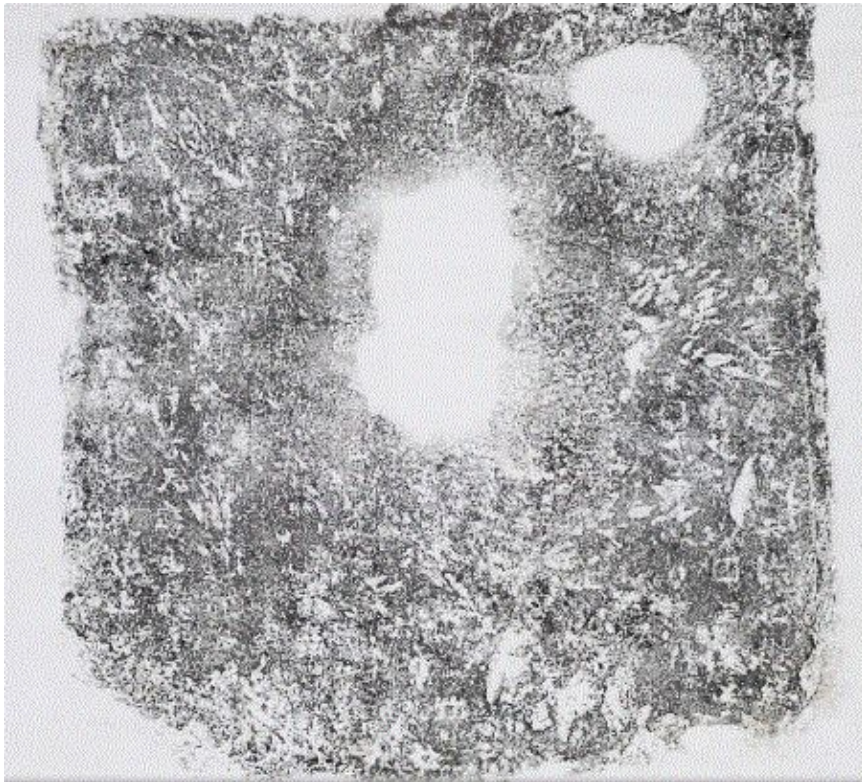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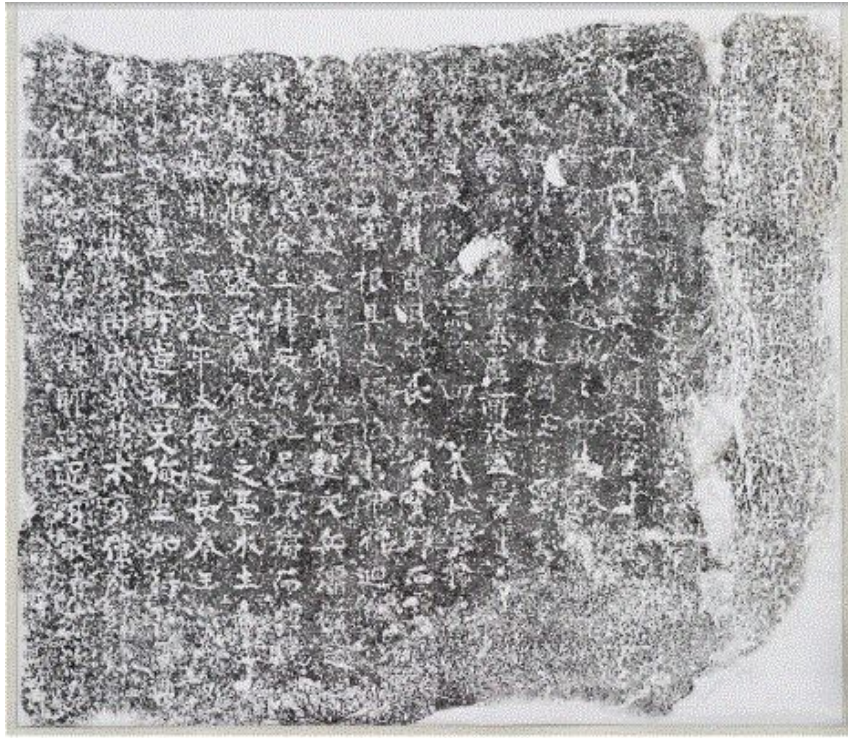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는 신라 중대 청주 지역에 있던 사찰(寺刹)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석이다.

비문은 화강암석의 한 면에 새겨 넣었는데, 현존 비편의(碑片)은 세로 92.0cm 가로 91.0cm 두께 15.0~20.0cm의 네모난 형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비편(碑片)의 너비를 토대로 원비(原碑)의 높이를 추정하면 약 2m 정도로서, 본래 이수(螭首)와 귀부(龜趺)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의 비문은 북조풍(北朝風)의 해서체(楷書體)로 음각(陰刻)되어 있는데 각 글자의 크기는 작은 편이다. 본래 주위에 장곽선을 두른 흔적이 보이거나 정간(井間)을 친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비문의 내용은 대체로 佛法을 讚揚하고 國王의 德과 戰爭의 慘禍가 끝난 뒤의 三國統一의 偉業을 稱頌하고 기리며, 영토의 확장과 國泰民安을 기원하는 護國佛敎의 내용을 담으면서 동시에 寺刹의 創建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에서 관독되는 글자와 그 역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제1면)          沙門 寸」          無 趣皎皎而生」          河洛靈圖」          天德長流於四海義心宣揚於萬邦」          路蘭香風而長流貸寶繹而無」          善根具足門 而行廻」          堅鼓之場精靈所起交兵深林之地」          伐耶 民合三韓而廣地居滄海而振威」          仁寺倉府充溢民免飢寒之憂水土」          丹穴委羽之君太平大蒙之長奉玉帛」          者沙門普慧之所造也文海生知行之」          壽拱二年歲次丙戌茅茨不剪僅庇經傳」          化主弟子海心法師世近明敏清涼」</p>	<p>&lt;제1면&gt;          … 사문 …          … ㉠취(㉠趣)가 교교히 일어난다 …          … 하락영도(河洛靈圖) …          … 하늘같은 덕은 사해에 널리 퍼지고, 의로운 마음은 만방에 선양된다 …          … 난향(蘭香)은 바람따라 널리 퍼지고, 대보(貸(?))는 잇닿아 끊임이 없도다 …          … 좋은 근본이 두루 갖추어지고, …          … 북을 세운 땅은 정령이 일어나 맞서 싸운 곳이고, 깊은 숲속의 땅은 …          … 사악함을 벌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고), <b>삼한을 통합하여 땅을 넓혔으며</b>, 창해에 살면서 위세를 떨치시니 …          … ㉠인사(㉠仁寺)는 창고가 가득차 넘치니 백성이 추위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수도(水土)는 …          … 단혈에 깃을 맡긴 군자이시고, 태평대몽(太平大蒙)의 어른이시니, 옥백을 받들고 …          … ㉠는 사문 보혜(普慧)가 만든 것이라. 문해(文海)가 지행의 ㉠을 일으키니 …          … <b>수공(壽拱) 이년(二年)(686) 병술년</b>, 초가도 손질하지 못하여 겨우 경전(經傳)을 비에 젖지 않게 할 따름이니 …          … 불제자 해심법사는 근래 보기 드물게 명민한 분으로 칭량하고 …</p>
<p>(제2면)          三寶 六代之徽經」          國主大王」          降」          六」          亦」          壽」          善天壽山長」          陰陽 上下」</p>	<p>&lt;제2면&gt;          … 삼보(三寶) … 육대(六代)의 미경(徽經) …          … 국주대왕(國主大王) … (이하 생략)</p>
<p>(제3면)          阿干」          主聖大王炤亦爲十方檀越及道場法界」          亦」</p>	

비석의 제1면은 행간이 제대로 맞지 않고 글자의 크기도 똑같지 않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사적비(寺蹟碑)와 마찬가지로 불법(佛法)을 찬양하고, 이어 임금의 덕(德)과 삼국통일 위업을 칭송하였다. 다음에 사찰 창건자의 이름과 창건 연대를 전한다. 재래의 건물에 초라했음을 알리고, 다시 창건자 제자의 이름과 함께 그를 칭찬하는 어구(語句)를 적고 있다.

임창순 선생은 문장의 흐름을 보아 ‘자사문보혜지소조야(者沙門普慧之所造也)’ 구절의 ‘자(者)’ 바로 위에 절의 이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부분이 사원의 유래를 서술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또 ‘수공이년(壽拱二年)’의 구(句)가 들어 있는 곳에서 사원 건축 사실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곳이 비문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수공이년세차병술(垂拱二年歲次丙戌)”이라는 연호와 간지는 중국 당조(唐朝)의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곧 신문왕(神文王) 6년인 686년을 가르킨다. 이병도 선생은 이 부분을 제3면으로 이해하였다.

비석의 제2면은 글자가 거의 마멸되어 읽을 수 있는 글자는 몇자 안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불가능하다. 다만 제15행에서 보이는 ‘국주대왕(國主大王)’이라는 표현은 성덕왕대(聖德王代)의 금석문인 「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기(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와 「감산사미륵보살조상기(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에도 나오는 용어로서, 모두 당시의 왕인 성덕왕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표현된 ‘국주대왕’도 이 비가 세워질 당시의 신라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문왕(神文王)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석의 제3면은 글자의 크기가 작고, 글씨 모양도 달라 추기(追記)로 추정되었다. 절을 지을 때 혹은 이 비를 세울 때에 기부(寄附)를 했거나, 공역(工役)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직과 이름을 새긴 것이라 이해하였다. 임창순 선생은 제3면으로 보았으나, 이병도 선생은 제2면으로 판단하였다.

## ○ 지정사례

「新羅碑」의 國家文化財 指定事例는 다음과 같다.

- 국보 제198호 丹陽 新羅赤城碑<眞興王 11(550)> 1979.05.22
- 국보 제242호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524)> 1988.11.04.
- 국보 제264호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503)> 1991.03.15.
- 국보 제318호 浦項 中城里 新羅碑<智證王 2(501)> 2015.04.22. 등

## ○ 문헌자료

- 이병도, 「西原 新羅寺蹟碑에 대하여」, 『湖西文化研究』 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編, 1983.)
- 임창순, 「淸州 雲泉洞 發見 新羅寺蹟碑 淺見 二三」, 『湖西文化研究』 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編, 1983.)

- 차용걸, 「清州 雲泉洞 古碑 調査記」, 『湖西文化研究』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編, 1983.)
- 김정숙, 「清州雲泉洞寺蹟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2. (韓國古代史會研究所 編, 1992.)

## □

### ○ 현 황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清州雲泉洞 新羅寺蹟碑>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清州雲泉洞 新羅寺蹟碑 / [製述者不明] ; [書寫者不明] ; [刻者不明]. -- 石板.  
 -- [製作地不明] ; [製作處不明], [新羅 神文王 6(686) 推定].  
 1基(殘片) ; 세로 92.0 × 가로 91.0 × 두께 15.0~20.0 cm.

狀 態: 네모난 형태의 세로 92.0 × 가로 91.0 × 두께 15.0~20.0 cm의 花崗巖 殘片의 兩面에 15行17~19字의 北朝風의 楷書體로 陰刻된 碑로 碑의 크기에 비해 글자가 크다.

內 容: 碑文의 內容은 정확히 判讀하기 어려우나 도합 160자 정도가 判讀되고 있으며, 대체로 佛法을 讚揚하고 國王의 德을 稱頌하며 三國統一의 偉業을 기리는 護國佛敎의 內容을 담으면서 寺刹의 創建에 관련된 內容이다.

傳來歷: 1982년에 발견되기까지 忠淸北道 淸州市 雲泉洞 산직마을의 공동우물터에서 빨랫돌로 사용된 탓에 글자가 많이 닳아 있으며 현재 비의 밑부분만 남아 있다. 도살용 깔판으로도 사용되어 도끼자국 등에 의해 패인 곳과 마멸된 곳이 많아 관독에 어려움이 있다. 1983년 11월 30일에 忠淸北道 有形文化財 제134호로 지정되어 현재 國立淸州博物館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 □ 現 狀 :

調査文化財 <清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1982년 발견 당시 忠淸北道 淸州市 雲泉洞 속칭 산직마을의 공동우물터에서 빨랫돌로 사용되던 것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어 1983년 11월 30일에 忠淸北道 有形文化財 제134호로 지정된 이래 國立淸州博物館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清州雲泉洞 新羅寺蹟碑>의 현재 상태는 네모난 형태 의 花崗巖碑 의 밑부분만 남아 있으며 마멸된 곳이 많아 관독에 어려움이 있다.

### ○ 내용 및 특징



寺蹟碑는 사찰의 어떠한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취를 기록한 것이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忠淸北道 淸州市 雲泉洞에서 발견된 新羅 中代의 碑로 淸州地方에 있던 어느 寺刹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殘片의 규모는 세로 92.0cm 가로 91.0cm 두께 15.0~20.0cm의 네모난 형태이다. 原碑의 너비가 현재 남아 있는 碑片의 너비 그대로라면, 原碑의 높이는 2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 螭首와 龜趺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1982년 발견되기까지 忠淸北道 淸州市 雲泉洞 속칭 산직마을의 공동우물터에서 빨랫돌로 사용된 탓에 글자가 많이 닳아 있으며, 도살용 갈판으로도 사용되어 도끼자국 등에 의해 패인 곳이 많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의 碑文은 北朝風의 楷書體 正字로 陰刻되어 있으며, 碑의 크기에 비해 글자가 크다. 본래 주위에 장곽선을 두른 흔적이 보이나 井間을 친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의 碑文은 알아보기 어려우나 도합 160자 정도가 判讀되고 있다. 碑文의 내용은 대체로 佛法을 讚揚하고 國王의 德과 戰爭의 慘禍가 끝난 뒤의 三國統一의 偉業을 稱頌하고 기리며, 영토의 확장과 國泰民安을 기원하는 護國佛敎의 내용을 담으면서 동시에 寺刹의 創建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가운데 儒·佛에 관한 요소가 다 들어 있어 新羅 中代 王室의 思想政策은 佛敎로 하여금 儒學을 포용하는 政策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의 碑文의 中間에 “垂拱二年歲次丙戌”이라는 年號와 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中國 唐朝 則天武后時代의 年號와 干支로, 本碑는 統一新羅時代 神文王 6(686)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統一新羅時代 당시 忠淸道 淸州地域이 行政·軍事·文化的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重要한 資料일 뿐 아니라 統一新羅의 政治的·經濟·文化的 內容을 研究하고 確定할 수 있는 重要한 자료가 될 수 있어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淸州雲泉洞 新羅寺蹟碑>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현황

<新羅碑>의 國家文化財 指定事例는 다음과 같다.

- 국보 제198호 丹陽 新羅赤城碑<眞興王 11(550)> 1979.05.22
- 국보 제242호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524)> 1988.11.04.
- 국보 제264호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503)> 1991.03.15.
- 국보 제318호 浦項 中城里 新羅碑<智證王 2(501)> 2015.04.22 등

## ○ 문헌자료

- 李丙燾, “西原 新羅寺蹟碑에 대하여”. 『湖西文化研究』 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編, 1983.)
- 임창순, “淸州 雲泉洞 發見 新羅寺蹟碑 淺見 二三”. 『湖西文化研究』 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編, 1983.)
- 차용걸, “淸州 雲泉洞 古碑 調査記”. 『湖西文化研究』 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編, 1983.)
- 김정숙, “淸州雲泉洞寺蹟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2. (韓國古代史會研究所 編, 1992.)

## □

### ○ 현 상

운천동사적비에 대해서는 발견에 관여하였던 車勇杰 교수의 논문 「청주 운천동 고비 조사기」 그리고 任昌淳의 碑身의 想定과 판독 그리고 비의 가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한 「청주 운천동 발견 신라사적비 淺見二三」의 논문 등에서 이미 그 실상이 드러난 바이다.

화강암의 비석으로 아랫부분이 잘려져 나가 거의 정방형 (높이 91.5cm, 너비 91, 두께 17.5cm)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1982년에 발견될 당시 빨래판으로 쓰여 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뒷면에는 도살용 또는 절구대용으로 사용한 움푹 패인 흔적도 나타난다.

글씨는 앞면과 뒷면에 걸쳐 15행이 새겨져있으며 좌측면에도 전후보다는 약간 작은 3행의 글씨가 있다. 당시 임창순 이병도 황수영 김영태 허홍식 등의 판독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당의 연호 垂拱을 壽拱으로 잘못 쓴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찬자의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공 2년은 686년으로 통일신라 神文王 6년이다.

또한 이 비는 사적비로서 당풍의 비의 형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임창순은 무열왕비의 비신이 없어졌음을 비추어보면 이 비가 형식을 갖춘 最古의 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글씨크기도 사택지적비 보다는 작지만 여타의 보편적인 비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 ○ 내용 및 특징

수나라가 618년에 망했음을 보면 이 비의 글씨는 그로부터 70년 정도 이후에 쓰여 새겨진 것이다. 그 사이에 당의 영향을 받음이 적지 않았겠지만 이 비에서 초당서풍의 기식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라의 토속적 기질의 유풍과

남조 유풂의 특징이 각 필법에서 더 많이 보인다.

물론 마모로 인하여 필획이나 필세가 뭉그러진 현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중한 필치에 복위 유풂과 같은 활달함도 함께 나타난다. 그 이후 초당의 영향을 받아 차츰 구양순풍의 일색으로 변모해가는 과도기적인 글씨로서 중요한 서예사적 자료라고 사료된다.

### 3. 단산오옥명 먹(丹山烏玉銘 墨)

#### 가. 검토사항

‘단산오옥명 먹’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11.24)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단산오옥명 먹(丹山烏玉銘 墨)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수 량: 1매(殘片)
- 규격(cm): 세로 11.2 × 가로 4.0 × 두께 2.9
- 재 질: 고려묵(高麗墨)
- 제작연대: 고려시대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세로 11.2cm 가로 4.0cm 두께 2.9cm의 長方形에 2片으로 분리된 高麗墨으로 龍紋과 波狀紋 등의 文樣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三國時代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記錄文化가 융성하여 文房四寶의 발전도 매우 우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傳統의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삼국·고려시대의 古墨이 전래되는 것도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조선시대의 古墨도 전래되는 것이 흔하

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우리나라 高麗時代의 우수했던 고려먹의 양상을 窺見할 수 있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傳統墨의 研究는 물론 傳統製墨法의 研究에도 매우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遺物이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여러 측면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文化財名은 <丹山烏玉銘 高麗墨>이 합당할 듯하다.

○

이 단산오옥명묵은 고려시대의 먹으로서 또 무덤에서 출토된 최초의 것으로서 매우 귀중한 먹이다. 또한 먹의 세련된 외양이나 고려먹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점에서 당시의 먹의 보편적인 쓰임과 製墨의 기술 등을 추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지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

조사문화재 “丹山烏玉”은 세로 11.2cm 가로 4.0cm 두께 2.9cm의 장방형 먹으로 용 문양과 파장 문이 있는 먹이다.

먹은 문방사우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송연 먹의 경우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중요한 약재이며 현재도 약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먹이 제조된 것으로 보지만 아쉽게도 제대로 된 유물이 전해지지 않았고 문헌상에도 조선 후기부터 먹 제조에 관한 기술이 나오지만 식민지 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전통먹의 제조법이 단절돼 있었다.

심지어 지금 현재도 전통먹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단산오옥은 고려시대 우수했던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단절된 전통먹의 연구를 이어주는 귀중한 자료로 본다.

따라서 단산오옥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물 지정예고함.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먹”으로 명칭함.

## 조사보고서



### ○ 현황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丹山烏玉] / [製作者 不明]. -- 高麗墨. -- [丹陽] : [製作處不明], [高麗時代 推定].  
1枚(2片) ; 세로 11.2 × 가로 4.0 × 두께 2.9 cm.

墨 種: 高麗墨

出 土: 忠淸北道 淸州市 明岩洞 41-1 (1號 高麗墓)

文 樣: 龍紋·波狀紋

銘 文: 丹山烏[玉]

狀 態: 전체 1枚가 2片으로 分離되고 部分的으로 破損되어 있어 차후 墨匠  
등의 專門家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傳來歷: 2000-2001년間に 國立淸州博物館이 淸州東部右回道路 建設區間인 忠  
淸北道 淸州市 龍潭洞과 明岩洞 41-1의 소재의 第1號 高麗 石槨墓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出土되어 현재 國立淸州博物館에 의하여 所藏·維  
持·管理되고 있다

評 述: 文化財名은 <丹山烏玉銘 高麗墨>이 합당할 듯하다.

□ 現 狀 :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2000-2001년間に 國立淸州博物館이 淸州東部右回道路  
建設區間인 忠淸北道 淸州市 龍潭洞과 明岩洞 41-1의 소재의 第1號 高麗 石槨  
墓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出土되어 현재 國立淸州博物館에 의하여 所藏·維  
持·管理 되고 있는 고려적이다.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의 현재 상태는 전체 1枚가 2片으로 分離되고 部分的으  
로 破損되어 있어 차후 墨匠 등의 專門家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傳統 墨은 어떤 종류의 炭粉(그을음)이든 阿膠와 섞어서 固體로 제조한 墨塊를  
凡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傳統 墨은 그 주성분에 따라 그 성질이나 품질이 달  
라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주성분인 炭粉의 종류에 따라 松烟墨과 油煙墨으로 대별  
된다.

松烟墨은 소나무를 태운 炭粉과 아교를 섞어서 固體로 굳혀서 제조한 墨으로

‘숯먹’ 또는 ‘개떡’이라고도 한다. 松烟墨의 주원료인 松烟의 炭素粒子는 油煙의 탄소입자보다 크며, 不純物의 영향으로 인하여 色의 변화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松烟墨에도 油煙墨에 비해 약간의 불순물이 더 섞여 있으므로 墨色이 厚朴하며 빛의 반사가 적고 色彩를 흡수하는 편이라 검은 색이 강한 것이다. 또한 松烟墨은 오래되면 靑墨化되기도 한다. 筆寫用으로는 油煙墨보다 松烟墨이 더 적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松煙墨은 平安道の 陽德에서 생산된 것이 유명하였는데, 그 精品은 墨色이 鮮光하고 膽氣가 香淡하였다.

油煙墨은 植物性이나 動物性 및 鑛物性의 기름을 태운 炭粉과 阿膠를 섞어서 고체로 굳혀서 제조한 墨으로 ‘참떡’이라고도 한다. 油煙墨은 宋朝에서 개발되어 繪畫의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번짐의 효과가 없는 松烟墨에 비해 번짐이 효과가 좋은 유연묵이 나오면서 그 효과를 그림에도 나타낼 수 있었던 때문이었다. 四君子나 山水畫 등에서 沒骨法이나 苔法 등으로 墨色의 農談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油煙墨의 덕택이었던 것이다. 油煙墨이나 唐墨은 글씨를 쓰는 데는 좋았으나, 木版을 印出하는 데에는 번지고 희미하여 松烟墨만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三國時代에 이미 墨이 사용되고 있었음은 高句麗가 松烟墨을 唐에 歲貢으로 바쳤다(陶宗儀, 『輟耕錄』. 卷第29. 墨條.)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또한 陸友(?~?, 元朝人)의 『墨史』에서 “高麗가 進貢한 墨은 猛州(平安南道 孟山の古稱)의 것이 가장 좋고 順州(平安南道 順天의古稱)의 것이 그 다음이며… 그 墨을 어떤 것은 平虜城(平安南道 永柔 북쪽 35리에 있었던 古城)에서 進貢된 墨이라 하였으며 어떤 것은 順州 혹은 猛州에서 進貢된 墨이라 하였다”<sup>11)</sup>라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平安南道를 중심으로 하는 關西地方이 그 위치가 중국과 가까워 이곳에서 생산된 墨이 주로 중국으로 輸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墨 중에서는 ‘翰林風月’·‘草龍珠張’·‘芙蓉堂’·‘首陽梅月’ 등이 上品이었다. 忠北 丹陽地域에서 생산되었던 ‘丹山烏玉’이나<sup>12)</sup> 報恩의 福泉寺 부근에서 생산된 ‘福泉墨’도 良質의 墨이었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sup>13)</sup>

우리나라 傳統의 製墨法은 魚叔權(?~?, 朝鮮中期)의 『攷事撮要』,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 徐有渠(1764~1845)의 『林園十六志』 중의 <怡雲志>, 辛仲厚(敦復, 1692~1779)의 『東國厚生錄』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魚叔權의 『攷事撮要』에 수록된 <韋仲將合墨法>과 <俗例造墨法> 및 洪萬選의 『山林經濟』에는 수록된 松烟墨의 제조법 등을 要約하거나 轉載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傳統의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으나, 현대에

11) 陸友, 墨史. 卷下. 高麗條.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高麗貢墨 猛州爲上 順州次之 … 往時潘谷嘗取高麗墨 再杆入膠 遂爲絕等 其墨 有曰平虜城進貢者 有曰順州貢墨 或曰猛州貢墨.

12)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 淸州: 泰一文化社, 2003. pp.28-30.

13) 徐居正 著, 『四佳詩集』. 第50卷. 詩類. ‘謝忠淸金監司礪石送福泉妙墨’條.

福泉烏玉品多奇 十笏分來喜可知 珍重文房堪作寶 摩挲病腕興臨池.

들어서 관심이 있는 墨匠들에 의해 傳統的인 製墨法이 復元되고 있는 중이다.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2000-2001년間に 國立清州博物館이 清州東部右回道路 建設區間인 忠淸北道 清州市 龍潭洞과 明岩洞 41-1의 소재의 第1號 高麗 石槨墓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出土된 고려먹이다. <丹山烏[玉]>은 당시 무덤에서 처음 발굴되었을 때, 아래 부분이 갈려 있고 먹집게로 짚은 흔적이 있어 실제 사용되던 墨을 무덤에 넣었음을 알 수 있다.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의 ‘丹山’은 忠淸道 丹陽을 지칭하며, ‘烏玉’은 蘇軾(1037~1101)의 <孫莘老寄墨> 詩에 “근자에 唐夫子께서 멀리 烏玉玦을 보내 주셨네”<sup>14)</sup>라고 한 데서 온 墨의 別稱인 ‘烏玉玦’의 略稱이다. 따라서 前面에 있는 ‘丹山烏玉’은 ‘丹陽 墨’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는 「世宗實錄」이나 「東國輿地勝覽」 등에서 “丹陽郡은 본래 高句麗의 赤山縣인데 新羅 때에 그대로 따라 柰堤郡의 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때 丹山縣으로 고치었다 … 土産은 山芥·松茸·辛甘草·墨<가장 좋은 墨을 ‘丹山烏玉’이라 한다> 등이다”<sup>15)</sup>고 기록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밖에도 忠淸道에는 報恩의 法住寺 부근에 福泉寺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福泉墨’도 良質의 좋은 墨이었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sup>16)</sup>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세로 11.2cm 가로 4.0cm 두께 2.9cm의 장방형에 2片으로 분리된 高麗墨으로 龍紋과 波狀紋 등의 文樣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三國時代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記錄文化가 융성하였던 결과 文房四寶의 발전도 매우 우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傳統的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삼국·고려시대의 古墨이 전래되는 것도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조선시대의 古墨도 전래되는 것이 흔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우리나라 高麗時代의 우수했던 고려먹의 양상을 窺見할 수 있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傳統墨의 研究는 물론 傳統製墨法의 研究에도 매우 귀중하게 活用될 수 있을 遺物이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여러 측면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文化財名은 <丹山烏玉銘 高麗墨>이 합당할 듯하다.

## ○ 문헌자료

- 春秋館 編, 「世宗實錄」, 卷第149. <地理志>. 忠淸道 丹陽.
- 朴文烈, “오프셋印刷用 傳統 油煙墨의 開發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

14) 蘇軾, 「蘇東坡詩集」, 卷25. ‘孫莘老寄墨’條.  
近者唐夫子 遠致烏玉玦.

15) 春秋館 編, 「世宗實錄」, 卷第149. <地理志>. ‘忠淸道丹陽’條.  
丹陽郡本高句麗赤山縣 新羅因之爲柰堤郡領縣 高麗改爲丹山縣…土産山芥松茸辛甘草墨<最良號爲丹山烏玉>.

16) 徐居正 著, 「四佳詩集」, 第50卷. 詩類. ‘謝忠淸金監司礪石送福泉妙墨’條.  
福泉烏玉品多奇 十笏分來喜可知 珍重文房堪作寶 摩挲病腕興臨池.



- 究」. 第55輯(2013, 09). pp.5-38.
- 朴文烈, “오프셋印刷用 傳統 松烟墨의 開發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06). pp.5-42.
  - 朴文烈, “印出用 松烟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42輯(2009, 06). pp.227-266.
  - 朴文烈, “印出用 油煙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40輯(2008, 09). pp.5-45.
  - 朴文烈, “韓國 傳統 墨의 製造法에 관한 研究”. 「韓國圖書館·情報學會誌」. 第39卷 第3號(2008, 09). pp.457-477.
  - 朴文烈, 「金屬活字匠」. 大田: 文化財廳, 2001.
  -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 清州: 泰一文化社, 2003.
  - 徐有渠, 「林園十六志」.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1980. 怡雲志3. 文房雜製. ‘東墨法’條.
  - 辛敦復 著, 「(東國)厚生錄」.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1862頃]. 卷下. ‘造墨’條.
  - 魚叔權 著, 「攷事撮要」. 戊申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肅宗 1(1675). 卷下. ‘韋仲將合墨法’條, ‘俗例造墨法’條.
  - 鄭玄 註, 「周禮」. 影印本. ([刊行地不明]: [永懷堂], [刊行年未詳]). 冬官. ‘考工記’條.
  - 韓尙默, 「松烟墨」. 서울: 書藝文人畫, 2007.
  - 韓尙默, 「尙墨」. 서울: 月刊 書藝文人畫, 2005.
  - 洪萬選 著,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造膠法’條, ‘造墨’條.
  - 計楠 著, 「墨餘贅稿」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麻三衡 著, 「墨志」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著, 「論古今墨論」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著, 「論墨」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著, 「墨表」2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宋肇 著, 「漫堂墨品」3卷, 「附墨論」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宋應星 著, 董文 校, 「校正天工開物」. 中國學術名著 第5輯. 學術叢編 第2集 第1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68(1979).
  - 沈繼孫 著, 「墨法集要」1卷, 序 1卷, 目錄 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楊家駱 主編, 「文房四寶」. 中國學術名著 第5輯. 學術叢編 第1集 第31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魚叔權, 「稗官雜記」卷4.
- 陸友, 墨史 3卷, 目錄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晁貫之, 墨經 1卷, 目錄 1卷, 提要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何遠, 墨記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李謙魯, 文房四友. 서울 : 대원사, 1997.
- 이영재, 먹. 「生活文物研究」. 제4호.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2002.
- 張仁熙, 雪堂墨品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정승웅, 천진기, 박찬욱 공편, 먹. 「文房四友調查報告書」. 서울 : 國立民俗博物館, 1999.

## □

### ○ 현 황

단산오옥명목은 충북 청주시 명암동 고려묘에서 출토된 길이 11.2cm 너비 4cm 두께 0.9cm의 고려먹이다. 발굴일자는 1998년 5월 28일이다.

반으로 동강나 있는 이 먹은 앞면에는 테두리 안에 중첩된 波狀文이 드러나 있고 중앙에는 윗부분을 뾰족히 처리한 장방형의 세로 테두리 안에 ‘丹山烏’ 세자가 돌출되어 있다. 烏자 아래 ‘一’字획이 암아 있는데 이는 玉자로 추단된다. 여기서 丹山은 옛 단양의 명칭이며 烏玉은 먹의 별칭이다.

뒷면에는 비룡의 문양이 도드라져 있다.

이 먹을 통하여 단양 일대에 예부터 벼루생산과 더불어 製墨의 본거지임도 가늠어 볼 수 있다.

### ○ 내용 및 특징

- 銘의 필체

글씨의 체는 고려에 주종을 이루었던 구양순의 유풀이다. 비록 가는 필선이기는 해도 遒勁함과 단아한 풍모에서 고려의 기식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

## □

### ○ 현 상

조사문화재 단산오옥은 2000~2001년간 국립청주박물관이 청주 동부 우회도로 건설구간인 충청북도 청주시 명암동 41-1의 소재의 제1호 고려 석곽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어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 관리되고 있다.

단산오옥의 현재 상태는 발굴 당시 2편이었으나 이후 여러 조각으로 균열이 진

행되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서 전문적인 보존처리 되어 국립청주박물관서 전시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전통떡은 그을음과 아교를 섞고 수만 번의 반죽을 해서 제조되고 최소 6개월의 건조를 거치면서 고형화 되는 것이며 제조 과정에서 재료로 쓰는 아교의 끈끈한 냄새를 없애고자 향료를 첨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떡은 주성분인 그을음의 종류에 따라 송연떡과 유연떡으로 분류 되는데 송연떡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포집하여 아교와 섞어서 만드는데 입자의 크기가 50~300나노로 입자가 크고 입자간 인력과 정전기력이 커서 커다란 클러스트 형태로 응집되어 있어 단단한 느낌을 준다

유연떡은 식물성 기름을 태운 그을음으로 아교를 섞어서 만드는데 입자의 크기가 20~50나노 크기로 입자가 작아 떡 제조시 뭉치기가 힘들며 송연떡 보다 수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 유연떡은 반죽시 수분이 더 들어 감으로 건조 과정서 송연떡 보단 유연떡이 수축력이 더 크지만 부드럽게 갈리고 강도는 송연떡 보단 약하다. 이러한 잘 뭉쳐지지 않는 유연떡의 제조상 특징은 건조된 완성품 떡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 반죽한 떡을 치대야 떡의 표면이 깨끗해 지는데 치대는 시간과 된 반죽과 진 반죽 등에 따라 떡의 표면에 마치 얼굴의 여드름 같이 울록불록 튀어 나오는 돌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유연떡은 일본서는 주로 떡 표면을 연마해서 없애고 중국은 많은 문양을 넣거나 금박 등으로 싸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전의 떡이 전해지지 않아서 형태를 몰랐었다

떡이란 유물 자체가 없이 문서상에만 존재 했다. 단산오옥의 발굴은 이러한 고려떡이 존재 했으며 과거의 고려떡이 어떤 특징을 보여 주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떡 표면에 울록불록한 돌기가 있고 많은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일본 정창원에 있는 신라 떡이나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조선 후기 떡을 보면 문양이 단출하고 표면도 깨끗하며 단산오옥과는 다른 모양새다.

단산오옥명 떡이 성분 분석이 안되어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송연과 유연이 섞인 형태로 제조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한중일 삼국중 최초이고 고려떡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본다.

따라서 단산오옥은 우리나라 전통떡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이러한 고려의 떡 기술이 있었기에 직지와 같은 금속활자 인쇄술이 가능 했던 것으로 사료된 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

### ○ 문헌자료

\*한상묵. “尙墨” 서울 ; 月刊 書藝文人畫, 2005

- \*한상묵, “松烟墨” 서울 ; 書藝文人畫, 2007
- \*한상묵, “수용성 먹의 분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안성 한경대 화공과, 2003
- \*이겸노, “문방사우” 서울 ; 대원사, 1989
- \*정종미, “색과칠” 서울 ; 학고재, 2001
- \*이영재, “生活文物研究” 제4호,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2002
- \*周紹良, “淸墨談叢” 중국 ; 紫禁城出版社, 1999
- \*松井茂雄, “墨” 일본 ; 日貿出版社, 1983



단산오옥명 먹



단산오옥명 먹

## 4. 추사 김정희 서신(秋史 金正禧 書信)

### 가. 검토사항

‘추사 김정희 서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환수문화재 소장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신청을 받음
- 이와 관련, 과천 추사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9.1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11.1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경기도 유형문화재 244호(2010.09.08.)
- 명 칭: 추사 김정희 서신(秋史 金正禧 書信)
- 소유자(관리자): 과천시추사박물관(과천시추사박물관)
-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3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추사로 78 추사박물관
- 수 량: 3종 23통
- 규격(cm): 목록 참조
- 재 질: 종이
- 제작연대: 1827년~1855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내용에서 드러나는 김정희의 생활상과 글씨에서의 예술성을 접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는 충분하지만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의 대표성으로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만일 지정될 경우 추사 본인의 다른 간찰집과는 물론 여타 문인의

간찰집과 비슷한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어 형평성으로부터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한 바임을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

조선 후기 정치사, 사회사, 인물사 연구에 있어서 추사 김정희의 간찰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희 자신의 서예와 학문과 생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자신이 쓴 간찰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오늘 날 전하는 김정희의 친필 간찰은 그 수량이 적지 않다. 각종 전시회에 전시되었던公私의 수장품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 중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을 가질 만한 것도 없지 않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동일 인물 등에게 보내 편지가 10~20통 썩 한 데 장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김정희 친필 간찰은 희소성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는 간찰이지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 1) 편지의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증명 혹은 번복할 만큼 희소성이 있는 편지는 아니다. 즉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김정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그의 일상과 학문세계를 탐색하는 데 참고가 될 뿐이다.
- 2) 書藝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미 이 정도 서체의 간찰 혹은 행초서 작품은 학계나 서예계에 공개된 것이 많다. 이 작품들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달리 김정희의 글씨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정부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김정희 글씨의 진정한 예술적 가치는 행초서가 아니라 예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자 행초서로 쓴 이 간찰의 서예적 가치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만큼 높지는 않다고 본다.
- 3) 현존 김정희 글씨의 수량과 각 작품 간의 형평성 면에서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서예적 가치는 물론 학문적, 자료적 가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이들 간찰보다 우수한 간찰 혹은 작품이 적지 않다. 따라서, 만약 이들 간찰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간찰을 다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 부단과 이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 4) 다른 인물들의 간찰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김정희가 뛰어난 서예가이기는 하지만 ‘간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정희의 이 간찰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나은 것도 적지 않다. 그런 많은 간찰들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희의 간찰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칫 ‘특별한 한 사람’을 추앙하는 나머지 미술사를 왜곡하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판단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간찰들이 갖는 가치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심의위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 ○

김정희의 간찰은 그의 생전에도 이름이 있었다. 글씨가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투석을 따르지 않고 造語 능력이 출중했다. 김정희는 말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저작을 불태웠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저작이 적었다. 사후에 문집이 『완당척독』이란 이름으로 간행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정희의 편지글은 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현전하는 김정희의 친필 간찰 또한 그 수량이 적지 않다. 각종 전시회에 등장했던公私의 수장품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10~20통 정도가 장첩되어 있는 경우도 여럿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에서 살펴본 김정희 친필 간찰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김정희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그의 일상과 학문세계를 탐색하는 데 참고가 될 뿐이다.

둘째, 書法적 측면에서도 김정희의 글씨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희의 글씨를 추사체라 일컫지만 추사체의 핵심은 隸書에 있지 간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김정희 글씨간의 형평성의 문제다. 글씨나 내용만으로 볼 때도 이보다 훨씬 뛰어난 김정희의 작품들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기증품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한다면 나머지도 모두 지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넷째, 다른 인물들의 간찰과의 형평성의 문제다. 김정희가 뛰어난 서예가지만 간찰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에 버금가는 인물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의 편지글은 지정하지 않고 김정희의 편지글만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간찰들이 지니는 가치는 제한적이며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의 중요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마. 의결사항

### ○ 부 결

## 조사보고서

### □

#### ○ 조사내용

김정희의 간찰23통은 후지츠카 지카시의 아들이 기증한 것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244호이다. 조성년대는 1827년에서 1855년에 이르며 두 동생 김명희, 김상희에게 보낸 13통을 위시하여 이상적에게 보낸 4통 권돈인, 민태호에게 보낸 6통 등이다. 글씨로 볼 때 유배 이전의 40대 글씨로부터 해배이후에 이르기 까지 김정희 글씨의 변천을 접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간찰 모음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문건은 여타 조선의 중·후기 명가들의 경우에도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씨의 예술적 면에서도 김정희의 대표작이 될 만한 빼어남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김정희의 간찰 필적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 □

#### ○ 현황

- 추사 김정희가 두 동생(김명희, 김상희)에게 보낸 간찰 13통
- 추사 김정희가 그의 제자 이상적에게 보낸 간찰 4통
- 추사 김정희가 친구 권돈인, 민태호에게 보낸 간찰 6통

#### ○ 내용 및 특징

##### 1. 두 동생(김명희, 김상희)에게 보낸 간찰 13통

- 김정희가 두 아우인 金命禧와 金相禧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시기적으로는 김정희의 생부 김노경이 1830년 10월에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어 고금도로 유배되는데, 그 이전에 쓴 편지들이다. 연대로 보서는 1827년부터 1830년까지 4년에 걸쳐 쓴 편지이다. 피봉이 모두 남아 있고 ‘思無邪’라는 套書까지 찍혀 있어 편지로서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는 두루마리 형태로 장황하여 보관되고 있다.

- 대부분 안부를 묻는 내용이고 약처방, 정계 상황 등에 관한 내용도 더러 보이나 당시의 사회상이나 정치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은 없다. 전체적으로 김정희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다.

-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으나 김정희 나이 40대 초중반의 글씨라는 점에서 김정희 서예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데는

적잖이 도움이 된다. 특히 김정희 편지 글씨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간찰에 어울리는 글씨체이다. 김정희 편지 글씨의 특징을 살피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권돈인, 민태호에게 보낸 간찰 6통

- 받는 사람에 대한 칭호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글의 내용으로 보아 권돈인과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현재는 두루마리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 尙古堂 金光遂(1699-1770)가 가지고 있던 저수량 임모본 <난정첩> 탁본을 권돈인이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편지 격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추신으로 급하게 쓴 편지라고 여겨진다.
- 5통의 편지에는 수신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수신처가 ‘梅洞’, ‘梅答’으로 되어 있어 수신자가 동일인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 한 편이 『완당선생전집』 권2에 <與閔侄台鎬>란 제목으로 실려 있어 수신자가 민태호임을 알 수 있다. 민태호는 김정희 고모의 손자로서 김정희에겐 조카뻘 되는 인물이다. 안부를 묻고 글씨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며 책과 그림을 빌려달라는 내용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 이들 편지는 김정희가 과천에 머물던 말년에 쓴 것이다. 김정희 노년 편지 글씨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이상적에게 보낸 간찰 4통

- 본 편지 4통과 어떤 편지에 끼워 보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추신 1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지임에도 편지를 쓴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아 쓴 연대를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으나 ‘老果’, ‘果函’이는 자칭과 서체상의 흐름으로 볼 때 말년 과천시절에 써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 차가 동이 났다며 차들 보내달라는 내용, <石罏詩>에 대한 칭찬, 위장에 탈이 생겨 잘 먹지 못하고 있으니 입맛 당길 먹을 만한 걸 좀 보내달라는 내용 등이다. 추신에는 청나라의 董基誠, 李兆洛, 馮晏海의 글과 저술에 대해 조사해서 알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정희의 학구적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나 이러한 점은 이미 다른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밝혀진 상태이므로 이 편지가 특별할 것은 없다고 본다.
- 역시 김정희의 글씨가 원숙한 시기인 과천시절의 글씨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희소성이 있는 자료는 아니다.



### ○ 조사내용

(1) 두 동생(김명희, 김상희)에게 보낸 간찰 13통

- 김정희가 두 아우인 金命禧와 金相禧에게 보낸 편지들 두루마리 형태로 장황한 것이다. 1827년부터 1830년까지 4년에 걸쳐 쓴 편지로서 피봉이 모두 남아 있고 ‘思無邪’라는 套書까지 찍혀 있어 편지로서는 완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 편지 내용은 대부분 안부를 묻는 내용이고 약처방, 정계 상황 등에 관한 내용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김정희의 소소한 일상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김노경이 1830년 10월에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어 고금도로 유배되는데, 그 이전에 쓴 편지들이다.
-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없고 김정희 40대 초중반 편지 글씨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김정희 편지 글씨의 변천과정을 살피는데 참고가 된다.

### (2) 이상적에게 보낸 간찰 4통

- 편지 4통과 어느 편지에 함께 보낸 추신 1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老果’, ‘果函’이란 표현이나 글씨로 볼 때 말년 과천시절에 써 보낸 것들이다.
- 차가 떨어졌다며 차들 보내달라는 내용, <石磬詩>에 대한 칭찬의 내용, 위가 좋지 않아 통 먹질 못하고 있으니 먹을 만한 걸 좀 보내달라는 내용 등이다. 추신으로 보낸 편지에는 청나라의 董基誠, 李兆洛, 馮晏海의 글과 저술을 알아 봐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김정희 편지 글씨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과천시절의 글씨라는 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편지들이다.

### (3) 권돈인, 민태호에게 보낸 간찰 6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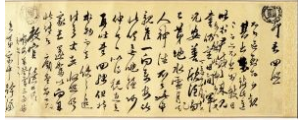






-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되는 한 통과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되는 5통의 편지를 두루마리 형태로 장황한 것이다.
- 저수량이 임모한 <난정첩>을 아주 좋아 했던 김정희는 尙古堂 金光遂 (1699-1770)가 가지고 있던 저수량 임모본 <난정첩> 탁본을 아주 소중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배객으로 떠돌던 그는 탁본첩을 분실하였고, 십 수년이 지나도록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권돈인이 그 탁본첩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빌려달라며 쓴 편지이다. 편지 격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느 편지에 딸려 보낸 추신이거나 탁본을 빌리기 위해 급하게 쓴 편지로 보인다.
- 민태호에게 보낸 5통의 편지에는 수신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수신처가 ‘梅洞’, ‘梅答’으로 되어 있어 수신자가 한 사람임을 알려준다. 특히 이 중 한 편이 『완당선생전집』 권2에 <與閔侄台鎬>란 제목으로 실려 있어 수신자가 민태호임을 알려준다. 민태호는 고모의 손자로서 김정희에겐 조카뻘이다. 안부를 묻는 내용에서 글씨 공부를 지도하는 내용, 책과 그림을 빌려달라는 내용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

- 이들 편지는 모두 김정희가 과천에 머물던 말년에 쓴 편지들이다. 노년의 김정희 편지 글씨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붙임>

### 추사박물관 추천 상세목록

번호	자 료 명	수량	물질·구조	시대	소 장 경 위	크기 (세×가로, cm)	사진
1-1	김정희 서신 (둘째아우에게 답함)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7	후지즈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5	
1-2	김정희 서신 (다시 교관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7~ 1830	후지즈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3	김정희 서신 (둘째 아우에게 답함)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8	후지즈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4	김정희 서신 (첫째 아우에게 답함)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7~ 1830	후지즈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5	
1-5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함)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8	후지즈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	
1-6	김정희 서신 (교관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8	후지즈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4.5	
1-7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함)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8	후지즈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4	

1-8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함)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9	김정희 서신 (교관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7~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5	
1-1 0	김정희 서신 (두 아우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5	
1-1 1	김정희 서신 (남책에게 전함)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8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7	
1-1 2	김정희 서신 (두 아우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27~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6	
1-1 3	김정희 서신 (교관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30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22	
2-1	김정희 서신 (권돈인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5×77	
2-2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38.5	

2-3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5×37.5	
2-4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39	
2-5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93.5	
2-6	김정희 서신 (민태호에게)	1점	지본묵서, 두루마리 (橫卷)	1855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75.5	
3-1	김정희 서신 (교상의 우선 에게)	1점	지본묵서, 족자 (簇子)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8×54	
3-2	김정희 서신 (중추부사 우 선에게)	1점	지본묵서, 족자 (簇子)	1852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4.5×77	
3-3	김정희 서신 (우선에게)	1점	지본묵서, 족자 (簇子)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3×42	
3-4	김정희 서신 (우선에게 추 신)	1점	지본묵서, 족자 (簇子)	1850 년대	후지츠카 아키나오 일괄 기증 (2006.1.1 6.)	22×40	



行去甲...  
 其止...  
 况安善...  
 已第地水...  
 人神...  
 親產一向...  
 此...  
 仲...  
 真吐...  
 本物...  
 付...  
 家...  
 此...  
 教官...  
 多...

相方便...  
 轉...  
 一...  
 攬...  
 願...  
 多...  
 質...  
 中...  
 終...  
 之...  
 不...  
 不...  
 尚...  
 其...

相洞傳史

追中...  
 董基誠...  
 何官...  
 麟...  
 驚...  
 博...  
 第...  
 等...  
 寬...  
 李...  
 世...  
 崇...  
 後...  
 福...  
 己...

二河...

## 5.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 가. 검토사항

‘해동제국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해동제국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3.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0호(2010.10.07.지정)
- 명 칭 : 해동제국기 (海東諸國紀)
- 소유자(관리자) : 안숙자(홍명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아파트 501동 103호
- 수 량 : 乾坤2책
- 규격(cm) : 세로 35.5(26.5) × 가로 21.7(17.2)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활자본(木活字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7세기초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세종 25(1443)년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성종 2년(1471)에 왕명을 받아 그가 직접 관찰한 일본(日本)의 지세(地勢)와 국정(國情) 및 교빙왕래(交聘來往)의 연혁(沿革), 사신관대예접(使臣館待禮接)의 절목(節目)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한 책이다.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한일관계(韓日關係)의 역사적 변천과 조빙응접(朝

聘應接)에 관한 규정(規程)의 연혁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정비(整備)되어 있어 교린관계(交隣關係)의 선규(先規)로서 오랫동안 참고가 되어온 귀중한 자료이다.

다만, 조사본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인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보다 100여년 후에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을해자체목활자(乙亥字體木活字)로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문화재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

「海東諸國紀」는 세종 25(1443)년에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叔舟(1417~1475)가 성종 2(1471)년에 王命을 받아 그가 직접 관찰한 日本의 地勢와 國情 및 交聘來往의 沿革, 使臣館待禮接의 節目 등 이른바 政治·外交·社會·風俗·地理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撰述한 서적이다.

「海東諸國紀」는 韓日關係의 歷史的 變遷과 朝聘應接에 관한 規程의 연혁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整備되어 있어 交隣關係의 先規로서 오랫동안 참고가 되어 왔으며, 특히 15세기의 韓日關係史와 日本의 政治·社會·風俗·地理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17세기 초기에 訓練都監에서 乙亥字體木活字로 刊行한 판본으로 保存狀態도 온전하다. 그러나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1)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의 初鑄甲寅字本 「海東諸國紀」보다 100여년 후에 訓練都監에서 乙亥字體木活字로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더욱이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所藏者 안숙자 등이 이미 數次에 걸쳐 國內의 여러 국가기관에 高額(15億원 10億원 등)으로 賣渡하려 하였던 履歷이 있는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따라서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0호(2010. 10. 07)를 유지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海東諸國紀」는 세종 25(1443)년에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叔舟(1417~1475)가 왕명으로 편찬하여 성종(成宗) 2년(1471)에 撰進한 책으로, 직접 관찰한 日本의 地勢와 國情 및 交聘來往의 沿革, 使臣館待禮接의 節目 등 이른바 政治·外交·社會·風俗·地理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편찬한 서적이다.

「海東諸國紀」는 韓日關係의 歷史적 變遷과 朝聘應接에 관한 規程의 연혁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정확한 기본 사료로, 오랫동안 韓日 交隣關係의 참고가 되어 왔으며, 특히 15세기의 韓日關係史와 日本의 政治·社會·風俗·地理 등

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본 「海東諸國紀」는 17세기 초기에 訓鍊都監에서 乙亥字體木活字로 刊行한 판본으로 保存狀態도 온전하다. 그러나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의 初鑄甲寅字本 「海東諸國紀」보다 100여년 후에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조사본 「海東諸國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대로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0호(2010. 10. 07)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조사보고서

## □

### ○ 書誌事項

海東諸國紀 / 申叔舟(1417~1475) 奉命撰. -- 木活字本. -- [漢城] : [訓鍊都監], [17世紀初 推定].

乾坤2冊 : 地圖, 四周雙邊, 半郭 26.5×17.2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5.5×21.7cm. 楮紙. 線裝(分冊改裝).

表題: 海東諸國紀

卷首題: 海東諸國紀

版心題: 海東紀

地圖名: <海東諸國總圖>(1枚), <日本本國之圖>(2枚), <西海道九州之圖>(1枚), <日本國壹岐島之圖>(1枚), <日本國對馬島之圖>(1枚), <琉球國之圖>(1枚) 등 7枚와 <熊川齊浦之圖>(1枚), <東萊富山浦之圖>(1枚), <蔚山鹽浦之圖>(1枚) 등의 三浦地圖 3枚.

內容: <序(申叔舟)>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聘應接紀>,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 <語音翻譯>(第124~127張)

卷頭序: 夫交隣聘問 撫接殊俗 必知其情 然後可以盡其禮 盡其禮 然後可以盡其心矣 我主上殿下命臣叔舟 撰海東諸國朝聘往來之舊 館穀禮接之例以來 臣受命祇栗 謹稽舊籍 參之見聞 圖其地勢 略敘世係源委 風土所尚 以至我應接節目 哀輯爲書以進 臣叔舟久典禮官 且嘗渡海 躬涉其地 島居星散 風俗殊異 今爲是書 終不得其要領 然因

是知其梗概 庶幾可以探其情酌其禮 而收其心矣 竊觀國於東海之中者非一 而日本最久且大 其地始於黑龍江之北 至于我濟州之南 與琉球相接 其勢甚長 厥初 處處保聚 各自爲國 周平王四十八年 其始祖狹野起兵誅討 始置州郡 大臣各占分治 猶中國之封建 不甚統屬 習性强悍 精於劍槊 貫於舟楫 與我隔海相望 撫之得其道 則朝聘以禮 失其道 則輒肆剽竊 前朝之季 國亂政紊 撫之失道 遂爲邊患 沿海數千里之地 廢爲榛莽 我太祖奮起 如智異·東亭·引月·兔洞 力戰數十 然後賊不得肆 開國以來 列聖相承 政清事理 內治既隆 外服卽序 邊氓按堵 世祖中興 值數世之昇平 慮宴安之鳩毒 敬天勤民 甄拔人才 與共庶政 振舉廢墜 修明紀綱 宵衣旰食 勵政圖理 治化既洽 聲教遠暢 萬里梯航 無遠不至 臣嘗聞待夷狄之道 不在乎外樣 而在乎內修 不在乎邊禦 而在乎朝廷 不在乎兵革 而在乎紀綱 其於是乎驗矣 益之戒舜曰 儆戒無虞 罔失法度 罔遊于逸 罔淫于樂 任賢勿貳 去邪勿疑 罔違道以干百姓之譽 罔拂百姓以從己之欲 無怠無荒 四夷來王 以舜爲君 而益之戒如是者 蓋當國家無虞之時 法度易以廢弛 逸樂易至縱恣 自修之道苟有所未至 則行之朝廷 施之天下 推之四夷 安得不失其理哉 誠能修己而治人 修內而治外 亦必無怠於心 無荒於事 而後治化之隆 遠達四夷矣 益之深意 其不在茲乎 其或捨近而圖遠 窮兵而黷武 以事外夷 則終於疲敝天下如漢武而已矣 其或自恃殷富 窮奢極侈 誇耀外夷 則終於身且不保如隨煬而已矣 其或紀綱不立 將士驕隳橫桃疆胡 則終於身罹戮辱如石晉而已矣 是皆棄本而逐末 虛內而務外 內既不治 寧能及外哉 有非儆戒無虞 無怠無荒之義矣 雖欲探情酌禮 以收其心 其可得乎 光武之閉玉門而謝西域之質 亦爲先內後外之意矣 故聲名洋溢乎中國 施及蠻貊 日月所照 霜露所墜 莫不尊親 是乃配天之極功 帝王之盛節也 今我國家 來則撫之 優其餼廩 厚其禮意 彼乃狃於尋常 欺誑眞僞 處處稽留 動經時月 變詐百端 溪壑之欲無窮 小拂其意 則便發忿言 地絕海隔 不可究其端倪 審其情僞 其待之也宜按先王舊例以鎮之 而其情勢各有重輕 亦不得不爲之厚薄也 然此瑣瑣節目 特有司之事耳 聖上念古人之所戒 鑑歷代之所失 先修之於己 以及朝廷 以及四方 以及外域 其於終致配天之極功無難矣 何況於瑣瑣節目乎 成化七年辛卯季冬 云云申叔舟 拜手稽首謹序。

卷 末：弘治十四年四月二十二日/啓下承政院

### ○ 現狀

조사본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소유자 안숙자의 남편이 구입(購入)한 것이라 전한다.

본래 불분권(不分卷) 1책이었으나, 현재 건곤(乾坤) 2책으로 분책되어 있다. 따라서 분책(分冊)으로 인한 표지(表紙)의 개장(改裝)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세종 25(1443)년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성종 2년(1471)에 왕명을 받아 그가 직접 관찰한 일본(日本)의 지세(地勢)와 국정(國情) 및 교빙왕래(交聘來往)의 연혁(沿革), 사신관대예접(使臣館待禮接)의 절목(節目)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한 책이다.

『해동제국기』의 ‘해동제국(海東諸國)’은 일본의 본국(本國)과 구주(九州) 및 대마도(對馬島)·일기도(壹岐島)와 유구국(琉球國)을 총칭하는 것이다. 찬술 당시의 내용은 「海東諸國總圖(해동제국총도)」(1枚), 「일본본국지도(日本本國之圖)」(2枚), 「서해도구주지도(西海道九州之圖)」(1枚), 「일본국일기도지도(日本國壹岐島之圖)」(1枚), 「일본국대마도지도(日本國對馬島之圖)」(1枚), 「유구국지도(琉球國之圖)」(1枚) 등 7枚의 지도와 「일본국기(日本國紀)」·「유구국기(琉球國紀)」·「조빙응접기(朝聘應接紀)」 등이었다. 그 뒤 2·3편의 추록(追錄)이 첨가되어 성종 4년(1473)에 「전산전부관인양심조케향일정서계(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와 「어음번역(語音翻譯)」(第124~127장) 등이 권말(卷末)에 부록(附錄)17)되었다. 그리고 이듬해(1474) 3월 예조좌랑 남제(南悌, 1452~?)가 삼포왜호(三浦倭戶)의 실화를 진흥할 때 왕명을 받들어 「삼포지도(三浦地圖)」를 모사하고 또 항거왜인(恒居倭人)의 호구를 조사한 결과로 만들어진 「웅천제포지도(熊川薺浦之圖)」(1枚), 「동래부산포지도(東萊富山浦之圖)」(1枚), 「울산염포지도(蔚山鹽浦之圖)」(1枚) 등 3매의 지도가 권두(卷頭)의 지도에 첨가·삽입18)되었다. 또한 연산군 7년(1501)년에 류구국의 사자가 우리나라에 내빙할 때 병조판서 이계동(李季叟, 1450~1506)의 건의로 선위사(宣慰使) 성희안(成希顔, 1461~1513)이 국정을 상문열기(詳問列紀)한 것이 책말(冊末)에 부록19)되었다. 이와 같이 수차의 추록이 있었으나 원래 내용에 대해 보수한 흔적은 없는 편이다.

17)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17世紀初 推定].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喻如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閣下之尊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紀其大概奉呈 成化九(1473, 成宗 4)年九月初二日啓.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5(1474)年 正月 27(癸丑)日條.

遣禮曹佐郎南悌于薺浦·釜山浦 饋失火倭人 賜米有差 因諭之曰 殿下聞汝等遭火災 特命臣存恤 又語之曰 汝等欲居內地 當給田以安之 汝欲仍居浦所 或欲還本島 任汝爲之 且汝等比比失火 備火器械 不可不嚴 區畫廬舍 勿令延燒 萬戶營廳 與爾居聯接 慮有延燒 欲築牆限之 以防火也 仍命悌與其浦僉使·本縣守令 同審營廳牆基 簽發水軍築之 嚴設門關 又命悌 因賑饋 以數倭戶丁口 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

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7(1501)年 正月 22(辛未)日條.

兵曹判書李季全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海東諸國紀」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夫交隣聘問撫接殊俗必知其情然後可  
 以盡其禮盡其禮然後可以盡其心矣我  
 主上殿下命臣叔舟撰海東諸國朝聘往來之  
 舊館穀禮接之例以來臣受  
 命祇栗謹稽舊籍參之見聞圖其地勢略叙  
 世係源委風土所尚以至我應接節目裒  
 輯為書以進臣叔舟久典禮官且嘗渡海  
 躬涉其地島居星散風俗殊異今為是書  
 終不能得其要領然因是知其梗槩庶幾  
 可以探其情酌其禮而收其心矣竊觀國

自鹽浦由永川竹嶺忠州楊根至京城十五日  
 程由水路慶州丹陽忠州廣州至京城十五日  
 程自蔚山至鹽浦三十里恒居倭戶三十六男  
 女并一百三十一寺社一  
 成化十年甲午三月禮曹佐郎南悌因饋餉  
 三浦付火倭人去圖來

내용 가운데 신숙주의 서문 번역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국교를 맺고 서로 예방하며 풍습이 다른 나라를 어루만지고 접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정세를 알아야 그 예를 다할 수 있고 그 예를 다 해야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신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에 대한 조빙(朝聘)으로 왕래한 연고와, 관곡(館穀)을 주어 예접(禮接)한 규례를 찬술하라 하시기에 신은 명을 받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옛 문헌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참고하여 그 지세를 그려서 대략 세계(世係)의 본말과 풍토의 숭상하는 바를 서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응접하던 절차까지 덧붙여서 편집하여 책을 만들어 올렸다. 신 숙주는 오래 예관의 관직을 맡았었고 또 일찍이 바다를 건너 그 땅을 답사해 보니, 여러 섬이 별처럼 분포되어 풍속이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 끝내 그 요령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그 줄거리만이라도 알게 되면 거의 그 정세를 더듬고 그 예를 짐작해서 환심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삼가 보건대 동해의 가운데 자리잡은 나라가 하나만이 아니나, 그중 일본이 가장 오래되고 또 크다. 그 지역이 흑룡강(黑龍江) 북쪽에서 비롯하여 우리 제주 남쪽에까지 이르고, 유구(琉球)와 더불어 서로 맞대어 그 지형이 매우 길다. 처음에는 곳곳마다 집단으로 모여 각기 나라를 세웠었는데, 주(周) 평왕(平王) 48년에 시조 적야(狄野)가 군사를 일으켜 모조리 쓸어버리고 비로소 주군(州郡)을 설치하여 대신들에게 맡겨 각각 나눠서 다스리게 하고, 중국의 봉건제도와 같이하여 그다지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습성이 강하고 사나워 칼 쓰기에 능하고 배 타기에 익숙하며, 우리와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처지이기에 잘 어루만져 주면 예로써 조빙(朝聘)하고 잘못하면 번번이 강탈을 자행하였다. 전조(前朝)의 말엽에 국정이 문란하여 어루만짐을 잘못하니 드디어 변방에서 난리를 일으켜 연해 수천 리의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 우리 태조께서 분연히 일어서서 지리산 동정(東亭) 인월(引月) 토동(兎洞)에서 수십 차례를 싸우고서야 왜적이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

우리가 개국한 이래로 여러 성군이 서로 계승하여 정사가 밝아져 나라 안을 잘 다스려 융성하게 되자 외적이 곧 순종하여 변방 백성이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세조께서 중흥하시어 여러 대를 태평하게 지난 나머지 안일이 독약보다 폐해가 더 심하다는 것을 염려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며, 인재를 발탁하여 여러 정사를 함께 행하고 폐해진 것을 진흥시키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밤중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새벽밥을 먹어가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일을 생각해서 어진 다스림이 이미 흡족하고, 교화가 멀리 퍼지니, 만리 밖에서도 험준한 산은

사닥다리를, 바다는 배를 이용하여 멀다고 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신은 일찍이 들으니 이적(夷狄)을 대우하는 방도는 외부를 단속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부를 닦는 데 있으며 변방의 방어에 있지 아니하고 조정에 있으며, 무력에 있지 아니하고 기강에 있다 하였는데, 그 말을 여기서 증험하였다. 익(益)이 순(舜) 임금을 경계하기를, “걱정이 없는 것을 경계하시어 법도를 잃지 마시고 안일에 빠지지 마시고, 풍악에 음탕하지 마시고 어진 이에게 맡겼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간사한 자를 제거하는 데 의심을 갖지 마시며, 백성의 찬양을 구하기 위해서 도리를 어기지 마시고 내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 백성을 거슬리지 마소서. 게으름이 없고 황당함이 없으면 사방의 오랑캐가 와서 조회를 드리오리라.” 하였다. 순 임금 같은 성인으로 임금을 삼고도 익의 경계가 이와 같은 것은 대개 국가가 걱정이 없는 때를 당하면 법도가 해이하기 쉽고, 안락이 방종으로 흐르기 쉬우니 수신하는 방도가 혹시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조정에서 행하고 천하에 퍼지며 사방의 오랑캐에게 미루어 나가는 데 있어 어디인들 그 이치를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몸을 닦고서 사람을 다스리고 안을 닦고서 바깥을 다스리며, 또한 반드시 마음에 게으름도 없고 일에 황당함도 없는 연후에야 융성한 다스림의 교화가 멀리 사이(四夷)에 미치게 될 것이니, 익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겠는가. 혹시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생각하며 군사를 궁지에 몰아 넣고 무기를 한없이 사용하여 바깥 오랑캐를 억제하려 하면 천하가 퇴폐하여 마침내 한무제(漢武帝)와 같이 되고 말 것이며, 또 혹시 자기의 부장만을 믿고 사치를 극도로 하여 오랑캐에게 뽐내려 하면 제 몸도 또한 유지를 못하여 마침내 수양제(隋煬帝)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기강이 서지 아니하여 장수는 교만하고 군사는 나약한데 강한 되놈과 함부로 부딪치면 제 몸이 죽게 되어 마침내 석진(石晉)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모두 근본을 버리고 지엽을 따르며 안을 비우고 바깥을 치중했기 때문이니, 안이 다스려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바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걱정 없는 때를 경계하여 게으름이 없고 황당함이 없어야 된다는 의리가 있지 아니한데, 비록 정례를 참작해서 오랑캐의 마음을 거뒀들이고 싶지만 될 일이겠는가. 한(漢) 나라 광무(光武)가 옥문(玉門)을 닫고 서역의 불모를 사절한 것도 역시 안을 먼저하고 바깥을 뒤로 하자는 뜻이다. 그러므로 명성이 중국에서 넘쳐 흘러 먼 오랑캐의 지방에까지 미쳤으며, 일월이 비치고 서리칩이슬이 내리는 곳이라면 누구나 존송하고 친애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야말로 하늘을 짝하는 지극한 공이요, 제왕의 거룩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쪽에서 오면 어루만져서 선물을 넉넉히 주며 대우를 후히 하는데도 그들이 보통으로 여기고, 진위를 마구 속이며 곳곳에서 머물러 시일만을 지체하여 변명을 갖가지로 부리고 있으니, 그놈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슬리면 문득 화를 낸다. 그래도 땅이 멀고 바다가 가로막혀서 그 실

상을 파악하고 그 정세를 살필 수가 없으니, 대우는 선왕의 옛 규례에 의거하여 진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세가 각기 경중이 있어서 또한 후박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따위 세쇄한 절목쯤은 담당관들이 할 일이다. 성상께서 옛사람의 경계한 내용을 생각하시고 역대의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먼저 몸을 닦아서 조정에 미치고 사방에 미쳐서 바깥 지역까지 미치게 하시니 하늘을 짝할 만한 극치의 공을 이룩하실 것이 의심이 없는데, 하물며 세쇄한 절목에 있어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성화 7년 신묘 늦 겨울에. 신속주는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쓰다.

현재 국내에서 공개되어 전하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의 간본(刊本)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의 연산군 7년(1501)에 간행된 갑인자본(甲寅字本), 5장 분량의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 소장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과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목활자(木活字)로 간행한 을해자체목활자본(乙亥字體木活字本)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1923년에 후손 신용휴(申龍休)가 간행한 목활자본(木活字本)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고사본(古寫本) 2, 3종이 알려지고 있으며, 고간본(古刊本)도 동경(東京) 내각문고(內閣文庫) 소장의 旧佐伯毛利氏江栗齋藏本, 동경대학(東京大學)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 소장의 旧養安院藏書本 등이 있다.

조사본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2010년에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에 의하여 17세기에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간행된 을해자체목활자본(乙亥字體木活字本)이나 완전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의 판본이고 근대 이전 시기의 유일한 목활자본(木活字本)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0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의 발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국가문화재지정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가 소장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어 실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조사본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인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보다 100여년 후에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을해자체목활자(乙亥字體木活字)로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 ○ 문헌자료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 [訓練都監], [17世紀初 推

定]. (調查本 안숙자 所藏).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初鑄甲寅字本. [漢城] : [發行者不明], [燕山君 7(1501) 推定]. (國史編纂委員會 所藏)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特別市, 2013.
- 서울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查報告書(신승운·오용섭·송일기·이완우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2013.



○ 현황

□ 書誌記述 : 調查本 「海東諸國紀」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海東諸國紀 / 申叔舟(1417~1475) 奉命撰. -- 木活字本. -- [漢城] : [訓練都監], [17世紀初 推定].

乾坤2冊 : 地圖, 四周雙邊, 半郭 26.5×17.2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5.5×21.7cm. 楮紙. 線裝(分冊改裝).

表題: 海東諸國紀

卷首題: 海東諸國紀

版心題: 海東紀

地圖名: <海東諸國總圖>(1枚), <日本本國之圖>(2枚), <西海道九州之圖>(1枚), <日本國壹岐島之圖>(1枚), <日本國對馬島之圖>(1枚), <琉球國之圖>(1枚) 등 7枚와 <熊川薺浦之圖>(1枚), <東萊富山浦之圖>(1枚), <蔚山鹽浦之圖>(1枚) 등의 三浦地圖 3枚.

內容: <序(申叔舟)>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聘應接紀>,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 <語音翻譯>(第124~127張)

卷頭序: 夫交隣聘問 撫接殊俗 必知其情 然後可以盡其禮 盡其禮 然後可以盡其心矣 我主上殿下命臣叔舟 撰海東諸國朝聘往來之舊 館穀禮接之例以來 臣受命祇栗 謹稽舊籍 參之見聞 圖其地勢 略敘世係源委 風土所向 以至我應接節目 哀輯爲書以進 臣叔舟久典禮官 且嘗渡海 躬涉其地 島居星散 風俗殊異 今爲是書 終不得其要領 然因是知其梗概 庶幾可以探其情 酌其禮 而收其心矣 竊觀國於東海之中者非一 而日本最久且大 其地始於黑龍江之北 至于我濟州之南 與琉球相接 其勢甚長 厥初 處處保聚 各自爲國 周平王四十八年 其始祖狹野起兵誅討 始置州郡 大臣各占分治 猶中國之封建 不甚統屬 習性强悍 精於劍槊 貫於舟楫 與我隔海相望 撫之

得其道 則朝聘以禮 失其道 則輒肆剽竊 前朝之季 國亂政紊 撫之失道 遂爲邊患 沿海數千里之地 廢爲榛莽 我太祖奮起 如智異·東亭·引月·冤洞 力戰數十 然後賊不得肆 開國以來 列聖相承 政清事理 內治既隆 外服卽序 邊氓按堵 世祖中興 值數世之昇平 慮宴安之鳩毒 敬天勤民 甄拔人才 與共庶政 振舉廢墜 修明紀綱 宵衣旰食 勵政圖理 治化既洽 聲教遠暢 萬里梯航 無遠不至 臣嘗聞待夷狄之道 不在乎外樣 而在乎內修 不在乎邊禦 而在乎朝廷 不在乎兵革 而在乎紀綱 其於是乎驗矣 益之戒舜曰 儆戒無虞 罔失法度 罔遊于逸 罔淫于樂 任賢勿貳 去邪勿疑 罔違道以干百姓之譽 罔拂百姓以從己之欲 無怠無荒 四夷來王 以舜爲君 而益之戒如是者 蓋當國家無虞之時 法度易以廢弛 逸樂易至縱恣 自修之道苟有所未至 則行之朝廷 施之天下 推之四夷 安得不失其理哉 誠能修己而治人 修內而治外 亦必無怠於心 無荒於事 而後治化之隆 遠達四夷矣 益之深意 其不在茲乎 其或捨近而圖遠 窮兵而黷武 以事外夷 則終於疲敝天下如漢武而已矣 其或自恃殷富 窮奢極侈 誇耀外夷 則終於身且不保如隨煬而已矣 其或紀綱不立 將士驕隳橫桃疆胡 則終於身罹戮辱如石晉而已矣 是皆棄本而逐末 虛內而務外 內既不治 寧能及外哉 有非儆戒無虞 無怠無荒之義矣 雖欲探情酌禮 以收其心 其可得乎 光武之閉玉門而謝西域之質 亦爲先內後外之意矣 故聲名洋溢乎中國 施及蠻貊 日月所照 霜露所墜 莫不尊親 是乃配天之極功 帝王之盛節也 今我國家 來則撫之 優其餼廩 厚其禮意 彼乃狃於尋常 欺誑眞僞 處處稽留 動經時月 變詐百端 溪壑之欲無窮 小拂其意 則便發忿言 地絕海隔 不可究其端倪 審其情僞 其待之也宜按先王舊例以鎮之 而其情勢各有重輕 亦不得不爲之厚薄也 然此瑣瑣節目 特有司之事耳 聖上念古人之所戒 鑑歷代之所失 先修之於己 以及朝廷 以及四方 以及外域 其於終致配天之極功無難矣 何況於瑣瑣節目乎 成化七年辛卯季冬 云云申叔舟 拜手稽首謹序。

卷 末: 弘治十四年四月二十二日/啓下承政院

活字名: 乙亥字體木活字

冊 數: 원래 不分卷1冊이었으나 현재 乾坤2冊으로 分冊됨.

傳來歷: 소유자 안숙자의 남편 故 고중석이 新聞社에 근무할 때에 購入한 것 이라 한다.

旣指定: 無

□ 現狀 :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소유자 안숙자의 남편 故 고중석이 新聞社에 근무할 때에 購入한 것이라 하며, 현재 문화재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아파트 501동 103호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1-3 경동빌라 304호의 안숙자이며,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



든아파트 501동 103호의 홍명순이다.

調査本「海東諸國紀」의 현재 상태는 分冊으로 인한 表紙의 改裝을 제외하면 매우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海東諸國紀」는 세종 25(1443)년에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叔舟(1417~1475)가 성종 2(1471)년에 王命을 받아 그가 직접 관찰한 日本의 地勢와 國情 및 交聘來往의 沿革, 使臣館待禮接의 節目 등 이른바 政治·外交·社會·風俗·地理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撰述한 서적이다.

「海東諸國紀」의 ‘海東諸國’은 일본의 本國과 九州 및 對馬島·壹岐島와 琉球國을 총칭하는 것이다. 撰述 당시의 내용은 <海東諸國總圖>(1枚), <日本本國之圖>(2枚), <西海道九州之圖>(1枚), <日本國壹岐島之圖>(1枚), <日本國對馬島之圖>(1枚), <琉球國之圖>(1枚) 등 7枚의 지도와 <日本國紀>·<琉球國紀>·<朝聘應接紀> 등<sup>20)</sup>이었다. 그 뒤 2·3편의 追錄이 첨가되어 성종 4(1473)년에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와 <語音翻譯>(第124~127張) 등이 卷末에 附錄<sup>21)</sup>되었다. 그리고 이듬해(1474) 3월 禮曹佐郎 南悌(1452~?)가 三浦倭戶의 失火를 賑恤할 때 王명을 받들어 <三浦地圖>를 모사하고 또 恒居倭人의 戶口를 조사한 결과로 만들어진 <熊川薺浦之圖>(1枚), <東萊富山浦之圖>(1枚), <蔚山鹽浦之圖>(1枚) 등 3매의 地圖가 卷頭의 地圖에 첨가·삽입<sup>22)</sup>되었다. 또한 연산군 7(1501)년에 琉球國의 使者가 우리나라에 내빙할 때 兵曹判書 李季全(1450~1506)의 건의로 宣慰使 成希顔(1461~1513)이 國情을 詳問列記한 것이 冊末에 附錄<sup>23)</sup>되었다. 이와 같이 數次의 追錄이 있었으나 원래 內容에 대해 補修한 흔적은 없는 편이다.

「海東諸國紀」는 세조 때의 重臣으로 일찍부터 國家의 樞機에 참여하여 王명에 따라 領議政으로서 禮曹의 事務를 兼掌하고 事大交隣의 外交政策을 專擔하였을 뿐 아니라 성종 즉위 이후로는 舊規를 정비하고 新制를 立案하여 海東諸國의 使人應接의 사례를 개정해 外交上의 面目을 일신하도록 한 申叔舟(1417~1475)가 그

20)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17世紀初 推定]. ‘<日本國紀>·<琉球國紀>·<朝聘應接紀> 等’條.

21)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17世紀初 推定].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喻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閣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概奉呈 成化九(1473, 成宗 4)年九月初二日啓.

2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5(1474)年 正月 27(癸丑)日條.

遣禮曹佐郎南悌于薺浦·釜山浦 饋失火倭人 賜米有差 因諭之曰 殿下聞汝等遭火災 特命臣存恤 又語之曰 汝等欲居內地 當 給田以安之 汝欲仍居浦所 或欲還本島 任汝爲之 且汝等比比失火 備火器械 不可不嚴 區畫廬舍 勿令延燒 萬戶營廳 與爾 居聯接 慮有延燒 欲築牆限之 以防火也 仍命悌與其浦僉使·本縣守令 同審營廳牆基 簽發水軍築之 嚴設門關 又命悌 因賑 饋 以數倭戶丁口 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

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7(1501)年 正月 22(辛未)日條.

兵曹判書李季全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海東諸國紀」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의 見識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일본에서 전래된 文獻과 往年의 見聞, 禮曹에서 管掌한 기록 등을 참작하여 交隣關係에 대한 후세의 軌範을 만들기 위하여 撰述한 것이다. 따라서 追錄된 부분도 燕山君朝의 것을 제외하고는 그가 직접 添加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海東諸國紀」는 韓日關係의 歷史的 變遷과 朝聘應接에 관한 規程의 연혁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整備되어 있어 交隣關係의 先規로서 오랫동안 참고가 되어 왔으며, 특히 15세기의 韓日關係史와 日本의 政治·社會·風俗·地理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古刊本이나 古寫本이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못하였고 일찍이 仁祖 때 重刊된 것이 禮曹 소속의 나이 많은 관리 집에서 겨우 1本만이 保藏되었을 뿐이었으며, 重刊된 뒤에도 정조 6(1782)년 4월의 「外奎章閣形止案」과 같은 藏書目錄에서나 金指南(1654~?)과 金慶門의 「通文館志」와 順菴 安鼎福(1721~1791)의 「列朝通紀」 등의 引用書目에 書名만 보일 정도였다. 더욱이 그 내용도 地圖를 제외한 全文이 「海行摠載」에 수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에 비해 日本에서는 古寫本 2·3本이 알려지고 있는데, 古刊本도 東京의 內閣文庫 소장의 舊佐伯毛利氏江栗齋藏本, 東京大學 史料編纂所 소장의 舊養安院藏書本 등 數種이 있다.

「海東諸國紀」는 조선시대 초기와 일본 室町幕府時代의 韓日外交關係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도 근본적인 史料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江戸時代의 韓日關係研究의 유일한 使料로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史料的 가치로 인하여 1933년에는 朝鮮史編修會에서 影印하여 刊行한 바 있고 1974년에는 民族文化推進會(현 韓國古典翻譯院)에서 「海行摠載」를 간행하면서 「海東諸國紀」를 影印하여 수록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개되어 전하는 「海東諸國紀」의 刊本으로는 5장 분량의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初鑄甲寅字本과 壬辰倭亂 직후인 17세기 초에 訓練都監에서 木活字로 刊行한 乙亥字體木活字本 그리고 近代에 들어와 1923년에 後孫 申龍休가 간행한 木活字本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調查本 「海東諸國紀」는 17세기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는 乙亥字體木活字本이다.

「燕山君日記」에 의하면 燕山君 7(1501)년 정월 22일에 「海東諸國記」와 관련된 기사에서 “병조판서 이계동이 “琉球國의 風土·人物·世代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成希顔(1461~1513)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물어서 「海東諸國紀」의 끝에 이를 써서 후일에 對備할 것을 요청하자 王이 이를 따랐다”<sup>24)</sup>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調查本 「海東諸國紀」 제2책의 말미에도 “成化九(1473, 成宗 4)年九月初二日啓”<sup>25)</sup>에 이어 琉球國의 底理와 風俗 등에 대한 내용과 <語音翻譯> 등이 5장에

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7(1501)年 正月 22(辛未)日條.

兵曹判書李季全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海東諸國紀」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25)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練都監], [17世紀初 推定]. 卷末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喻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閣下之尊

결쳐 추가되어 있다. 또한 1933년에 朝鮮史編修會에서 影印·刊行한 「海東諸國紀」의 解說에는 당시 “전하는 刊本은 4種이 있었는데, 3種은 燕山君 末年부터 中宗初年까지인 1506(연산군 12, 중종 원)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판본이었고 나머지 1種은 인조 초년인 1623(광해군 15, 인조 원)년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3종의 동일한 版本의 刊年을 1506(연산군 12, 중종 원)년으로 추정한 근거는 “부록이 첨가된 年代와 內賜記 등이었다”고 한다. 당시 影印의 底本은 朝鮮史編修會의 所藏本으로 이는 木版本이 아니라 初鑄甲寅字의 金屬活字本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卷末에 “弘治十四(1501, 연산군 7)年四月二十二日/ 啓下承文院”<sup>26)</sup>이라는 기록의 年月表示는 承文院에 알린 시기이나 刊行時期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편 壬辰倭亂 직후인 17세기 초에는 訓練都監에서 兵士들이 새긴 木活字로 여러 종류의 서적을 印出해냈는데 調查本 「海東諸國紀」도 訓練都監에서 製作한 乙亥字體木活字로 印出해낸 것이다. 그러나 調查本의 卷末에 있는 語音翻譯의 우리말 表記는 朝鮮史編修會에서 간행한 初鑄甲寅字本의 印本에 수록된 語音翻譯과 동일하다. 調查本 「海東諸國紀」는 17세기 초기에 訓練都監에서 乙亥字體木活字로 간행하면서 약 100년 전에 인쇄해낸 初鑄甲寅字本의 內容과 同一하게 만든 것이다.

調查本 「海東諸國紀」는 2010년에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에 의하여 17세기에 訓練都監에서 간행된 乙亥字體木活字本이나 완전한 初鑄甲寅字本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海東諸國紀」의 版本이고 근대 이전 時期의 유일한 木活字本이며, 保存狀態도 온전하여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評價되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는 향후 初鑄甲寅字本의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문화재지정에 대한 극도의 尊敬心의 발로에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지 않고 2010년 10월 7일에 우선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0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國家文化財指定에 대한 극도의 尊敬心의 표현과 시간적 유예 및 실제로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初鑄甲寅字本의 발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이제야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가 국가문화재지정을 신청하는 듯하다. 이에 調査者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國家文化財指定에 대한 극도의 尊敬心의 표현과 客觀的인 평가 및 높은 道德性에 깊은 敬意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2015. 7. 20) 國史編纂委員會에 初鑄甲寅字의 金屬活字本의 「海東諸國紀」가 소장되고 있음을 실사한 바 있다. 國史編纂委員會 所藏의 初鑄甲寅字本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紀其大概奉呈 成化九(1473, 성종 4)年九月初二日啓.

26)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訓練都監], [17世紀初 推定]. 卷末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喻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閣下之尊 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紀其大概奉呈 成化九(1473, 성종 4)年九月初二日啓.

「海東諸國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1)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의 初鑄甲寅字本 「海東諸國紀」보다 100여년 후에 訓鍊都監에서 乙亥字體木活字로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더욱이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所藏者 안숙자 등이 이미 數次에 걸쳐 국내의 여러 도서관·박물관 등에 高額(15億원 10億원 등)으로 賣渡하려 하였던 履歷이 있는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따라서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0호(2010. 10. 07)를 유지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 문헌자료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 [訓鍊都監], [17世紀初推定]. (調査本 안숙자 所藏).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初鑄甲寅字本. [漢城] : [發行者不明], [燕山君 7(1501) 推定]. (國史編纂委員會 所藏)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特別市, 2013.
- 서울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신승운·오용섭·송일기·이완우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 ○ 현 상

■ 書誌記述 : 조사본 「海東諸國紀」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海東諸國紀 / 申叔舟(1417~1475) 奉命撰. -- 木活字本. -- [漢城] : [訓鍊都監], [17世紀初 推定].

乾坤2冊 : 地圖, 四周雙邊, 半郭 26.5×17.2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5.5×21.7cm. 楮紙. 線裝(分冊改裝).

表 題: 海東諸國紀.

卷首題: 海東諸國紀.

版心題: 海東紀

地圖名: <海東諸國總圖>(1枚), <日本本國之圖>(2枚), <西海道九州之圖>(1枚), <日本國一岐島之圖>(1枚), <日本國對馬島之圖>(1枚), <琉球國之圖>(1枚)

圖>(1枚) 등 7枚와 <熊川齊浦之圖>(1枚), <東萊富山浦之圖>(1枚), <蔚山塩浦之圖>(1枚) 등의 三浦地圖 3枚.

內 容: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聘應接紀>,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 <語音翻譯>(第124~127張)

卷頭序: 夫交隣聘問 撫接殊俗 必知其情 然後可以盡其禮 盡其禮 然後可以盡其心矣 我主上殿下命臣叔舟 撰海東諸國朝聘往來之旧 館穀禮接之例以來 臣受命祇栗 謹稽旧籍 參之見聞 圖其地勢 略敘世係源委 風土所尚 以至我應接節目 哀輯爲書以進 臣叔舟久典禮官 且嘗渡海 躬涉其地 島居星散 風俗殊異 今爲是書 終不得其要領 然因是知其梗概 庶幾可以探其情 酌其禮 而收其心矣 窃觀國於東海之中者非一 而日本最久且大 其地始於黑龍江之北 至于我濟州之南 与琉球相接 其勢甚長 厥初 處處保聚 各自爲國 周平王四十八年 其始祖狹野起兵誅討 始置州郡 大臣各占分治 猶中國之封建 不甚統屬 習性强悍 精於劍槊 貫於舟楫 与我隔海相望 撫之得其道 則朝聘以禮 失其道 則輒肆剽窃 前朝之季 國亂政紊 撫之失道 遂爲邊患 沿海數千里之地 廢爲榛莽 我太祖奮起 如智異·東亭·引月·免洞 力戰數十 然後賊不得肆 開國以來 列聖相承 政清事理 內治既隆 外服卽序 邊氓按堵 世祖中興 值數世之昇平 慮宴安之鳩毒 敬天勤民 甄拔人才 与共庶政 振舉廢墜 修明紀綱 宵衣旰食 勵政圖理 治化既洽 聲教遠暢 万里梯航 無遠不至 臣嘗聞待夷狄之道 不在乎外樣 而在乎內修 不在乎邊禦 而在乎朝廷 不在乎兵革 而在乎紀綱 其於是乎驗矣 益之戒舜曰 儆戒無虞 罔失法度 罔遊于逸 罔淫于樂 任賢勿貳 去邪勿疑 罔違道以干百姓之譽 罔拂百姓以從己之欲 無怠無荒 四夷來王 以舜爲君 而益之戒如是者 蓋当國家無虞之時 法度易以廢弛 逸樂易至縱恣 自修之道苟有所未至 則行之朝廷 施之天下 推之四夷 安得不失其理哉 誠能修己而治人 修內而治外 亦必無怠於心 無荒於事 而後治化之隆 遠達四夷矣 益之深意 其不在茲乎 其或捨近而圖遠 窮兵而黷武 以事外夷 則終於疲敝天下如漢武而已矣 其或自恃殷富 窮奢極侈 誇耀外夷 則終於身且不保如隨煬而已矣 其或紀綱不立 將士驕隳橫桃疆胡 則終於身罹戮辱如石晉而已矣 是皆棄本而逐末 虛內而務外 內既不治 寧能及外哉 有非儆戒無虞 無怠無荒之義矣 雖欲探情酌禮 以收其心 其可得乎 光武之閉玉門而謝西域之質 亦爲先內後外之意矣 故聲名洋溢乎中國 施及蠻貊 日月所照 霜露所墜 莫不尊親 是乃配天之極功 帝王之盛節也 今我國家 來則撫之 優其餼廩 厚其禮意 彼乃狃於尋常 欺誑眞僞 處處稽留 動經時月 變詐百端 溪壑之欲無窮 小拂其意 則便發忿言 地絕海隔 不可究其端倪 審其情僞 其待之也宜按先王旧例以鎮之 而其情勢各有重輕 亦不得不爲之厚薄也 然此瑣瑣節目 特有司之事耳 聖上念古人之所戒 鑑歷代之所失 先修之於

己 以及朝廷 以及四方 以及外域 其於終致配天之極功無難矣 何況於瑣瑣節目乎 成化七年辛卯季冬 云云申叔舟 拜手稽首謹序.

卷 末: 弘治十四年四月二十二日/啓下承政院

活字名: 乙亥字体木活字

冊 數: 원래 不分卷1冊이었으나 乾坤 2冊으로 分冊함.

狀 態: 매우 양호함

所 藏: 안숙자(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1-3, 경동빌라 304호)

傳來歷: 소장자 안숙자의 남편 故 고중석이 新聞社에 근무할 때 구입함.

既指定: 없음

■ 現狀 : 조사본 「海東諸國紀」는 소장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1-3 경동빌라 304호 안숙자의 남편 故 고중석이 신문사에 근무할 때 구입한 것이며, 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아파트 501동 103호이고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아파트 501동 103호의 홍명순이다. 조사본 「海東諸國紀」의 현재 상태는 分冊으로 인한 表紙의 改裝을 제외하면 매우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海東諸國紀」는 세종 25(1443)년에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叔舟(1417~1475)가 왕명으로 편찬하여 성종(成宗) 2년(1471)에 撰進한 책으로, 직접 관찰한 日本의 地勢와 國情 및 交聘來往의 연혁, 使臣館待禮接의 節目 등 政治·外交·社會·風俗·地理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여 편찬한 서적이다.

「海東諸國紀」의 ‘海東諸國’은 조선의 동쪽에 위치한 일본의 本國과 九州 및 對馬島, 一岐島와 琉球國을 총칭하는 것이다. 찬술 당시의 내용은 <海東諸國總圖>(1枚), <日本本國之圖>(2枚), <日本國西海道九州之圖>(1枚), <日本國一岐島之圖>(1枚), <日本國對馬島之圖>(1枚), <琉球國之圖>(1枚) 등 6種7枚의 지도와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聘應接紀> 등<sup>27)</sup>이었다. 그 뒤 2·3편의 追錄이 첨가되어 성종 4(1473)년에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와 <語音翻譯>(第124~127張) 등이 卷末에 附錄<sup>28)</sup>되었다. 그리고 이듬해(1474) 3월 禮曹佐郎 南悌(1452~?)가 三浦倭戶의 失火를 진휼할 때 왕명을 받들어 <三浦地圖>를 모사하고 또 恒居倭人의 戶口를 조사한 결과로 만들어진 <熊川薺浦之圖>(1枚), <東萊富山浦之圖>(1

27)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体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17世紀初 推定]. ‘<日本國紀>·<琉球國紀>·<朝聘應接紀> 等’條.

28)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体木活字本. [漢城]: [訓鍊都監], [17世紀初 推定]. ‘畠山殿副官人良心曹饋餉日呈書契’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喻如趙有廉蔭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閣下之尊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概奉呈 成化九(1473, 成宗 4)年九月初二日啓.

枚), <蔚山塩浦之圖>(1枚) 등 3매의 지도가 卷頭に 첨가<sup>29)</sup>되었다. 또한 연산군 7(1501)년에 琉球國의 사자가 우리나라에 내빙할 때 병조판서 李季同(1450~1506)의 건의로 宣慰使 成希顔(1461~1513)이 유구국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 기록한 내용이 冊末에 附錄<sup>30)</sup>되었다. 이와 같이 몇 차례 追錄이 있었으나 원래 내용에 대해 補修한 흔적은 없는 편이다.

「海東諸國紀」는 세조 때의 중신으로 일찍부터 국가의 주요 직위를 담당하며, 왕명에 따라 영의정으로서 禮曹의 사무를 兼掌하고 事大交隣의 외교정책을 전담하였을 뿐 아니라 성종 즉위 이후로는 舊規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立案하여 海東諸國의 使人應接의 사례를 개정해 외교상의 面目을 일신하도록 한 申叔舟(1417~1475)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일본에서 전래된 문헌과 왕년의 견문, 예조에서 관장한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교린관계에 대한 후세의 규범을 만들기 위하여 찬술한 것이다. 따라서 추록된 부분도 燕山君 시대의 것을 제외하고는 그가 직접 첨가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海東諸國紀」는 한일관계의 역사적 변천과 朝聘應接에 관한 규정의 연혁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정확한 기본 사료로 오랫동안 韓日 交隣關係의 참고가 되어 왔으며, 특히 15세기의 한일관계사와 日本의 政治·社會·風俗·地理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개되어 전하는 「海東諸國紀」의 刊本으로는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의 연산군 7년(1501)에 간행된 初鑄甲寅字本, 5장 분량의 國立中央圖書館 소장 初鑄甲寅字本과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訓鍊都監에서 木活字로 간행한 乙亥字体木活字本 그리고 近代에 들어와 1923년에 후손 申龍休가 간행한 木活字本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古寫本 2, 3종이 알려지고 있으며, 古刊本도 東京 內閣文庫 소장의 旧佐伯毛利氏江栗齋藏本, 東京大學 史料編纂所 소장의 旧養安院藏書本 등이 있다.

「海東諸國紀」는 조선시대 초기와 일본 무로마치막부시대(室町幕府時代)의 한일 외교관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도 근본적인 사료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에도시대(江戶時代)의 한일관계 연구의 유일한 사료로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료적 가치로 인하여 1933년에는 朝鮮史編修會에서 影印하여 刊行한 바 있고 1974년에는 民族文化推進會(현 韓國古典翻譯院)에서 「海行摠載」를 간행하면서 「海東諸國紀」를 영인하여 수록한 바 있다.

「燕山君日記」에 의하면 燕山君 7(1501)년 정월 22일의 「海東諸國紀」와 관련된

2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5(1474)年 正月 27(癸丑)日條.

遣禮曹佐郎南梯于齊浦·釜山浦 饋失火倭人 賜米有差 因諭之曰 殿下閣汝等遭火災 特命臣存恤 又語之曰 汝等欲居內地 當給田以安之 汝欲仍居浦所 或欲還本島 任汝爲之 且汝等比比失火 備火器械 不可不嚴 區畫廬舍 勿令延燒 萬戶營廳 與爾居聯接 慮有延燒 欲築牆限之 以防火也 仍命梯與其浦僉使·本縣守令 同審營廳牆基 簽發水軍築之 嚴設門關 又命梯 因賑饋 以數倭戶丁口 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

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7(1501)年 正月 22(辛未)日條.

兵曹判書李季全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末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海東諸國紀」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기사에서 “병조판서 이계동이 “琉球國의 風土·人物·世代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成希顔(1461~1513)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물어서 『海東諸國紀』의 끝에 이를 써서 후일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자 王이 이를 따랐다”<sup>31)</sup>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海東諸國紀』 제2책의 말미에도 “成化九(1473, 성종 4)年九月初二日啓”<sup>32)</sup>에 이어 琉球國의 底理와 風俗 등에 대한 내용과 <語音翻譯> 등이 5장에 걸쳐 추가되어 있다.

또한 1933년에 朝鮮史編修會에서 影印本으로 간행한 『海東諸國紀』의 解說에는 당시 “전하는 刊本은 4종이 있었는데, 3종은 燕山君 말년부터 中宗初年까지인 1506(연산군 12, 중종 원)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판본이었고 나머지 1종은 인조 초년인 1623(광해군 15, 인조 원)년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3종의 동일한 판본의 刊年을 1506(연산군 12, 중종 1)년으로 추정한 근거는 “부록이 첨가된 年代와 內賜記 등이었다”고 한다. 당시 影印의 底本은 조선사편수회 소장본인 初鑄甲寅字의 金屬活字本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卷末에 기록된 “弘治十四(1501, 연산군 7)年四月二十二日/ 啓下承文院”<sup>33)</sup>이라는 承文院에 알린 年月表示로 간행시기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는 訓練都監에서 병사들이 새긴 목활자로 여러 종류의 서적을 印出해냈는데 조사본 『海東諸國紀』도 訓練都監에서 제작한 乙亥字体木活字로 印出해낸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의 卷末에 있는 語音翻譯의 우리말 표기는 朝鮮史編修會에서 간행한 初鑄甲寅字本의 印本에 수록된 語音翻譯과 동일하다. 즉 조사본 『海東諸國紀』는 17세기 초기에 訓練都監에서 乙亥字体木活字로 간행하면서 약 100년 전에 인출해낸 初鑄甲寅字本의 내용과 동일하게 만든 것이다.

조사본 『海東諸國紀』는 2010년에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에 의하여 17세기에 訓練都監에서 간행된 乙亥字体木活字本이나 근대 이전 時期의 유일한 木活字本이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여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評價되었다.

그러나 최근 初鑄甲寅字로 인출된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海東諸國紀』를 실시한 결과 조사본에 비해 100여년이 앞선 16世紀初 간행된 판본이고, 1933년에 朝鮮史

3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7(1501)年 正月 22(辛未)日條.  
兵曹判書李季全啓 琉球國使臣 世祖朝來聘 今年重來 其國之風土·人物·世代未之詳知 請令宣慰使成希顔從容詳問 書于『海東諸國紀』之末 以備後考 傳曰 可.

32)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体木活字本. [漢城] : [訓練都監], [17世紀初 推定]. 卷末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喻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閣下之尊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概奉呈 成化九(1473, 성종 4)年九月初二日啓.

33)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体木活字本. [漢城] : [訓練都監], [17世紀初 推定]. 卷末條.  
凡今原日本國大亂之起本矣 細川右京大夫源勝元 山名左衛督源持豐 國王一姓 累代之大臣 而左輔右弼 執朝家之權柄 喻如 趙有廉藺 兩家爭威 連日有隙 將及戰鬪 則天下中分 … 右草狀一通 語言卑野 句讀難分 慚汗浹背 實雖不足備於閣下之尊覽 而通事人 只通世語耳 如是之大議 以言語難通者歟 故記其大概奉呈 成化九(1473, 성종 4)年九月初二日啓.



編修會에서 影印本으로 간행한 「海東諸國紀」의 底本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調査本 「海東諸國紀」는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의 初鑄甲寅字本 「海東諸國紀」보다 100여년 후에 訓練都監에서 乙亥字體木活字로 간행된 판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재대로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10호(2010. 10. 07)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 문헌자료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乙亥字體木活字本. [漢城] : [訓練都監], [17世紀初推定]. (調査本 안숙자 所藏).
- 申叔舟 編, 「海東諸國紀」. 初鑄甲寅字本. [漢城] : [發行者不明], [燕山君 7(1501) 推定]. (國史編纂委員會 所藏)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서울特別市, 2013.
- 서울시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신승운·오용섭·송일기·이완우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6.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有) 필사본]

### 가. 검토사항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有) 필사본]’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래, 국민적 관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13)를 실시함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대상목록』 작성팀을 구성하여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분상용에 대한 검토('15.7.23)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有) 필사본]
- 소유자(관리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 소재지: 목록 참조
- 수 량: 총 1,171건 1,807책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필사본(筆寫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조선후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일괄 검토 필요

- 보류- 일괄 검토 필요
- 보류- 일괄 검토 필요

국왕이 수행하는 국정 가운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가 행사나 사업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던 의궤는, 행사나 사업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즉, 행사나 사업 기간 중에 국왕이 내린 명령서, 업무를 분장한 관청 간에 오간 공문서, 업무의 분장 상황, 업무 담당자의 명단, 행사 또는 공사에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경비의 지출 내역, 유공자에 대한 포상 상황이 모두 기록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거나 탄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본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 의궤 1,171건 1,807책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미상 필사본 의궤 1,171건 1,807책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 의궤는 기 조사한 어람용 및 예람용 의궤 및 다른 일반의궤와 함께 검토한 후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다.

#### 마. 의결사항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조사보고서

□

#### ○ 현 상

조사본 『조선왕조의궤(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는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조선왕조의궤(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의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편이며 일부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 수량 : 『조선왕조의례(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 총 1,171건 1,807책

- 규장각 :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二房儀軌』 등 885건 1,433책
- 장서각 :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등 216건 256책
- 국립문화재연구소 : 『昌德宮修理都監儀軌』 등 9건 11책
- 국립고궁박물관 : 『昌慶宮營建都監儀軌』 등 60건 105책
- 국립중앙도서관 :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 營建廳儀軌』 1건 2책

##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의례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癸亥條에 정도전, 권근 등이 찬수한 종묘 제사 때의 춤에 관한 의례와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丁亥條에 태조4년 경복궁 창건시 그 건설과정을 기록한 『景福宮造成儀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의례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사대상이 된 의례는 의례 중 현재까지 비유일본이면서 완질이며 분상처가 있는 필사본으로 여겨지는 의례 1,171건 1,807책이다. 이 중에 광해군 2년(1610) 4월에 작성된 규장각 소장의 『宣宗大王 懿仁王后 祔廟都監二房儀軌』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1910년의 『[興王]冊封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의례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親農·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이러한 내용의 체제는 시대나 의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감의 관원명단을 적은 座目, 의례의 진행과정을 적은 時日, 의례의 주요장면이나 주요도구의 그림을 실은 圖式, 圖說, 업무시 오고간 문서들을 기록한 教旨, 上奏文,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財用,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工匠, 의례 집행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賞典 등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의례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인 것이다.

조사본은 이 중에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으로서 분상처가 있는 필사본 의례 1,171건 1,807책이다. (각 의례의 상세목록은 별첨목록 참조)

○ 문헌자료

-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박정혜, 「의궤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研究』 第9號(미술사연구회, 1995).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5.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목록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 신승운, 「조선왕조 의궤의 조사연구와 정리방안」, 『조선왕조 의궤의 번역현황과 과제』 발표자료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심재우, 「조선왕조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발표자료집, 문화재청, 2007.
- 옥영정, 「의궤의 서지학적연구성과와 편찬 간행관련 기록의 활용」, 『조선왕조 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1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의궤해제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3.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의궤목록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 보 고 사 항





## 1. 경북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탄소연대 측정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북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09. 6. 2)이 있어 지정조사('10.4.23, '10.5.4)후 본위원회('12.2.9)에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하였음
- 지정예고 기간('12.02.22~03.21) 중 이견(불상의 양식이 고려시대 불상으로 볼 수 없고 근래 작품으로 보이므로 성급하게 지정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재검토함이 타당함)이 접수('12.03.19)되어 재조사('12.05.15) 후 본위원회('12.06.14)에서 심의했으나 '과학적조사(탄소연대측정), 내부문서확인 후 재심의'사유로 보류됨
- 이에, 불상의 제작연대 파악을 위한 탄소연대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 다. 탄소연대측정 결과

- 시료채취일자 : 2015. 7. 17(금)
- 시료채취부분 : 불상의 밑면 건칠 층 中 가운데 부분의 삼베
- 탄소연대측정 기관 : 미국 BETA연구소
- 결과 : 직물의 방사선탄소연대는 AD900~945년이며 정확도는 90%임

### 라. 향후 조치 계획

- 불상 분야 관계전문가 소위원회 개최 예정
  - 개최일자 : 8월말 9월 초
  - 안건 : 해당 불상의 국가지정문화재적 가치 논의

###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



경북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어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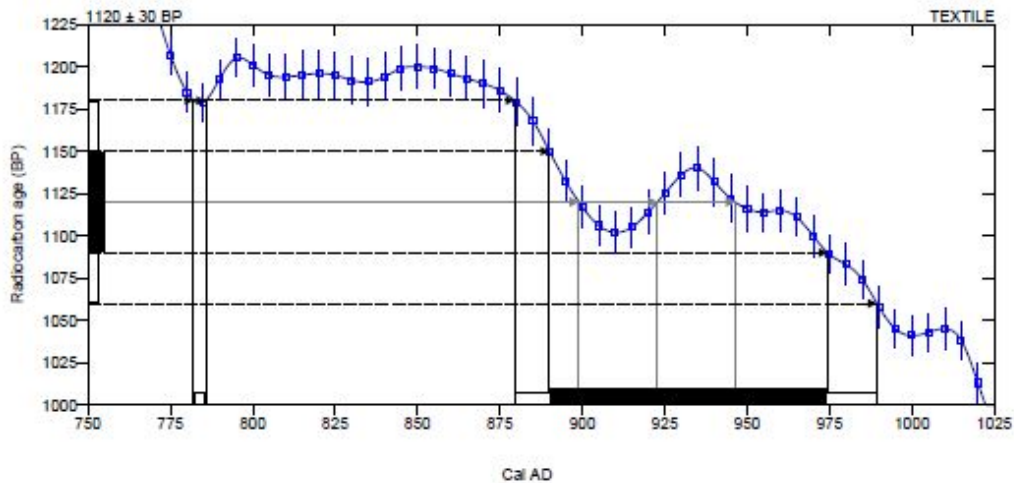
시료 채취 부분

〈붙임〉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에 대한  
미국 BETA연구소의 탄소연대측정결과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Variables: C13/C12 = -26.3 o/oo : lab. mult = 1)

<b>Laboratory number</b>	<b>Beta-415823</b>
<b>Conventional radiocarbon age</b>	<b>1120 ± 30 BP</b>
<b>Calibrated Result (95% Probability)</b>	<b>Cal AD 780 to 785 (Cal BP 1170 to 1165) Cal AD 880 to 990 (Cal BP 1070 to 960)</b>
<b>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b>	<b>Cal AD 900 (Cal BP 1050) Cal AD 925 (Cal BP 1025) Cal AD 945 (Cal BP 1005)</b>
<b>Calibrated Result (68% Probability)</b>	<b>Cal AD 890 to 975 (Cal BP 1060 to 975)</b>



**Database used**  
INTCAL13

**References**

**Mathematics used for calibration scenario**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lma, A. S.,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317-322

**References to INTCAL13 database**

Reimer P.J et al. IntCal13 and Marine13 radiocarbon age calibration curves 0–50,000 years cal BP. Radiocarbon 55(4):1869–1887., 2013.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Page 3 of 3

## 2.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수량 변경 검토 보고

### 가. 보고사항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지정 수량(81,258판)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지정수량(81,258판)에 대하여 중복판의 발견 등 변경 사유가 발생, 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위함.

### 다. 지정/수량 관련 주요 현황

- 문화재 지정
  - 일제 강점기 최초 지정 : 보물 제111호(1934. 8. 27)
  - 문화재보호법 제정(1962년)에 따라 국보 지정 : 국보 제32호(1963. 12. 20)
- 지정 수량 : 81,258판
  - 78,498판(대장판/고려)+2,742판(보유판/고려~조선)+18판(1915년 보각판)
  - \*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대장경판 인경시 최초 공식수량 파악(81,258장)
  - 실제 보관수량 : 81,350판
    - 2000~2010년까지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시 중복분류판 확인
    - 78,498판(대장판/고려)+2,742판(보유판/고려~조선)+110판(중복)

원판분류판		중복분류판	계	비고
대장판	보유판			
78,498	2,742	18	<b>81,258</b>	1915년
78,498	2,742	110	<b>81,350</b>	2013년

- \* 대장판과 보유판 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중복분류판이 110판 추가 확인됨에 따라 수량 차이 발생
- 일제강점기 대장경판 추가 제작 : 1915년 18장(26면), 1936년 18장(31면) 제작
  - \* 당초 대장도감판과 보유판 81,240(1915년 조선총독부 조사)판에 대장판 18판을

포함하여 문화재 지정 추정(1936년 판 미포함)

○ 문화재 추가지정 : 합천해인사 내전수함음소 2판(보물 제1806호/2013.7.16)

\*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팔만대장경 인경본 대조 조사를 통해 진본 확인(1판 미발견)

※ 팔만대장경판 조사 현황

조사연도	수 량	조사자	전 거	비 고
1915	81,258	小田幹次郎 (조선총독부)	소전유고	81,258판 내에 중복분이 121판, 보유분이 15종 236권. 결판 18판
1925	81,258	무능거사	불교 제8호	81,258판 내에 중복분이 121판이고, 결판분이 18판
1937	81,258	高橋亨	고려대장경 인출전	상 등
1955	81,258	박영수	고려대장경 자료집1	81,258판 내에 중복분이 121판, 종경록 등 보유분이 15종, 231권
1968	81,348	서수생	가야산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	81,348판 내에 중복판 108판
2010	81,350	팔만대장경 연구원	DB구축 및 3D영상 보고서	81,350판 내에 중복판 108판
2012	81,350	합천군	팔만대장경 중복판 조사보고서	81,350판 내에 중복판 110판

라. 조사 현황

○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사업’ 추진

- 중복판의 조성·보각시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원판과 후대 보각판의 진위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 제공

- 조사대상 : 중복판 207판(원판분류경판 97판, 중복분류경판 110판)

- 조사결과(해인사대장경판(대장+보유판)의 전체 수량)

· 81,350판 : 개별 중복판을 모두 포함한 경우(후대 보각판 포함)

· 81,258판 : 중복판(2·3·4중판)을 한 종류씩 묶어 92종으로 산출한 경우

※ 조성·보각시기(중복판 제작시기)

조성시기	중복판	중복분류	비고
고종23(1236) ~ 고종38(1251)	90판	50판	
우왕7(1381) ~ 성종2년 전후(1471)	33판	18판	*무진, 을유판 포함
조선시대	34판	9판	
조선후기	13판	8판	
1915(대정판)	18판	7판	*18판중 11판 원판분류
1937(소화판)	18판	18판	*1915년 보각판 재보각
<b>합 계</b>	<b>207판</b>	<b>110판</b>	

- ‘해인사 사간판내 대장경판 조사용역’ 추진
  - 해인사 사간판내 대장경판 추가 경판 없음
  - \* ‘12년 중복판 조사용역시 사간판 내 대장경판 1판, 대장경판 내 사간판 1판 발견

## 마. 추진 계획

- 해인사 대장경판 수량 정정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15. 10월 중
  - 중복판 포함 대장경판 전체 세부목록 작성
  - 내전수함음소 포함, 국보 제32호 수량 조정안 논의
  - \* 우리 청이 주관하여 조계종, 해인사, 관련 학자(역사,서지,불교학 등)들 참여
- 대장경판 수량 정정에 대신 문화재위원회 심의 예정 : ‘15. 12. 10.
  -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목록 작성 및 수량 조정
  - 팔만대장경판 지정수량 정정 고시

## 바.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3. 경주 왕릉사원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 지정 추진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경주 왕릉사원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약사여래좌상 지정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2. 1. 9)이 접수된 후 은해사로부터 왕릉사원이 지정 신청한 불상 2구에 대한 '지정 보류 요청('12.2.8)'이 있었음  
※ 보류요청 사유 : 해당불상 2구는 원래 경산 환성사(은해사 말사) 소유로 70년대 중반에 분실된 것임
- 이에, 왕릉사원으로부터 해당불상에 대한 소장경위서 및 소장당시(1942년 경)를 목격한 신도확인서가 제출('15.7.2)됨에 따라 주요 쟁점 사항과 향후 지정 추진 일정을 보고하고자 함

#### 다. 해당문화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양측의 사유(붙임 참조)

- 왕릉사원 : 원래 환성사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이었으나 100년전 환성사에서 불상을 새로 봉안하면서 땅에 묻은 것을 1942년경 발굴하여 은해사와 환성사의 허락 하에 왕릉사원으로 이안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왕릉사원 소유임
- 은해사 : 『조선고적도보』 등에 의하면, 이 불상은 은해사 말사인 환성사(경북 경산)의 소유로 1970년 중반 분실된 것이며, 이후 소재를 찾아오던 중 왕릉사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 불상은 원 소재지인 환성사의 소유임

**라. 향후 조치 계획**

- 지정조사 실시(9월 중) 및 위원회 검토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양 사찰의 소유권 문제 해결 후 다시 지정신청토록 함.